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고속도로 제32호선
옥 산 ~ 오 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준 공)

2018. 01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3. 0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차 례

I. 조사개요	5
II.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7
1. 자연 · 지리 환경	7
2. 고고 · 역사 환경	8
3. 연혁	11
III. 조사내용	15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현황	15
2. 고고 · 역사분야	19
3. 자연마을 및 주요지명 조사	27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38
1. 문화재 보존대책(현황)	38
2.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39

표 차례

[표 1]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	12
[표 2] 1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21
[표 3] 2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23
[표 4] 3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24
[표 5] 4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26
[표 6] 5구간 내 표본조사 필요범위 및 성격	26
[표 7] 조사 현황	38
[표 8]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00m 이내)	38

지도 차례

[지도 1] 조사대상지역 위치도	6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7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10
[지도 4] 조사대상지역 주변 유적분포도	14
[지도 5] 조사대상지역 위성지도	18
[지도 6]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920년대)	20
[지도 7] 제1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20
[지도 8] 제1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22
[지도 9] 제3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22
[지도 10] 제4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25
[지도 11] 제5구간 계획평면도 및 표본조사필요범위	26

사진 차례

[사진 1] 충비 삼월지비 및 청풍김씨 묘역	17
[사진 2] 이효석 신도비	17
[사진 3] 청풍김문 쌍효각	17
[사진 4] 성인문	17
[사진 5] 이인석 묘	17
[사진 6]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 (1)	42

[사진 7]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 (1)	42
[사진 8]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 (1)	43
[사진 9]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 (2)	43
[사진 10] 청원휴게소 ~ 0+200 전경 (3)	44
[사진 11] 1+200 ~ 0+500 전경 (4)	44
[사진 12] 0+500 ~ 1+200 전경 (5)	45
[사진 13] 1+200 ~ 1+500 근경 (6)	45
[사진 14] 1+200 ~ 1+500 근경 (6)	46
[사진 15] 호죽리 유물산포지 전경 (7)	46
[사진 16] 호죽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7)	47
[사진 17] 2+0 ~ 2+500 원경 (8)	47
[사진 18] 2+600 ~ 2+700 전경 (9)	48
[사진 19] 2+700 ~ 2+800 근경 (10)	48
[사진 20] 2+800 ~ 2+900 근경 (11)	49
[사진 21]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49
[사진 22]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50
[사진 23] 3+700 ~ 4+0 원경 (13)	50
[사진 24] 3+700 ~ 4+0 원경 (13)	51
[사진 25] 4+100 ~ 4+500 원경 (14)	51
[사진 26] 4+100 ~ 4+500 근경 (14)	52
[사진 27]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근경 (15)	52
[사진 28]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수습유물 (15)	53
[사진 29] 4+800에서 바라 본 시점부 전경 (16)	53
[사진 30] 5+100 계곡부 경작지 전경 (17)	54
[사진 31] 5+800에서 바라본 성산리 유물산포지 (18)	54
[사진 32]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55
[사진 33]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55
[사진 34] 성산리 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원경 (20)	56
[사진 35] 청풍김씨 묘역 수습 유물 (21)	56
[사진 36] 능골 유물산포지 전경 (23)	57
[사진 37] 능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23)	57
[사진 38] 7+900 주변 경작지 전경 (24)	58
[사진 39] 8+300 주변 경작지 전경 (25)	58
[사진 40] 8+300 능선 근경 (25)	59
[사진 41] 8+800 능선 근경 (26)	59
[사진 42] 목령산 북쪽 사면부 근경 (27)	60

[사진 43] 9+300 근경 (27)	60
[사진 44] 9+300 능선 정상부 근경 (28)	61
[사진 45] 9+400 경작지 근경 (29)	61
[사진 46]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0)	62
[사진 47]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62
[사진 48]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63
[사진 49] 복현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31)	63
[사진 50] 10+100 사면 근경 (32)	64
[사진 51] 10+200 사면 전경 (33)	64
[사진 52] 모정교 ~ 복현사거리 전경 (34)	65
[사진 53]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5)	65
[사진 54]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6)	66
[사진 55]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7)	66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 국토해양부는 국토간선도로망계획(7x9) 동서 5축(당진~천안~옥산~오창~영주~울진)의 구축의 일환으로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산만권과 대전·청주권간 생산, 물류, 교류 기반조성 확대 등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또 동서 5축의 조기 건설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중부지역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담당한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주)는 사업시행 전 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 우리 연구원은 2012년 08월 29일 지표조사에 착수하여 사전조사→현지조사→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 순으로 2013년 01월 0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지역의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

4. 조사면적 : 1,322,272m²(연장 12.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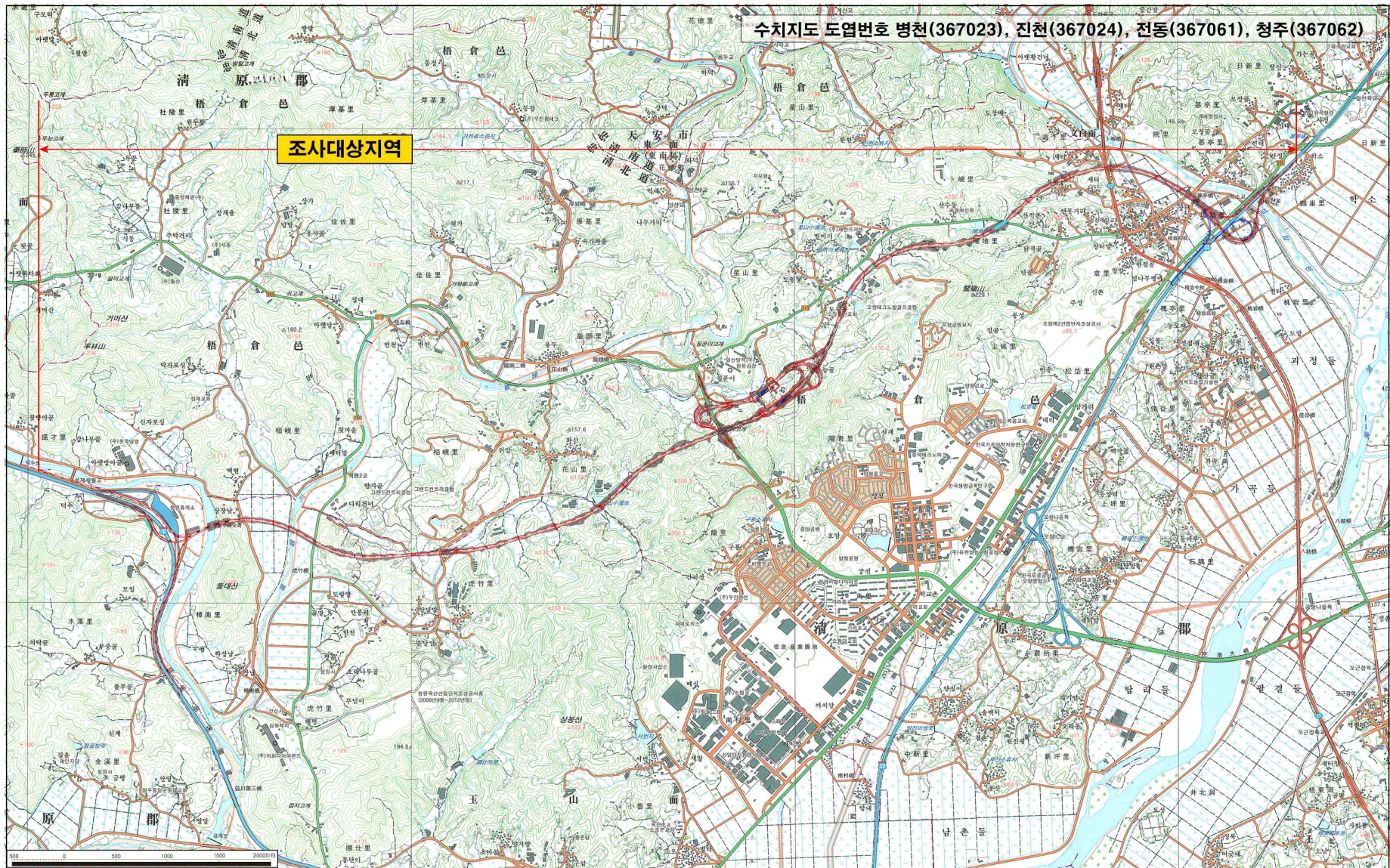
5. 조사기간 : 2012년 8월 29일 ~ 2013년 01월 08일

(사전조사 3일, 현장조사 2.5일, 정리 및 분석 2.0일, 보고서 작성 5.0일)

6.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우 중 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 사 원 : 신 승 철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이 신 복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7. 조사의뢰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주)



[지도 1] 조사대상지역 위치도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 환경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1,322,272m²(연장 약 12.1km)이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청원군은 충북의 중서부에 자리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증평군,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남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연기군, 북쪽으로는 진천군, 괴산군과 접하며, 중앙부에 자리한 청주시를 감싸고 있다[지도 2].

청원군의 지형은 전체로 보아 동고서저형으로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야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구성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의 노령산맥은 차령산맥과 옥갑산에서 분기하여 정남으로 뻗어 내려 백마령, 보광산, 칠보산을

지나 미원면의 좌구산에서 미동산, 국사봉, 피반령, 샘봉산을 지나 옥천군의 환산과 대성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쪽으로 문의의 작두산, 현도면의 구봉산등이 솟아 있다.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면서 서남방향으로 뻗어 소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

충북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오창평야와 미호평야를 관개하는 미호천은 음성군 부용산(644m) 남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 청원군 및 충남 연기군을 거치면서 백곡천, 보광천, 무심천, 천수천, 조천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지류와 합류하여 신탄진까지는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에서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서해로 흘러든다.

청원군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편마암류와 곳곳에 잔류되어 있는 흑운모 편암류, 이들이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¹⁾ 토양은 크게 6개의 토양군으로 구분되고, 사촌-상주 토양군, 식질토양인 화동-극락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토양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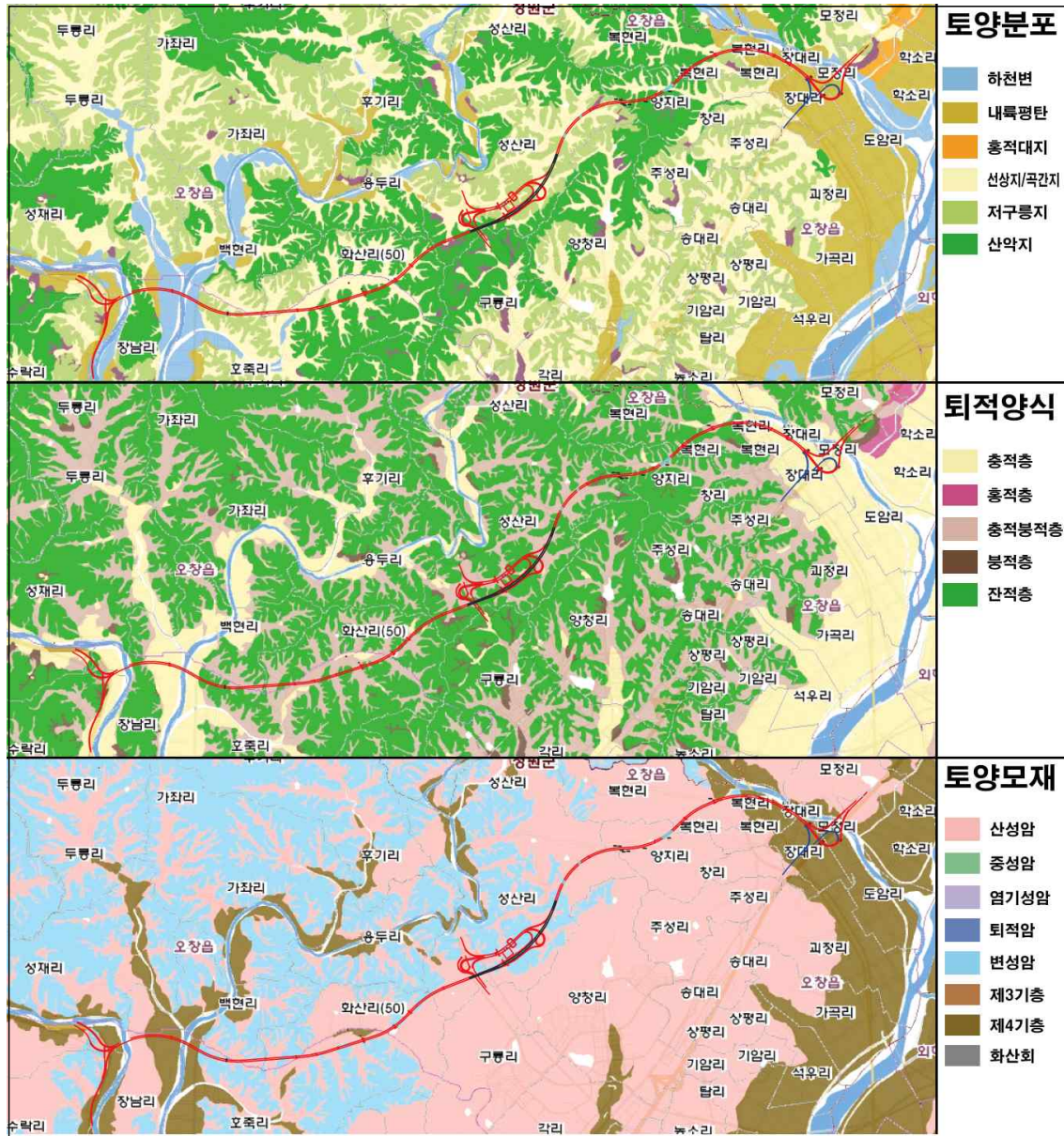
기후는 충청북도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지형이 높은 동부지역은 서부의 저지대에 비해 특이한 기후현상을 보인다. 청원군의 연 평균 기온은 11.5℃로 온난한 편이나 1월 평균기온은 -3.8℃, 8월은 25.2℃ 내외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29℃에 달한다. 전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1) 나기창, 1990. 「지형과 지질」 『청원군지』(청원군지 간행위원회) 191~201.

반적으로 위도에 비해 춥고 더운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강수량은 남동풍이 탁월한 3개월 동안은 연간 강수량의 55% 이상이 집중된다.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6.7% 정도이다 연 강수량은 1,246mm이다.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2. 고고·역사 환경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은 금강상류 지역으로 미호천과 병천천이 진천지역과 천안지역에서 흘러 청원군 강외면에서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미호천과 병천천 주변의 무심천, 초평천, 작천 등의

소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으로는 해발 50~15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인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호천 유적의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80년대 이후 부분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적이 보고되었으며,²⁾ 1998년 『문화유적 분포지도-청주시』³⁾와 2000년 『문화유적 분포지도-청원군』⁴⁾이 간행되어 전반적인 문화유적 분포양상이 밝혀졌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동굴유적과 한대유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동굴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동굴⁵⁾, 작은용굴유적⁶⁾, 청석굴유적⁷⁾이 있으며, 한대유적으로는 청원 샘골유적⁸⁾, 문산유적⁹⁾, 소로리 유적¹⁰⁾, 노산리유적¹¹⁾, 청주 봉명동유적¹²⁾, 울랑동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미호천 상류지역인 진천지역에서 장관리유적¹³⁾과 송두리유적¹⁴⁾ 등이 발굴조사 되어, 금강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구석기문화의 유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유적¹⁵⁾, 옥산면 환희리 내안마을유적¹⁶⁾, 강외면 쌍청리유적¹⁷⁾과 청주 상당산성 남문밖유적¹⁸⁾이 있다. 쌍청리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2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凸字形 돌출부시설이 보이는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특히 연속된 압인무늬가 특징적으로 베풀어지고 독특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른바 금강식토기로 설정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청원 궁평리유적¹⁹⁾, 내수리유적²⁰⁾, 황탄리유적²¹⁾, 송대리유적²²⁾과 청주 내

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 - 清州市, 槐山郡』; 1986.『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調査報告 第 17集); 金榮振, 朴相侑, 1990.『清原郡 文化遺蹟』(清州大學校 博物館); 이원복 외, 1992.『鎭川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朴瑱雨, 1993.『美湖川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禹鐘允, 1994.『금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Ⅰ)』『年報』2 (忠北大學校 博物館); 趙祥紀, 1994.『미호천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Ⅰ)』『年報』3 (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4.『清州科學産業團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清州市 文化遺蹟』.

3)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州市』(調査報告 第 58集).

4)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0.『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原郡』.

5) 李隆助, 1983.『清原 두루봉洞窟 舊石器遺蹟 發掘調査 報告書(1)』(忠北大學校 博物館).

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청원 작은용굴유적』(調査報告 第105冊).

7)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8) 李隆助, 1979.『大淸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9) 李隆助, 1981.『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 연구』(담구당).

10) 李隆助, 禹鐘允 편, 2000.『清原 小魯里 舊石器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11)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清原 老山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清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진천 장관리유적』.

14) 中원문화재연구원, 2004.『진천 송두리 구석기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15) 李隆助, 1979.『大淸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16) 朴瑱雨, 1993.『美湖川 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17) 申鍾煥, 1993.『清原 雙淸里 住居址』(國立清州博物館).

1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7.『上黨山城 - 서장대 및 남문 외 유적지 조사보고』.

19) 李隆助 외, 1994.『清原 宮坪里 靑銅器遺蹟』(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곡동유적²³⁾, 향정동, 외북동 유적²⁴⁾, 비하동 유적²⁵⁾, 가경3지구유적²⁶⁾, 용암동유적²⁷⁾, 봉명동유적²⁸⁾이 있다.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유적²⁹⁾, 신봉동유적³⁰⁾, 송절동유적³¹⁾, 가경4지구유적³²⁾, 명암동유적³³⁾, 용담동유적³⁴⁾, 용암동유적³⁵⁾, 청원 주성리유적³⁶⁾, 송대리유적³⁷⁾, 상평리유적³⁸⁾, 남촌리유적³⁹⁾, 미천리유적⁴⁰⁾ 등이 있다.

이 밖에 현재의 충북지역은 삼국시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관방유적이 있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 일원에는 1개면에 10여개의 산성유적이 밀집하고 있으며, 최근 고구려 산성인 남성곡산성이 발굴조사되어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보은 삼년산성으로부터 진천 도당산성에 이르기까지 2~30리마다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이 서로 상망하고 있어 신라가 경주-상주-보은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대략을 알려주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지역에는 모두 36개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방유적으로 지금까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은 먼저 청주시의 정북동토성⁴¹⁾, 우암산토성, 당차산토성⁴²⁾, 부모산성⁴³⁾, 상당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산청 강루리, 청원 내수리』.

21)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黃灘里遺蹟』(연구총서 제 10집).

2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淸原 梧倉遺蹟』.

23) 車勇杰, 1986. 「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24) 尹武炳, 1986. 「淸州 香亭,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 『위 책』.

25) 한국고고학회, 1974. 「청원 비하리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 3 : 김성명, 신종환, 1993. 『청주 비하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청주박물관).

26) 이용조, 2002. 『청주지역 선사문화』(청주문화원).

2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淸原 龍岩遺蹟 I~III』.

28) 車勇杰 외, 2004. 『淸州 鳳鳴洞遺蹟(III)-IV地區 調査報告②』(忠北大學校 博物館).

29) 車勇杰 외, 2002. 『淸州 鳳鳴洞遺蹟(I)-I地區 調査報告』(忠北大學校 博物館) ; 2002. 『淸州 鳳鳴洞遺蹟(II)-IV地區 調査報告①』(忠北大學校 博物館).

30)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82年度 調査』; 1990.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90年度 調査』; 金成明 외, 1993. 「淸州 新鳳洞 B地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史研究所) : 車勇杰 외, 1995.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6. 『淸州 新鳳洞 古墳群 - 1995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외, 2002. 『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3.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車勇杰 외, 1995. 『淸州 松節洞 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4. 『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調査 報告書』; 車勇杰, 趙祥紀 외, 1995. 『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93年度 發掘調査』(百濟文化開發研究所, 忠北大學校 博物館).

32) 車勇杰 외, 2002. 『淸州 淸州 佳景4地區 遺蹟(I)』(忠北大學校 博物館) : 禹鐘允 외, 2004. 『淸州 淸州 佳景4地區 遺蹟(II)』(忠北大學校 博物館).

33) 國立淸州博物館, 2000. 『淸州 明岩洞遺蹟(I) - 1998年度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01. 『淸州 明岩洞遺蹟(II) - 1998年度 試掘 및 發掘調査 報告書』.

34) 國立淸州博物館, 2001. 『淸州 龍潭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3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淸原 龍岩遺蹟 I』.

3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淸原 主城里 遺蹟』.

3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淸原 梧倉遺蹟』.

38) 김병모, 1986. 「청원 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39)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0. 『남촌리 유적』.

4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5. 『淸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4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淸州 井北洞 土城 I - 1997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산성⁴⁴⁾, 청주읍성⁴⁵⁾과 청원군의 남성곡산성⁴⁶⁾, 소재산성⁴⁷⁾, 낭비성⁴⁸⁾, 구라산성⁴⁹⁾, 양성산성⁵⁰⁾, 저산성⁵¹⁾ 등이 있다.

이처럼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지방의 고고, 역사적인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연혁

삼한시대의 청주, 청원지역은 마한의 국읍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력들은 토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 청원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자료와 함께 백제시기의 청주 신봉동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런 자료들로 볼 때 3세기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자치적인 지배권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 항쟁기에 삼국간의 각축장이었다. 청주 정북동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비롯한 청원군의 여러 성터들이 백제시기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용면 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발굴조사 됨으로써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청주, 청원지역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진흥왕대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대세 속에서 6세기경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 인근의 청원 문의(一牟山郡)가 이미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갔고 474년 이 곳의 양성산성(壤城山城)이 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의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清州 井北洞 土城Ⅱ-2000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4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43) 車勇杰 외, 1999.『清州 父母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4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車勇杰 외, 1997.『上黨山城』(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車勇杰 외, 1999.『上黨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上黨山城 - 城壁補修區間內 試, 發掘調査 報告書』.

45)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1.『清州邑城, 南石橋』.

46) 車勇杰 외, 2005.『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47) 車勇杰 외, 2005.『清原 芙蓉面地域 山城』(中原文化財研究院).

48) 車勇杰 외, 2001.『清原 狼臂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49) 車勇杰 외, 2001.『清原 謳羅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0) 車勇杰 외, 2001.『清原 壤城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車勇杰 외, 2001.『清原 壤城山城 貯水池 發掘調査 略報告書』(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1) 車勇杰 외, 1999.『清原 猪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방어도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 또 한차례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청주 호족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기반세력이었지만 정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하였다. 그리하여 청주 호족들은 크게 친궁예세력과 친왕건세력으로 분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들 청주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광종 때 설치한 『용두사지철당간기』(국보 제 41호)에 의하면 김(金), 손(孫), 경(慶), 한(韓)씨 등의 1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청주지역에는 한(韓), 이(李), 김(金), 곽(郭), 손(孫), 경(慶)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게 된다. 즉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중의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5) 12목이 폐지되고 10도로 나누어 12주를 두게 되자 청주는 중원도에 속한 전절군(全節軍)으로 불리는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다시 설치할 때 청주는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건국 초에 불리어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 지금의 청원군 문의면)과 목주군(木州郡 ;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 군과 진주(鎭州 ; 진천군), 전의(全義 ; 연기군 전의읍), 청주, 도안(道安 ; 괴산군 도안면), 청당(靑塘 ;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 연기군), 회인(懷仁 ; 보은군 회남, 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 공주)와 홍주(洪州 ; 홍성군), 천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令官)을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川縣 ; 괴산군 청천면)이 있고 향은 2곳에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鄉 ; 대진 동면)과 덕평향(德坪鄉 ; 진의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 청원군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曲 ;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豐部谷 ;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閑身部谷 ; 괴산군 청천면)의 4곳이다.

조선 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의 우호적이었던 경복흥(慶復興)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충(鄭攄), 정탁(鄭擢), 3등 공신 이었던 한상경(韓尙敬)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監司兼牧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종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년(1449)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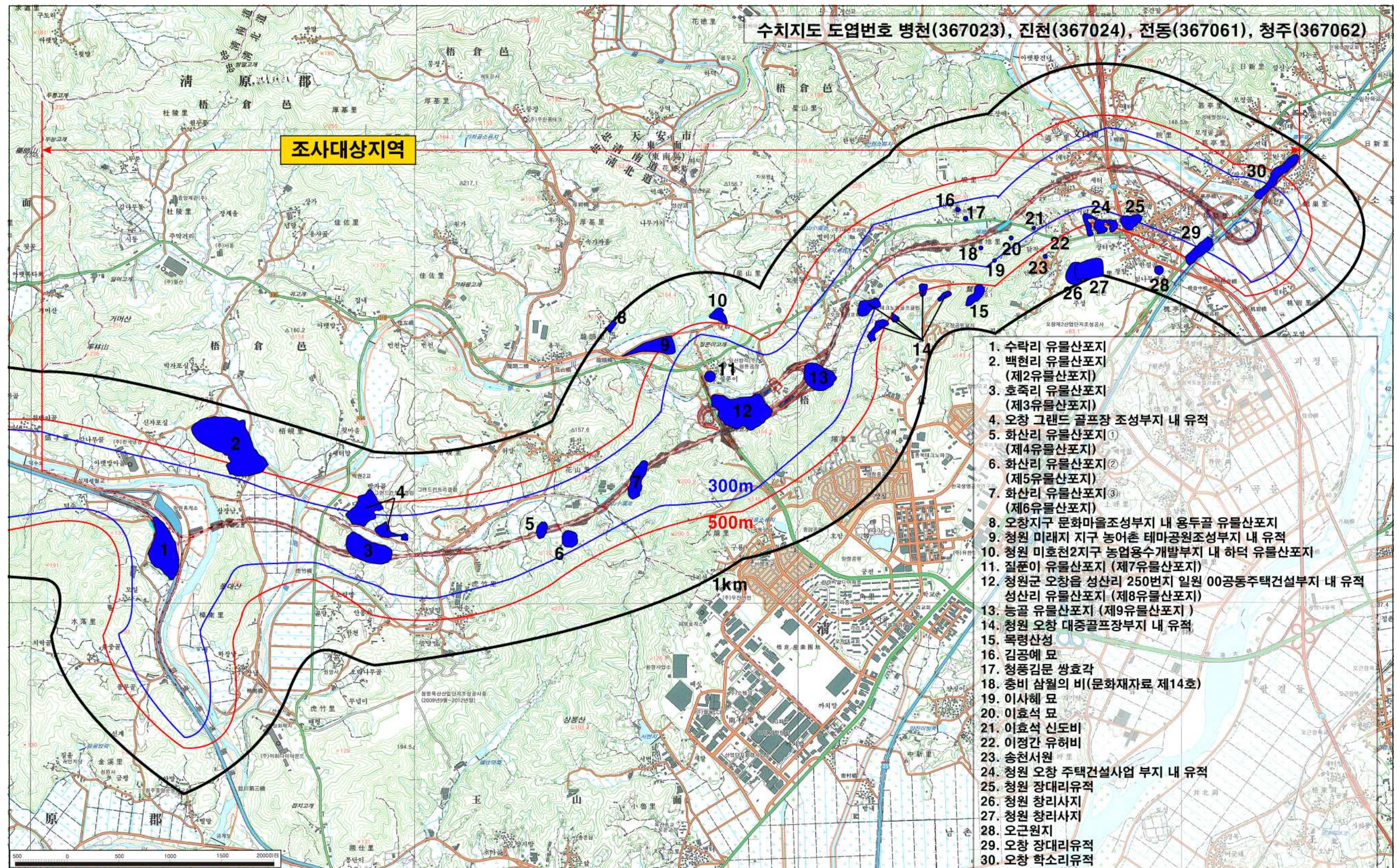
검목제가 잠시 부활한 적이 있었다. 이후 세조 때에는 감사검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제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1455) 군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익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익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익에 천안, 온양, 전의, 평택, 아산, 목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로서 청주는 청주권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청주, 청원 지역은 몇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33년(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 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 군의 하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제 하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져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면서 충청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서 빠져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거 부(府), 군(郡), 면(面)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나머지 면은 청원군이 되었다.



[지도 4] 조사대상지역 주변 유적분포도

Ⅲ. 조사내용

지표조사의 진행은 현지조사에 앞서 원활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전에 예비,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 조사된 문헌자료와 문화재 관련 각종 보고서 등을 수집, 검토하여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문화유적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단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물론 공사 진행시 훼손이 예상되는 주변지역까지 포괄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사하여 마무리하였다.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지역과 주변에 분포하는 문화재를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직·간접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을 참조하여 현황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화재 조사결과, 조사지역의 경계로 부터 500m 이내에 도 지정문화재인 충비 삼월의 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1995년 6월 30일 지정)가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시행 전 반드시 현상변경허가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충비 삼월의 비는 본 사업경계로부터 약 8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도로 개설공사는 능선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시 직·간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지역 500m 내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공사 시행시 직·간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나 주의를 요망한다. 조사대상지역에서 500m 이내에 자리한 유적은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00m 이내)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	충비 삼월의 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조선	기념물	약 80m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현상변경 신청대상)
2	이효석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7	조선	민묘	약 95m	
3	이효석 신도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53-1	조선	신도비	약 250m	
4	이사혜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 20-1	조선	민묘	약 250m	
5	김공예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민묘	약 390m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6	청풍김문 쌍효각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정려	약 200m	
7	청원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24, 327	선사 ~삼국	유물 산포지	약 490m	
8	오창 학소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학소리	청동기 ~조선	생활유적 무덤유적	STA 0+692. 4318	발굴조사 (충원문화재 연구원)
9	오창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청동기	생활유적	STA 0+395. 2272	
10	청원 오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81	조선	유물 산포지	약 460m	
11	오창 대중골프장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산90임 일원	시대 미상	민묘	약 130m	발굴조사 (충원문화재 연구원)
12	능골 유물산포지 (제9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6+600. 0000	
13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제8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5+800. 0000	
14	질푼이 유물산포지 (제7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120m	
15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제6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4+600. 0000	
16	화산리 유물산포지② (제5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30m	
17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제4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3+400. 0000	
18	호죽리 유물산포지 (제3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호죽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700. 0000	
19	오창 그랜드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백현리 일원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약 200m	
20	백현리 유물산포지 (제2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435m	
21	수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산2-1임 일원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5+870. 0643	



[사진 1] 충비 삼월지비 및 청풍김씨 묘역



[사진 2] 이효석 신도비



[사진 3] 청풍김문 쌍효각



[사진 4] 성인문



[사진 5] 이인석 묘



[지도 5]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출처:naver 위성)

2. 고고, 역사분야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은 행정 구역상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구간은 1,322,272m² (연장 12.1km)이다.

조사지역이 속한 청원군 옥산면과 오창읍은 청원군의 북단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천안시 병천면, 진천군 문백면과 각각 맞닿아 있고, 동으로는 청원군 북이면, 서로는 천안시 수신면에 접한다. 조사지역은 차령산맥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목령산(228m)을 비롯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며, 산지 중앙으로 흐르는 용두천과 병천천 일대의 충적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산물로 평야지에서는 양질미(특히 삼색미)가 유명하고, 구룡지의 완사면을 이용한 연초 고추재배와 낙농을 중심으로 가축사육을 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17번 국도에 의해 북으로는 진천군, 남으로는 청주와 연결되었으며, 국도인 진천~오창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지표조사는 현지조사에 앞서 1920년대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참조, 과거지형을 파악하고 현재 지형도와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지형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원군 5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53)> 등의 자료를 이용,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을 검토한 후 조사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지역에 해당되는 옥산면 수락리에서 오창읍 도암리까지의 구간의 지형은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지와 산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지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 508번 국도를 따라 대중골프장, 주택단지 등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하천변 낮은 구룡지대에 원삼국~조선시대의 생활유적들이 분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조사지역의 중점부에 해당하는 오창읍 학소리와 장대리의 경작지 일원에서는 508번국도 건설과정에서 오창 학소리·장대리유적54)이 발굴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이르는 문화상을 확인한 바 있기에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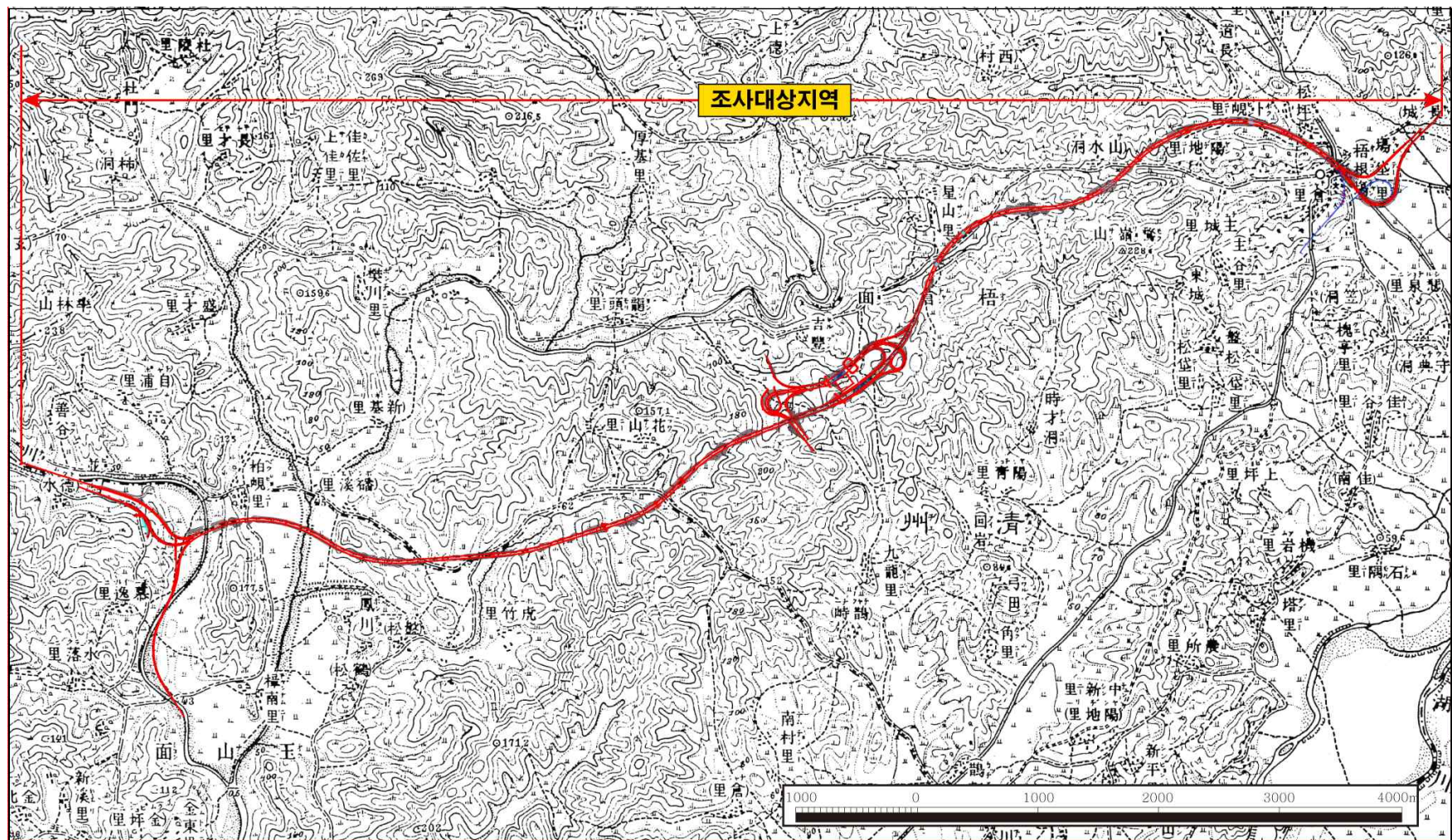
이러한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는 조사지역의 시점부(STA 0+000)에서 중점부(STA 12+100)에 이르기까지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능선 사면과 경작지에 대한 육안조사 및 지형분석 등을 통해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조사대상지역의 시점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원휴게소 뒤편 옥산면 장남리와 백현리가 만나는 병천천 주변의 경작지 일원이며, 여기에서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오창읍 복현리를 지나 508번국도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장대리 주변 경작지 일원까지 면적 1,322,272m²(연장 12.1km)이 이번 조사대상지역의 범위이다. 조사의 편의상 현지조사는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2) 淸州大學校博物館, 1999.『文化遺蹟分布地圖-淸原郡』.

53) <http://www.gis-heritag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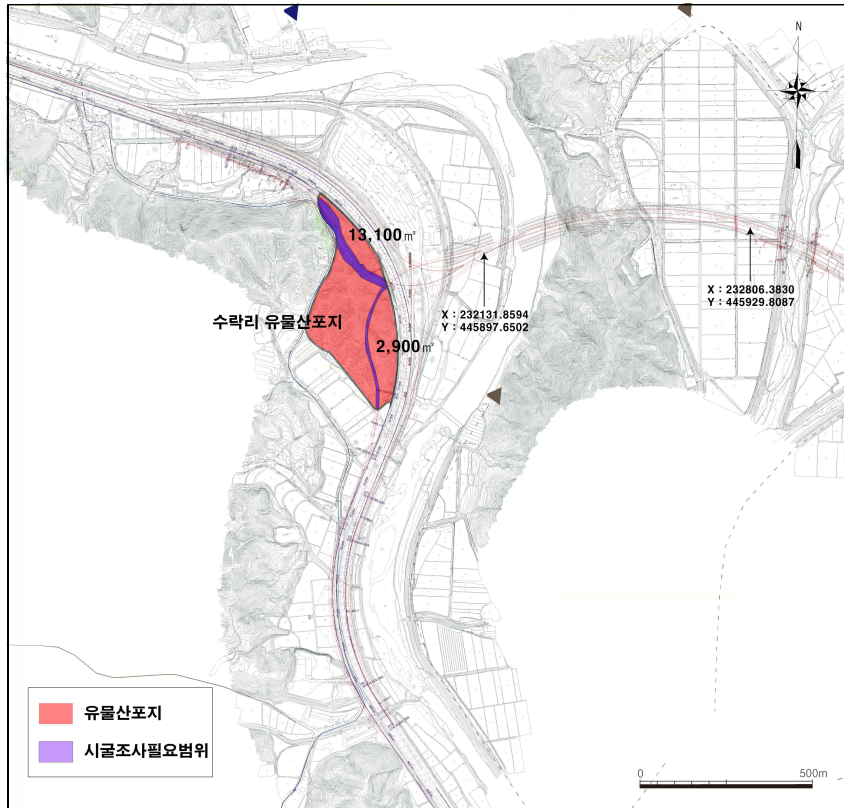
54) 中原文化財研究院, 2008,『梧倉 鶴巢里·場垵里遺蹟』.



[지도 6]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920년대)

1) 제1구간 (STA 0+000~1+100)

제1구간은 조사대상지역의 시점인 청원휴게소에서부터 병천천과 용두천을 지나 오산가좌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이며, 하천 주변 충적대지에 조성된 경작지와 일부 구릉지역을 포함한다.



[지도 7] 제1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내 다수의 분묘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물산포지 범위 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16,000m²)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공사 시 일어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의 면적과 성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1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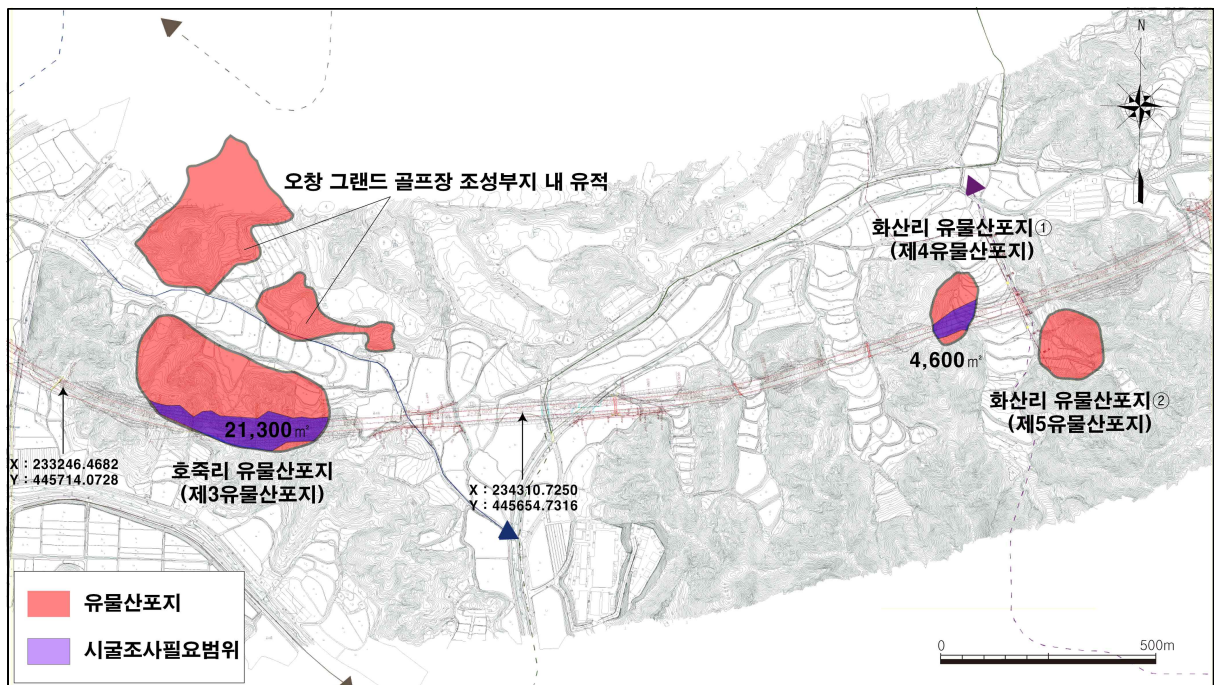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1구간	수락리 유물산포지 (106,936m²)	경부고속도로 청원휴게소 분기점 건설구간	조선시대 분묘유적	13,100m²
				2,900m²

55)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2) 제2구간 (STA 1+100~4+100)

제2구간은 호죽리와 화산리 일대의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대와 계곡부 및 하천 주변에 형성된 경작지로 구성된 지역이다. 1920년대에 작성된 지형도와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은 현재까지 큰 지형변화가 없었으며, 과거에도 구릉 사면과 계곡부, 하천 주변에 조성된 경작지를 기반으로 한 취락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 호죽리 유물산포지 인근에서 찾아진 오창 그랜드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⁵⁶⁾은 원삼국~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제기된 곳으로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에 실시된 기존의 지표조사⁵⁷⁾ 결과, 이 지역에서 총 3개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제3유물산포지는 이번 조사에서의 호죽리 유물산포지에 해당하며, 제4유물산포지는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제5유물산포지는 화산리 유물산포지②에 해당한다.



[지도 8] 제2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이번 조사에서도 호죽리 유물산포지에서 고려~조선시대의 토기편과 옹기편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 과거 생활유적의 유존 가능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화산리 유물산포지①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유물 및 유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유적이 입지하기 좋은 완만한 구릉 지형조건과, 기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사 시행 전 이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공사에서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유물산포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5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오창 그랜드골프장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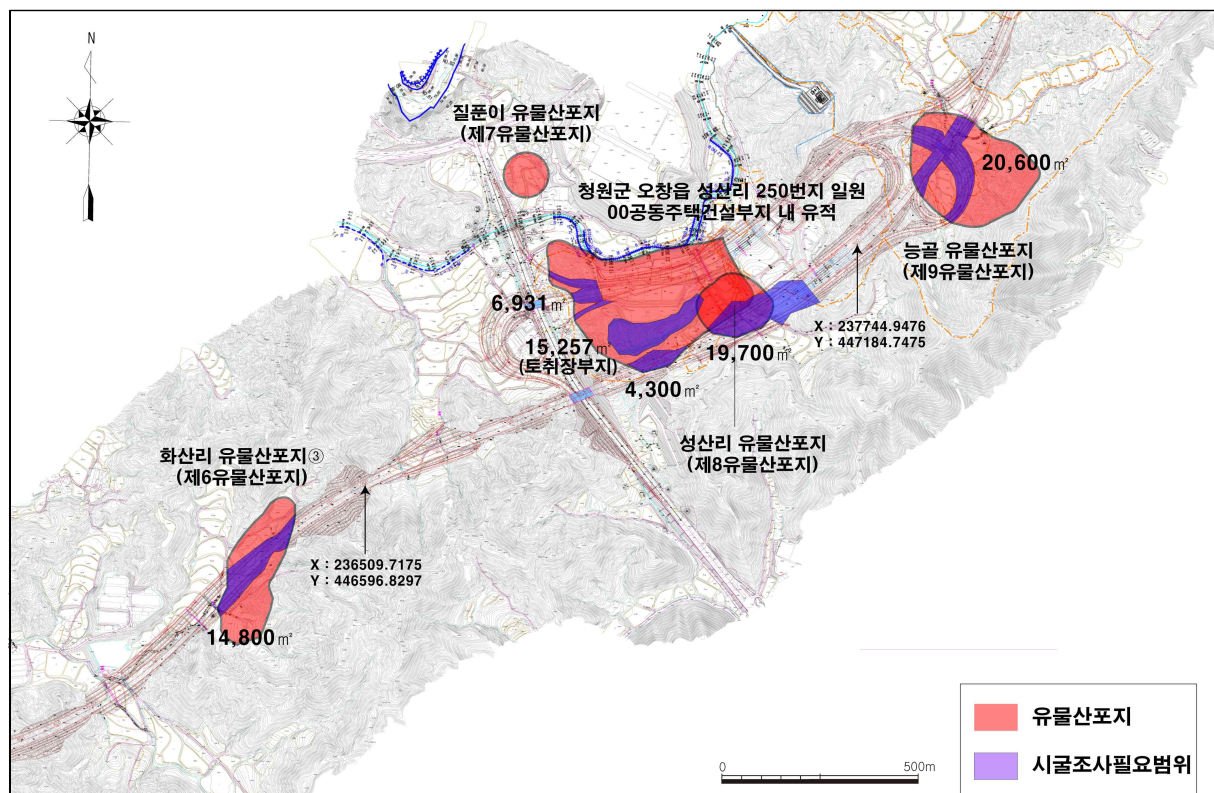
5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표 3] 2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2구간	호죽리 유물산포지 (85,129㎡)	STA 1+ 600~1+ 900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	21,300㎡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12,891㎡)	STA 3+ 400~3+ 500	조선시대 생활유적	4,600㎡

3) 제3구간 (STA 4+100~6+800)

제3구간은 대체로 구릉지형과 완만한 능선 사면부를 중심으로 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540번 국도와 510번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능선이 가파르고 높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 많다.



[지도 9] 제3구간 계획평면도 및 시굴조사필요범위

단, 화산소류지의 북동쪽 계곡부에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와 주변의 완만한 능선 사면부를 포함하는 화산리 유물산포지③에서는 고려~조선기의 토기편이 다수 확인된 바 있고⁵⁸⁾, 이번 조사에서도 지형분석결과 완만한 능선 사면부를 중심으로 한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 부지 내 유적⁵⁹⁾은 540번 국도 오른쪽에 위치한 넓은 구릉에 해당한다.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백자편과 토기편이 수습되어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번 현지조사 결과 이번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건설 등으로 인해 지형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매장유구의 잔존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지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일부 구간 및 토취장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잔존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성산리 유물산포지는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제8유물산포지⁶⁰⁾로 설정된 지역으로 STA 5+800지점 주변의 완만한 구릉 사면과 경작지를 포함하며 조선시대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번 조사결과 STA 6+100지점 주변의 서쪽으로 길게 뻗은 완만한 능선상에서 민묘로 추정되는 유구 2기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지형상 분묘유적이 입지하기 적합하여 이 주변에 분묘유적이 추가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표 4] 3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 산포지	위치	성 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3구간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39,540㎡)	STA 1+ 600~1+ 900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	14,800㎡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102,328㎡)	STA 3+ 400~3+ 500	조선시대 생활유적	6,931㎡
				4,300㎡
				15,257㎡ (토취장부지)
	성산리 유물산포지 (22,410㎡)	STA 5+ 800~6+ 200	조선시대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	19,700㎡
	능골 유물산포지 (60,642㎡)	STA 6+ 500~6+ 700 분기점	조선시대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	20,600㎡

능골 유물산포지 역시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찾아진 유물산포지(제9유물산포지)로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지역에서 백자편을 비롯

58) 중앙문화재연구원, 『앞 책』.

5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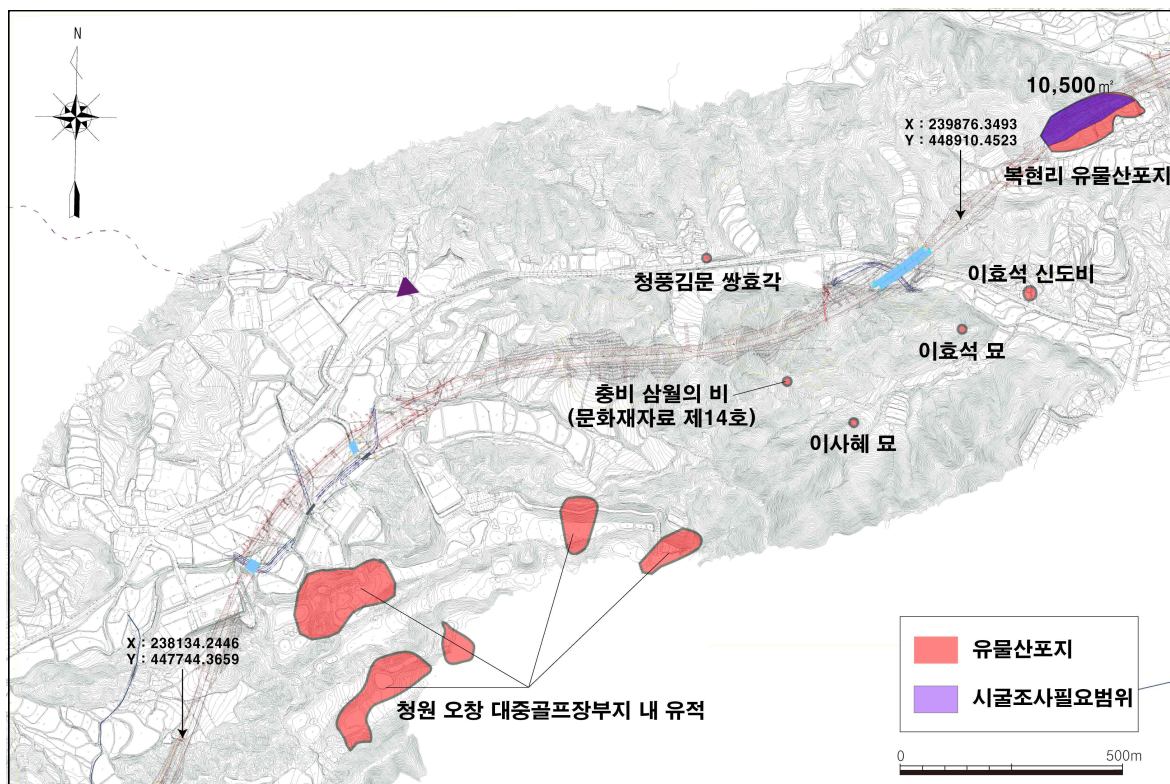
60) 중앙문화재연구원, 『앞 책』.

한 조선시대 생활 관련 유물들을 확인하였고, 인근의 청풍김씨 묘역이 조성된 능선 하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백자편 및 토기편이 수습되어 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현재에도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조선에서 근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하여 공사 시 있을지 모르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그 성격은 위의 [표 4]에 정리하였다.

4) 제4구간 (STA 6+800~9+900)

제4구간은 목령산(129m)의 북쪽 사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형이 가파르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환경적 요소로 인해 생활과 관련한 유적은 입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현지 조사에서도 구간 내에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능선 반대편의 남쪽 사면부에는 청풍 김씨와 전의 이씨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 이번 조사대상지역 내에는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접한 청풍김씨 묘역 내 위치한 ‘충비 삼월의 비(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가 공사구간으로부터 약 80m 이격되어 있어 공사시행 전 반드시 현상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 공사 구간의 반대편 능선 사면부에 입지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도 10] 제4구간 계획평면도 및 추가조사필요범위

이번 조사 결과, 복현리 북고개 일원은 완만한 사면이 남향으로 뻗어 있는 지형으로 이곳에서 다수의 토기편 및 백자편이 수습되어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인근의 청원 오창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유적⁶¹⁾에서는 원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어 이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과거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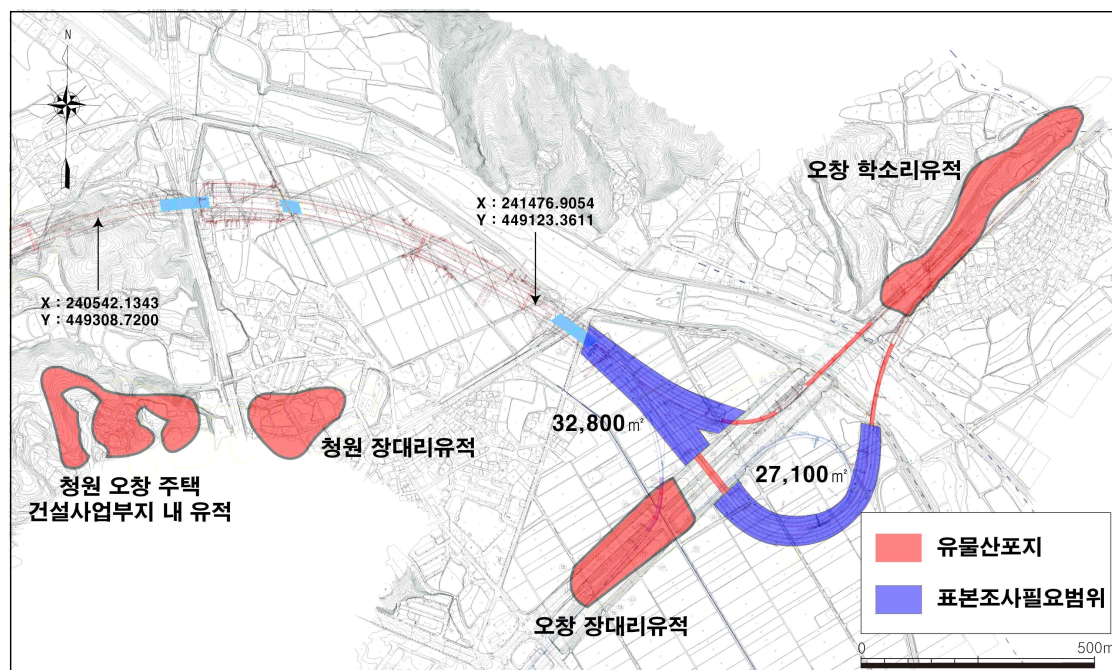
4구간 내에서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 5] 4구간 내 시굴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격	시굴조사 대상면적
4구간	복현리 유물산포지 (10,560m ²)	STA 9+600~9+800	고려~조선시대 생활 및 분묘유적	10,500m ²

5) 제5구간 (STA 9+900~중점부)

제5구간은 대부분의 지형이 미호천 주변의 충적대지에 조성된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경지정리가 되어 지형변경이 이루어졌고, 논 경작지의 특성상 지표조사 단계에서 유물이나 유구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지도 11] 제5구간 계획평면도 및 추가조사필요범위

6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청원 oo주택건설사업지구(오창 장대리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단, 중점부에는 508번 국도 건설공사 시·발굴조사된 오창 학소리유적과 장대리유적⁶²⁾이 매우 인접하여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청동기시대 생산 및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오창 장대리유적의 경우 지형조건이 조사지역과 동일하고, 당시 취락의 구성 예로 볼 때, 미호천 주변 충적대지에 입지한 청동기시대 취락 또는 생산유적의 잔존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공사 시행 전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사 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5구간에서 표본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표 6] 5구간 내 표본조사 필요 범위 및 성격

구간	유물산포지	위치	성격	표본조사 대상면적
5구간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59,900m ²)	STA 11+200~종점	청동기시대 생활 및 생산유적	32,800m ²
				27,100m ²

3. 자연마을 및 주요지명 조사

1) 옥산면(玉山面)

충청북도 청원군의 서쪽에 위치한 면이다. 면 소재지는 오산리이다. 면의 서부와 동부 지역에 산지가 발달하고 두 산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앙을 천수천(天水川)이 심한 곡류를 하면서 남류하여 미호천에 합류한다. 합류 지역 일대에 넓은 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현재 오산·덕촌·신촌 등의 15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 시대 청주목 서강외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옥산은 면 소재지인 오산리의 중심 마을인 '오미'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즉 지명에서 '오미'는 흔히 '옥산'이나 '오산(烏山)'으로 표기된다. 이때 '玉'이나 '烏'는 '오'에 대한 음차표기이고, '산'은 '미'에 대한 훈차 표기이다. 이곳에서 면 이름은 옥산면으로 표기되었고, 법정 마을 이름은 오산리로 표기하고 있다.

『해동지도』에 서강외이면은 서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록서원(白鹿書院)과 동림사(桐林寺)가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의 서강외이면에는 신원창(薪院倉)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의 서강외이면에는 소탄(所灘)이 표기되어 있고, 수신면 남쪽에는 금성창(金城倉)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에 의하면 서강외이면은 송산·신촌·어정·금성창 등의 18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구한국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1912년경 서강외이상면은 신촌·점촌·옹봉촌 등의 35개 마을을 관할하였고, 서강외이하면은 청룡·모산·정척동 등의 30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1914년 옥산면으로 통합

62) 中原文化財研究院, 『앞 책』.

- 개칭되었으며 1949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어 오늘에 이른다.

(1) 수락리(水落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모일리(票速里)·수락리(水落里)를 병합하여, 수락리(水落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무중골 : 수락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 뒤[서쪽]에는 ‘차돌배기’란 산이 있는 데, 장마가 지면 이곳에 목포수를 형성한다.
- 모일 : ‘무중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분무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골짜기에 과거 풀뭇간[대장간]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분무골’은 지역에 따라서는 ‘야동(治洞)’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 치락골 : ‘무중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가는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곡수고개(曲水) : ‘유태골’ 남쪽에 있는 고개로, ‘유태골’에서 ‘곡수’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곡수’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농바골 : ‘무중골’ 뒤[서쪽] ‘채배기’와 ‘망덕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농바위 : ‘무중골’ 뒤[서쪽] ‘긋별배기’와 ‘망덕산’ 사이에 있는 바위.
- 달지 : ‘모일’ 앞[남동쪽]에 있는 논이다. ‘구레고개’ 너머에 있다.
- 당고개 : ‘분무골’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분무골’에서 금계리로 갈 때 넘었다. 서낭당이 있어 ‘당고개’로 부른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 덕수고개(德水-) : ‘모일’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모일에서 사정2리 ‘덕수’로 갈 때 넘었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마을 이름 ‘덕수’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망덕산 : ‘무중골’ 뒤[서쪽]에 있는 해발 2715m의 산으로, 예전에 ‘망덕새가 있었다고 전하나 그터를 알 수가 없다.
- 매봉재 : ‘무중골’ 동쪽 ‘삼배기’ 건너에 있는 산이다.
- 모열고개 : ‘무중골’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무중골’에서 ‘모일’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모일’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바깥샘 : ‘무중골’ 동쪽에 있는 샘이다. ‘바깥’과 ‘샘’으로 나뉘며 ‘마을 바깥쪽에 있는 샘’으로 풀이된다.
- 부승골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 사라골(沙羅-) : ‘무중골’ 뒤[서쪽] ‘차돌배기’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잠장골 : ‘모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일’에서 사정2리 ‘덕수’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 안산(案山) : ‘무중골’ 남쪽에 있는 산이다.

- 안샘 : ‘무중골’ 서쪽에 있는 샘으로,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양달말샘(陽-) : ‘무중골’의 ‘양달말’에 있던 바가지샘이다. 가정마다 샘을 파면서 없어졌다. 마을 이름 ‘양달말’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엄나무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여미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수락휴게소’ 옆에 있던 들이나, 현재는 ‘수락휴게소’가 사라졌다. 경부고속국도 상행선 ‘청원휴게소’ 아래에 있다.
- 여미등범 : ‘모일’ 북동쪽 ‘여미’에 있는 웅덩이이다. 지금도 이 물로 농사를 짓는다. 들이름 ‘여미’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오앗가마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주막이 있던 곳으로, ‘청원휴게소’ 밑이다.
- 전자리 : ‘분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계리로 가는 곳이다. 현재 청주곽씨(淸州郭氏) 재실이 있다.
- 철텃골 : ‘무중골’ 남쪽, ‘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름재 : ‘모일’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 지매가 : ‘무중골’ 동쪽, 경부고속국도 너머에 있는 들이다.
- 치돌배가 : ‘무중골’ 뒤[서쪽]에 있는 산이다.
- 천비논(千陣-) : ‘무중골’ 앞[남쪽]에 있는 들로, 수렁이 많다.

(2) 장남리(樟南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장남리(樟南里)와 북강외이면(北江外二面) 백현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남리(樟南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원장남(元揮南)/아랫장남(揮南)/하장남(下揮南) : 장남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장남’은 ‘장남리의 원 마을’을 뜻한다. 달리 아래에 있어 ‘아랫장남’ 또는 ‘하장남(下障南)’으로도 불린다.
- 넘은들 : ‘원장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윗장남/상장남(上揮南) : 장남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윗장남’이나 ‘상장남’은 ‘장남리 중 위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 잣고개/백현(1) : ‘윗장남’ 북쪽, ‘잣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잣고개’란 고개이름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구메방골 : ‘원장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인돌 모양의 큰 돌이 있다.
- 넘은들샘 : ‘넘은들’ 서쪽에 있던 샘이다.
- 돌간집 : ‘원장남’ 북쪽에 있던 집이다. 일제 때 이곳 산에서 돌을 채취하여 ‘용두천’ 제방을 쌓았다. 따라서 그때 돌을 캐기 위해 있던 집이다.
- 뒷내 : ‘장내미’ 뒤[서쪽]에 흐르는 내로, ‘병천천’을 말한다.

- 모룽고지 : ‘원장남’ 남쪽, 산기슭에 있는 모퉁이이다.
- 물레방아거리 : ‘원장남’ 북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에는 예전에 물레방아와 주막이 있었다.
- 배나라 : ‘원장남’ 동쪽, ‘용두천’ 제방 가에 있는 들이다.
- 보꼬질 : ‘원장남’ 북서쪽, ‘병천천’ 가에 있는 들이다. 봇물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곳이다.
- 부엉이골 : ‘원장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엉이’와 ‘골’로 나뉘며, ‘부엉이가 사는 골짜기’로 풀이된다.
- 북통 : ‘원장남’ 뒤[북쪽]에 있는 산이다. 동그란 모양이 마치 북처럼 생겼다.
- 서낭당고개 : ‘원장남’ 북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원장남’에서 ‘보꼬질’이나 ‘구메방골’에 갈 때 넘었다. 참나무 고목 2그루가 있는 서낭당이었으나, 현재는 1그루만 남아 있다.
- 수안들 : ‘원장남’ 서쪽에 있는 들로, 잡초가 우거진 벌 안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
- 암내 : ‘장내미’ 앞[동쪽]에 흐르는 내로, ‘용두천’을 말한다.
- 여기서 : ‘원장남’ 남쪽에 있는 못이다. ‘병천천’과 ‘용두천’이 합수하는 지점으로, ‘병천천’ 물이 돌아가는 모퉁이라서 물살이 세고 깊었다. 현재 이 못은 경부고속국도가 개설되는 바람에 많이 메워졌다.
- 용두천(龍頭川) :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발원하고 남류하여 오창면을 지나 옥산면 장남리에 서 ‘병천천’과 합쳐진 후 ‘미호천’ 본류에 합류한다. ‘용두천’은 이 천이 오창면 ‘용두리(龍頭里)’를 거쳐 흐르기에 붙은 이름이다.
- 은골 : ‘원장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원장남’과 경계를 이룬다.
- 잣고개/백현(2) : ‘잣고개’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잣고개’에서 충남 천안시 병천면으로 갈 때 넘었는데,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 장남고개(韓南-) : ‘원장남’ 북서쪽, ‘서낭당고개’ 너머에 있는 고개이다. ‘원장남’에서 ‘보꼬질’이나 ‘구메방골’에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장남리’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장내미들 : ‘장내미’ 앞[남쪽]에 있는 들이다.

(3) 호죽리 (虎竹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반송리(盤松里)·봉천리(鳳川里)·학송리와 북강외이면(北江外二面) 화산리(華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호죽리(虎竹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해평(1) : 호죽리는 오창읍 화산리(花山里)와 인접한 마을이다 따라서 화산리를 ‘윗범대’로, 호죽리를 ‘아랫범대’로 불러 왔다. 특히 ‘호죽리(虎竹里)’는 ‘아랫범대’의 ‘범대’에 대한 훈차표기이다. ‘범대’는 옛날 이곳에 범과 대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 전한다.
- 오리나뭇골 : ‘무네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오리나뭇골’은 옛날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

다. 지금은 수종(樹種) 개량으로 오리나무는 많지 않다.

- 갯골 : ‘오리나뭇골’ 북쪽, ‘전낭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 한천동 : ‘갯골’ 북쪽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한천동’은 찬 물이 나는 샘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찬 샘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샘은 차면서도 수량이 풍부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다.
- 골말 : ‘한천동’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도람말 : ‘골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바닷들/해평(2) : ‘해평’ 서쪽에 있는 큰 들이다. 바다같이 커서 ‘바다와 같은 들’이라는 뜻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 변답 : ‘도람말’ 북쪽에 있는 들로, 호죽리와 오창읍의 경계에 해당한다.
- 색시골 : ‘해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색시가 위에서 굴러오는 돌에 깔려 죽었다 전한다.
- 서낭당 : ‘한천동’ 동쪽에 있는 고개로, ‘한천동’에서 ‘안봉리’로 갈 때 넘었다. 과거 서낭당이 있었는데, 지금도 참나무가 남아 있다.
- 아야골 : ‘해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원양산 : ‘해평’ 남쪽에 있는 산이다. 금계리와 경계를 이룬다.
- 임수골 : ‘도람말’ 앞[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철텃골 : ‘오리나무골’ 옆[동쪽] ‘안봉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한당골 : ‘해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봉리(雅峰里) : ‘안봉산(雅峰山)’ 서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 음짓말(陰地-) : ‘안봉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짓말’은 음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양짓말(陽地-) : ‘음짓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짓말’은 양지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강촌(姜村) : ‘양짓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통변(補邊) : ‘양짓말’ 옆[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가장골 : ‘안봉리’ 앞[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까치말고개 : ‘강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강촌에서 오창읍 각2리 ‘까치말’로 갈 때 넘었다.
- 다락골 : ‘강촌’ 북쪽, 산 너머에 있던 마을이다. 과거 절이 있던 곳이나, 현재는 절도 마을도 사라졌다.
- 당마루 : ‘강촌’ 북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절이 있었다.
- 백단이 : ‘강촌’ 북쪽, ‘당마루’ 밑에 있는 들이다. 논에 모를 심으면 물이 부족해서 풀과 벼가 자라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논바닥이 하얗게 보인다고 전한다.
- 사주봉 : ‘강촌’ 뒤[동쪽]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호죽리에서는 가장 높아 정상에 올라보면 사방이 다 잘 보인다.
- 서변고개 : ‘강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강촌에서 소로리 ‘서변’으로 갈 때 넘었다.
- 원다랭이 : ‘강촌’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봉산(雅鳳山) : ‘안봉리’ 동쪽에 있는 산이다. 밑에 ‘호죽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교는 폐교가 되었다. ‘안봉산’은 산 모양이 날아가는 기러기를 닮아 붙은 이름이다.

- 정주골 : ‘강촌’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 사금을 채취하던 곳으로, 서낭당이 있었다.
- 한천동고개 : ‘안봉리’ 서쪽에 있는 고개로 ‘안봉리’에서 ‘한천동’으로 갈 때 넘었다.

2) 오창읍(梧倉邑)

충청북도 청원군의 북부에 위치한 읍이다. 읍소재지는 장대리이다. 불당산(佛堂山)·취령산(鷲嶺山)·국사봉(國仕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경계로 서쪽에는 산지가 발달해 있고 동쪽에는 오창평야가 펼쳐진다. 동쪽 사면에는 미호천의 지류인 용두천이 흐르고 있어 평야를 형성한다. 동쪽에는 북쪽 진천에서 남류하는 미호천이 평야의 중심을 흐른다. 현재 여천·화산·유리 등의 34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목의 북강외일면과 북강외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작천(까치내) 즉 북강의 바깥에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청주)에 “오근원이 오근부곡 옛터에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오근창은 1669년(현종 10) 청주목사가 미호천 유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 옛 오근원 터에 새로 지은 창고이다. ‘오창면’ 지명은 ‘오근창’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근창은 전설에 의해 ‘오공창(蜈蚣倉)’으로도 불렸고, 청주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창’으로도 불렸다.

『여지도서』(청주)에는 북강외일면과 북강외이면 사이에 북창과 기암서원(機岩書院)이 표기되어 있고, 북강외일면의 남쪽에는 오근진(梧根津)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의 북강외일면과 북강외이면 사이에 북창이 표기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의 북강외일면에는 환희산과 작천(鵲川)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에 의하면, 북강외일면은 진천·화산·박지산·연방리 등의 33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1909년 북강외일면은 북강외일상면과 북강외일하면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오창면으로 통합·개칭되었다. 1949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었고, 2007년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1) 화산리(花山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북강외일상면(北江外一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화산리(華山里) 일부를 가지고 화산리(花山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윗말 : 화산리는 옥산면 호죽리와 인접한 마을이다. 예전부터 화산리와 호죽리를 합하여 ‘범대’로, 그 중 화산리는 ‘윗범대’로, 호죽리는 ‘아랫범대’로 불려왔다.
- 아랫말 : 윗범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가장골 : ‘윗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 ‘마을회관’ 뒤가 이에 해당한다.
- 갈미봉 : ‘윗말’ 동쪽에 있는 산으로, 구룡리와 경계를 이룬다.
- 갈미봉골 : ‘윗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미봉’ 밑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다낙골 : ‘윗말’ 남쪽에 있는 들이다.
- 뱃골 : ‘윗말’ 남쪽, ‘다낙골’ 옆에 있는 들이다.

- 바위배기 : ‘윗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 빗골저수지(財水池) : ‘윗말’ 남동쪽 ‘빗골’ 위에 있는 방죽이다. 골짜기 이름 ‘빗골’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삼성봉 : ‘윗말’ 남쪽에 있는 산이다. 부모님 산소에 세 번씩 성묘했다거나, 세 정승이 날 좋은 자리가 있다거나, 골이 셋이 있다거나, 삼태성이 비쳤다가, 세 성(姓)이 살았다거나 하는 유래담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당’이란 지명이 있음을 볼 때 ‘삼성’은 ‘삼성당이 있던 곳’으로 풀이된다.
- 삼성이 : ‘윗말’ 남쪽, ‘삼성봉’에 있는 들이다.
- 생жат골 : ‘윗말’ 남동쪽, ‘빗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산리 ‘질퐁이’로 가는 길목이다.
- 서낭고개 : ‘윗말’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과거 청주로 갈 때 넘던 고개로, 서낭당이 있었다.
- 서번고개 : ‘윗말’ 남동쪽에 있는 고개로, 화산리에서 옥산면 소로리 ‘서번’으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서번’으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산신바위(山神) : ‘윗말’ 동쪽, ‘바위배기’에 있는 바위이다. 이곳에서 정월 대보름날 산선제를 지낸다.
- 안골 : ‘윗말’ 안쪽[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옷골 : ‘윗말’ 서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현재 ‘(주)청주컨트리클럽’ 부지로 편입되었다.
- 장골 : ‘윗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골저수지 : ‘윗말’ 서쪽 ‘장골’에 있는 방죽이다. 골짜기 이름 ‘장골’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중구봉(重力峰) : ‘윗말’ 뒤[북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157m이다. 아홉 봉우리로 되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청룡산(靑龍山) : ‘윗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 핫들 : ‘윗말’ 아래[남쪽]에 있는 들이다. ‘하’와 ‘들’이 사이시옷을 매개로 연결된 어형으로, ‘아래쪽에 있는 들’로 풀이된다.

(2) 성산리(星山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북강외이면(北江外二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성산리(星山里)만으로 성산리(星山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빌미기/별미기/별미/성산(星山) : 성산리의 중심 마을로, 오창 천안 도로의 북쪽 골짜기에 있다
- 능골 : ‘빌미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능골’은 능을 쓸 만한 명당 터가 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 마을은 주로 청풍김씨(淸風金氏)가 세거하는 집성촌인데, 실제로 청풍김씨의 오래된 묘도 여럿이 있다.
- 질퐁이/질퐁 : ‘빌미기’ 남서쪽, ‘질퐁이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질퐁이’나 ‘질퐁이’는 향아리처럼 우명하기에 붙은 이름이다. 마을 앞들에 약수물당이 있는데,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전한다.
- 김정산(-山) : ‘질퐁이’ 남서쪽에 있는 해발 155m의 산이다.

- 누에봉(-峰) : ‘벌미기’ 뒤[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 두명골 : ‘질푼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 긴 벼랑이 있어 ‘벌미기’란 마을 이름이 붙었다. 지형이 아늑하여, 예전에 군사들이 숨던 곳이라 전한다. 현재 ‘청주농고목장’이 들어 있다.
- 둔터 : ‘벌미기’ 남쪽 도로 가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군사들이 머물던 곳이라 전한다.
- 마검터(廳劍-) : ‘질푼이’ 동쪽 ‘두명골’과 붙어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군사들이 ‘칼을 갈던 터’이라 전한다.
- 배태재 : ‘질푼이’ 남쪽에 있는 고개로 ‘질푼이’에서 용두리로 갈 때 넘었다.
- 번개들 : ‘벌미기’ 동쪽, ‘쇠비장골’ 아래에 있는 들이다.
- 벌미기방죽 : ‘벌미기’ 동쪽에 있는 작은 저수지이다. 마을 이름 ‘벌미기’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삼태고개 : ‘질푼이’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질푼이’에서 용두리 ‘삼터1’로 갈 때 넘던 고개로, ‘삼테’를 거쳐 화산리·구룡리·용두리 등으로 갈 수 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편입되어 포장도로가 되었다. 마을 이름 ‘삼테’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새жат골 : ‘벌미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жат골고개 : ‘벌미기’ 북쪽에 있는 고개로, ‘벌미기’에서 ‘새жат골’로 갈 때 넘었다. 골짜기 이름 ‘새жат골’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쇠비장골 : ‘벌미기’ 동쪽 목령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아가골 : ‘벌미기’ 남쪽, ‘능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
- 안산(案山) : ‘벌미기’ 남쪽에 있는 산이다.
- 안산고개(案山) : ‘벌미기’ 남쪽, ‘안산’에 있는 고개이다.
- 어맹이 : ‘질푼이’ 남서쪽, ‘검정산’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용두리와 경계를 이룬다.
- 윗샘 : ‘웃벌미기’에 있는 샘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에 고사를 지냈다.
- 증산(簡山) : ‘벌미기’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능골’ 물과 ‘벌미기’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 질푼이고개 : ‘벌미기’ 남쪽에 있는 고개로, ‘벌미기’에서 ‘질푼이’로 갈 때 넘었다. 현재 2차선포장 도로가 되었다.
- 질푼이들 : ‘질푼이’ 앞[남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이름 ‘질푼이’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질푼이물당 : ‘질푼이들’ 가운데에 있는 약물터이다. 위장병에 좋다고 한다. 들 이름 ‘질푼이들’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칠성봉(七星峰) : ‘능골’ 뒤[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전언에 의하면, ‘칠성봉’은 일곱 봉우리로 되어 있어 붙은 이름이라 한다. 그러나 과거에 ‘칠성당(七星堂)’이 있어 붙은 이름이 아닌 가 추정한다. ‘칠성당’은 칠원성군(七元星君)을 주선으로 모신 당집을 뜻한다. 칠원성군은 북두의 일곱성군, 즉 탐랑성·거문성·녹존성·문곡성·염정성·무곡성·파군성의 일곱 선을 말한다.
- 호골[虎谷] : ‘벌미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골’은 ‘호랑이골’과 같은 뜻으로, ‘호랑이가 살던 골짜기’를 뜻한다.
- 호골고개 : ‘벌미기’ 서쪽에 있는 고개로, ‘벌미기’에서 ‘호골’로 갈 때 넘었다. 골짜기 이름 ‘호골’

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안동네 : 성산2리는 ‘빌미기’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덕대’로 불린다. ‘
- 나뭇갯재 : ‘안동네’ 남쪽에 있는 마을로, 생성 역사가 100년을 넘지 않는다.
- 마룻들 : ‘안동네’ 남동쪽에 있는 큰 들이다.
- 먹뱅이고개 : ‘나뭇갯재’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용두리 ‘먹뱅이’로 갈 때 넘던 고개로, 나무꾼들이 주로 이용했다. 들 이름 ‘먹뱅이’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사가장골 : ‘안동네’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쇠자국 : ‘안동네’ 북동쪽 ‘사가장골’ 밑에 있는 들이다. 마치 소 발자국과 같은 모양이다.
- 장고개 : ‘안동네’ 동쪽에 있는 고개로 ‘안동네’에서 오창장으로 갈 때 넘었다.
- 지만들 : ‘안동네’ 앞[동쪽]에 있는 들이다.
- 질고개 ; ‘안동네’ 남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3) 복현리(卜峴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북강외일하면(北江外一下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작성동(驛城洞)·서촌(西村)·송평리·복현촌(卜峴村) 일부를 병합하여 복현리(卜峴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북고개(1)/원동네(元-) : 복현리 중앙, 고갯마루에 형성된 마을이다. ‘북고개’ 북쪽에는 ‘새터’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과거 하천부지였다. 따라서 ‘북고개’ 사람들은 북쪽 고개 너머도랑[현재 ‘새터’ 마을 터]으로 빨래를 하러 오곤 했는데, 이 고개가 도랑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으로 ‘보고개’로 불렸고, 이것이 변하여 ‘북고개’가 되었다.
- 분터골 : ‘북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분터’는 ‘분토(初土)’의 모음 변동 어형으로, ‘쌀을 옮을 때에 섞는 희고 고운 흙’을 말한다. 이 ‘분토가 나는 골짜기’가 ‘분토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분터골’이 된 것이다.
- 새터/신촌(新村) : ‘북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는 새로운 터에 조성된 마을이기에 붙은 이름이다. 이 마을은 과거 서쪽 ‘한고개’ 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 토사가 쌓이던 하천 부지였다. 그러나 ‘북고개’ 마을 터가 협소하여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조성되었다.
- 독서골(讀書-)/서당골(書堂-) : ‘새터’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서골도랑(讀書-) : ‘새터’ 남쪽에 있는 도랑이다. ‘독서골’에서 흘러 내려 붙은 이름이다.
- 독서골상봉(讀書-上峰) : ‘새터’ 북서쪽, ‘독서골’ 뒤에 있는 산이다. 골짜기 이름 ‘독서골’로 인해 붙은 이름이다.
- 북고개(2) : ‘새터’ 남쪽에 있는 고개로 ‘새터’에서 ‘북고개(1)’로 갈 때 넘었다.
- 서낭맹이 : ‘새터’ 서쪽 ‘서낭당고개’ 너머에 있는 들이다.
- 철텃골/초서골(草塵) : ‘새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거 이 골짜기에는 초서가 있었다.

- 한고개/한현(閑峴) : ‘북고개’ 서쪽, ‘한고개’라는 고갯마루에 형성된 마을이다.
- 각골 : ‘한고개(1)’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다.
- 각골장등 : ‘한고개(1)’ 서쪽, ‘각골’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 구례 : ‘한고개(1)’ 앞, ‘양짓말’과 ‘음짓말’ 사이에 있는 들이다.
- 구례넝골 : ‘한고개(1)’ 동쪽, ‘양짓말’ 너머에 있는 들이다.
- 닥박골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당고개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
- 연암산(鰲岩山)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산이다. ‘연암’ 즉 ‘제비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지야집골 : ‘한고개(1)’ 서쪽, ‘각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기와집이 있었다 한다. ‘지야집’은 ‘기와집’의 방언형이다.
- 평전(平田) : ‘한고개(1)’ 남쪽에 있는 밭이다. ‘평’과 ‘전’으로 나뉘며, ‘평평한 밭’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밭은 모양이 평평하다.
- 한고개소류지(小潤池) : ‘한고개(1)’의 ‘양짓말’ 앞[남쪽]에 있는 방죽이다. ‘한고개(1)’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한고개(2)/서낭당고개 : ‘한고개(1)’ 동쪽에 있는 고개로, ‘새터’로 갈 때 넘었다. ‘한’과 ‘고개’로 나뉜다. ‘한’은 ‘하다[처]’의 관형사형이니, ‘한고개’는 ‘큰 고개’로 풀이된다. 마을이름 ‘한고개’는 이 고개로 인해 붙은 것이다. 과거 서낭당이 있어 ‘서낭당고개’로도 불린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4) 장대리(場垈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북강외일하면(北江外一下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송계리(松溪里)·부곡동(富谷洞)·상조양(上朝陽)·장대리(場垈里)·송평리(松坪里)·북현촌(卜峴村) 일부를 병합하여 장대리(場垈里)라 명명하고 오창면(梧倉面)에 편입하였다. 오창면(梧倉面)은 2007년 1월 1일에 오창읍(梧倉邑)으로 승격하였다.

- 장터(場-) / 장대(場垈) : 장대리의 중심 마을로, 오창장이 서는 곳이므로 붙은 이름이다.
- 소년골 : ‘장터’ 남동쪽에 있는 들이다.
- 시장통(市場通) : ‘장터’ 중앙에 있는 장터이다. 지금도 예전처럼 5일장이 선다.
- 양지편(陽地便) : ‘장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산지촌(山地村) : ‘양지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셋골 : ‘산지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셋골고개 : ‘산지촌’ 동쪽에 있는 고개로, ‘산지촌’에서 ‘셋골’로 갈 때 넘었다.
- 암산(岩山) : ‘산지촌’ 앞[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어, 일제 때 바위를 깨던 곳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바위산’으로도 나타난다.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보존대책(현황)

○ 역사, 고고(古考) 분야

[표 7] 조사 현황

총면적	사업시행 면적	입회조사 면적	발굴조사 면적			보존면적	
			시굴	표본	정밀	일부	이전
1,322,272㎡	1,128,384㎡	-	133,988㎡	59,900㎡	-	-	-

[표 8]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00m 이내)

연번	유적명	위치	시대	유적성격	이격거리(m)	비고
1	충비 삼월의 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조선	기념물	약 80m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현상변경 신청대상)
2	이효석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7	조선	민묘	약 95m	
3	이효석 신도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53-1	조선	신도비	약 250m	
4	이사혜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20-1	조선	민묘	약 250m	
5	김공예 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민묘	약 390m	
6	청풍김문 쌍효각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1	조선	정려	약 200m	
7	청원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324, 327	선사~삼국	유물산포지	약 490m	
8	오창 학소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학소리	청동기~조선	생활유적 무덤유적	STA 0+692.4318	발굴조사 (충원문화재연구원)
9	오창 장대리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청동기	생활유적	STA 0+395.2272	
10	청원 오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81	조선	유물산포지	약 460m	
11	오창 대중골프장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산90임 일원	시대미상	민묘	약 130m	발굴조사 (충원문화재연구원)
12	능골 유물산포지 (제9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미상	유물산포지	STA 6+600.0000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3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00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제8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5+800. 0000	
14	질폰이 유물산포지 (제7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120m	
15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제6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4+600. 0000	
16	화산리 유물산포지② (제5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30m	
17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제4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3+400. 0000	
18	호죽리 유물산포지 (제3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호죽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700. 0000	
19	오창 그랜드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백현리 일원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약 200m	
20	백현리 유물산포지 (제2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백현리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약 435m	
21	수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산2-1임 일원	시대 미상	유물 산포지	STA 15+870. 0643	

2.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면적은 1,322,272㎡(연장 12.1km)이다.

조사지역은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지와 산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지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지조사결과, 기존에 실시된 지표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 및 분묘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개의 유물산포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 외에도 1개의 유물산포지를 새롭게 찾아 **총 8개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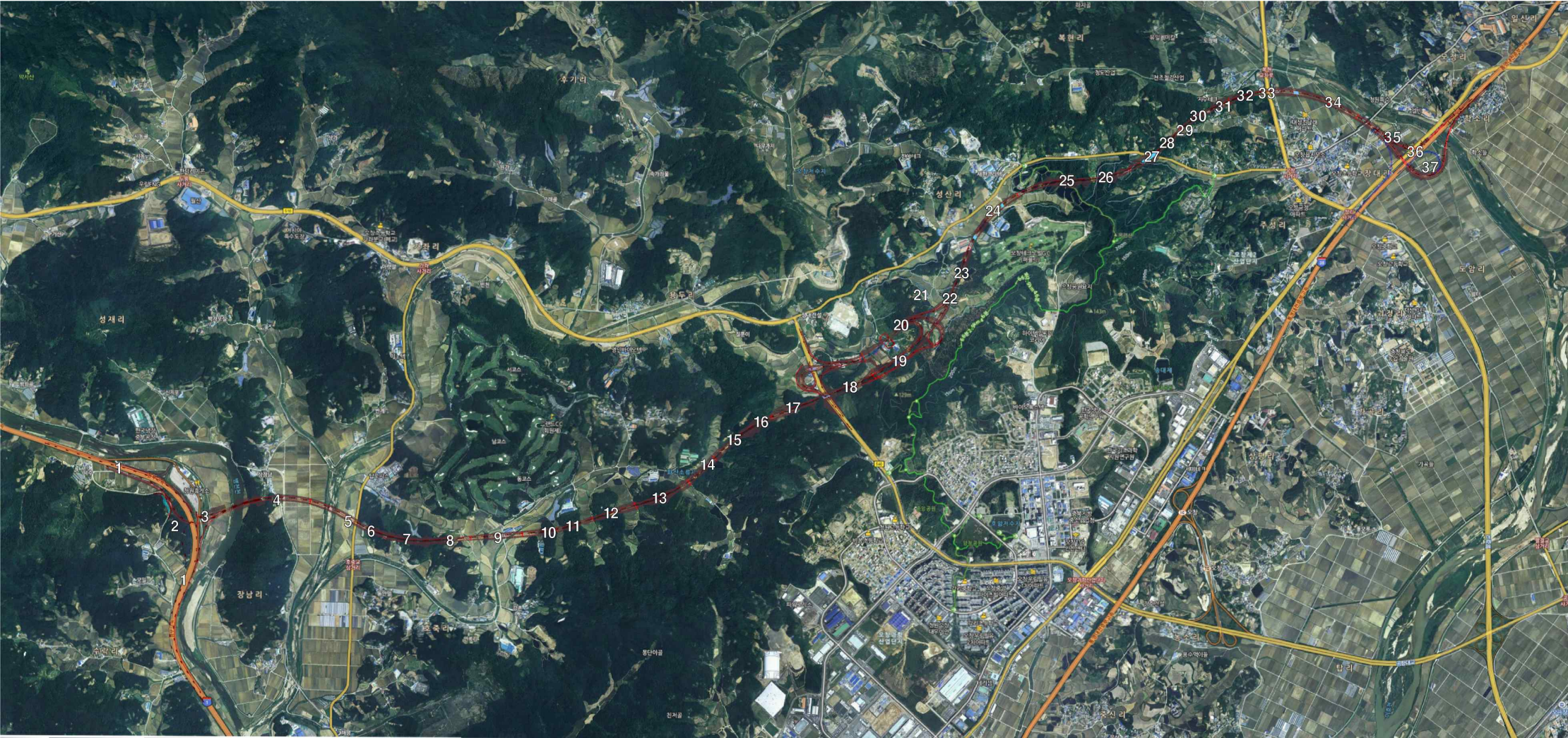
이 외에도 조사지역의 종점부에 해당하는 장대리 일원은 인접한 오창 학소리·장대리유적의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취락 및 생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표본 및 시굴조사가 필요한 범위와 면적은 [표 2~6], [지도 7~11]와 같다.**

이 외에 능선 정상부와 경사가 심한 사면부, 그리고 현재 논으로 이용 중인 지역에서는 유물 또는 유

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상으로도 능선 정상부의 폭이 좁고 사면부의 경사가 급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노출된 문화유적의 흔적과 지형적인 특징을 포함한 주변의 환경과 현상만으로 유적의 잔존가능성과 그 분포범위 등을 추정해야만 하는 조사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 지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유적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진행시 매장문화재가 노출된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현 장 조 사 사 진



[사진 6]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1)



[사진 7] 청원휴게소 경부고속도로 분기점 전경(1)



[사진 8]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1)



[사진 9] 수락리 유물산포지 전경(2)



[사진 10] 청원휴게소 - 0+200 전경 (3)



[사진 11] 1+200 ~ 0+500 전경 (4)



[사진 12] 0+500 ~ 1+200 전경 (5)



[사진 13] 1+200 ~ 1+500 근경 (6)



[사진 14] 1+200 ~ 1+500 근경 (6)



[사진 15] 호죽리 유물산포지 전경 (7)



[사진 16] 호족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7)



[사진 17] 2+0 ~ 2+500 원경 (8)



[사진 18] 2+600 ~ 2+700 전경 (9)



[사진 19] 2+700 ~ 2+800 근경 (10)



[사진 20] 2+800 ~ 2+900 근경 (11)



[사진 21]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사진 22]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12)



[사진 23] 3+700 ~ 4+0 원경 (13)



[사진 24] 3+700 ~ 4+0 원경 (13)



[사진 25] 4+100 ~ 4+500 원경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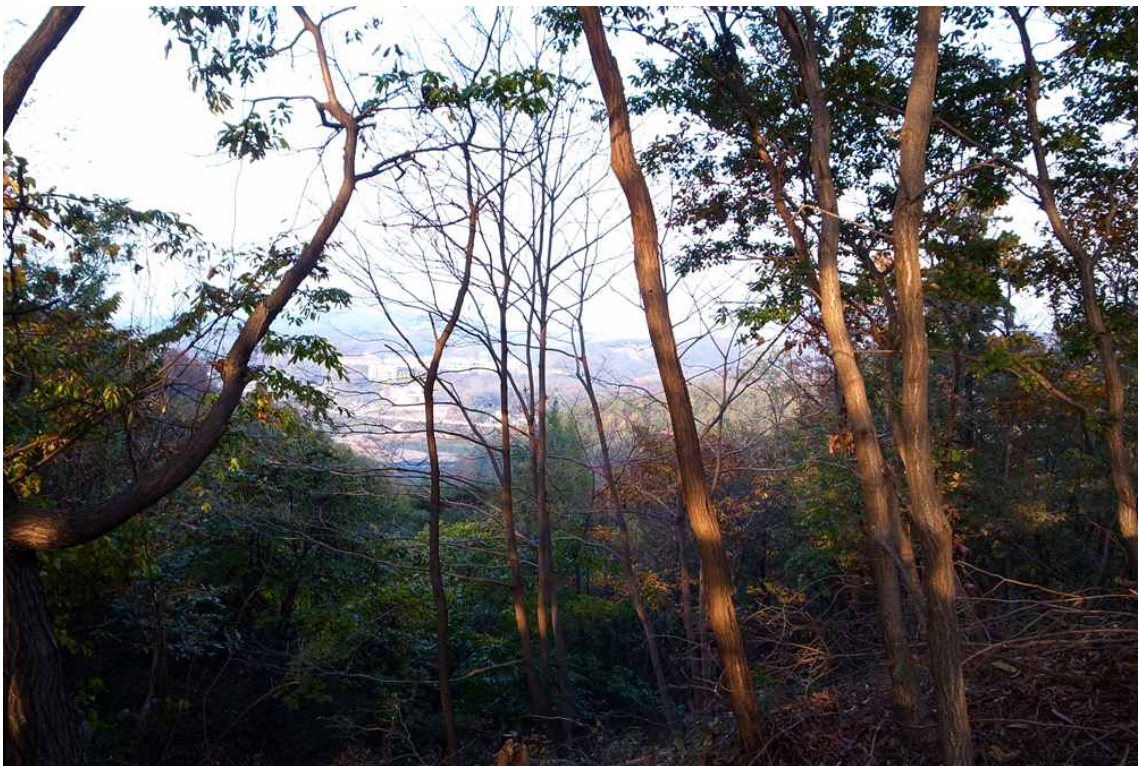
[사진 26] 4+100 ~ 4+500 근경 (14)



[사진 27]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근경 (15)



[사진 28]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수습유물 (15)



[사진 29] 4+800에서 바라 본 시점부 전경 (16)



[사진 30 5+100 계곡부 경작지 전경 (17)]



[사진 31] 5+800에서 바라 본 성산리 유물산포지 (18)



[사진 32]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사진 33] 성산리 유물산포지 근경 (19)



[사진 34] 성산리 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원경 (20)



[사진 35] 청풍김씨 묘역 수습 유물 (21)



[사진 36] 능골 유물산포지 전경 (23)



[사진 37] 능골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23)



[사진 38] 7+900 주변 경작지 전경 (24)



[사진 39] 8+300 주변 경작지 전경 (25)



[사진 40] 8+300 능선 근경 (25)



[사진 41] 8+800 능선 근경 (26)



[사진 42] 목령산 북쪽 사면부 근경 (27)



[사진 43] 9+300 근경 (27)



[사진 44] 9+300 능선 정상부 근경 (28)



[사진 45] 9+400 경작지 근경 (29)



[사진 46]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0)



[사진 47]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사진 48] 복현리 유물산포지 근경 (31)



[사진 49] 복현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31)



[사진 50] 10+100 사면 근경 (32)



[사진 51] 10+200 사면 전경 (33)



[사진 52] 모정교 - 복현사거리 전경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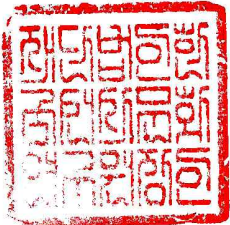
[사진 53]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5)



[사진 54]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6)



[사진 55]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37)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업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기간	2013년 8월~2017년 7월				
	사업지역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 청원군 오창읍 도암리 일원									
	면적	전체사업면적	1,322,272㎡(연장 12.1km)			사업목적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표조사면적	1,322,272㎡(연장 12.1km)								
사업 시행자	기관명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주)				연락처	Tel.070-4421-8690 Fax.02-512-3480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재)한국선사 문화연구원		책임조사원	손명수	조사원 이하	신승철 · 이신복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2012. 08. 29. ~ 2013. 01. 08. (사전조사 3일, 현장조사 2.5일, 정리 및 분석 2.0일, 보고서 작성 5.0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 역사 분야	15,400,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500m 이내)	지정문화재 (21곳)	총비 삼월의 비(약 80m 이격, 현상변경신청대상)								
		비지정문화재	이효석 묘 · 신도비, 이사해 묘, 김공예 묘, 청풍김씨 쌍효각, 청원 장대리유적, 오창 학소리유적 등								
	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지상문화재	기존	-								
		신규	-								
	매장문화재	기존 (7건)	수락리 유물산포지, 호족리 유물산포지, 화산리 유물산포지①·③,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oo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성산리 유물산포지, 능골유물산포지								
		신규 (2곳)	복현리 유물산포지,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건축물	기존	-								
		신규	-								
	민속자료	기존	-								
신규		-									
조사기관 종합 의견		현지조사결과, 조사지역은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지 지형과 계곡부 및 하천 주변에 조성된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100년간 눈에 띄는 지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지역 내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생활 및 분묘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8개의 유물산포지 를 확인하였으며, 오창 장대리유적 주변 총적대지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 시행 전 이들 지역에 대한 시굴 및 표본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함 2013년 01월 08 기 관 명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⑤ 시대	⑥ 종류	⑦ 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1	충비 삼월의 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지리 산16	-	조선	비	√		현상변경 신청대상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제14호)	
2	수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수락리	106,936㎡	조선	유물 산포지 · 분묘	√		시굴조사	16,000㎡	유물산포지 내 다수의 고묘확인함	
3	호죽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읍읍리 호죽리	85,129㎡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21,300㎡	고려~조선 토기·옹기 편 수습됨	
4	화산리 유물산포지①	충북 청원군 읍읍리 화산리	12,891㎡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4,600㎡	기존조사시 유물수습됨	
5	화산리 유물산포지③	충북 청원군 읍읍리 화산리	39,540㎡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14,800㎡	고려~조선 토기편 수습됨	
6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250번지 일원 oo공동주택건설 부지 내 유적	충북 청원군 읍읍리 성산리 250번지 일원	102,328㎡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26,488㎡	기조사시 백자편, 토기편 수습됨	토취장 부지 포함
7	성산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읍읍리 성산리	22,410㎡	조선	유물 산포지 · 분묘	√		시굴조사	19,700㎡	유물산포지 내 다수의 고묘확인함	
8	능골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읍읍리 성산리 능골	60,642㎡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20,600㎡	백자편 등 생활관련 유물 수습됨	
9	북현리 유물산포지	충북 청원군 읍읍리 북현리	10,560㎡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	시굴조사	10,500㎡	고려~조선 토기·백자 편 수습됨	
10	장대리 유적분포추정지	충북 청원군 읍읍리 장대리	59,900㎡	청동기	유적 분포 추정지		√	표본조사	59,900㎡	주변일대 청동기 유적 인접함, 임지조건상 청동기 유적 가능성 높음	

지표조사보고 16 - 01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6. 5.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I. 조사개요	5
II. 조사지역과 주변환경	9
1. 자연, 지리 환경	9
2. 고고, 역사 환경	10
3. 연혁	12
III. 조사내용	15
1.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현황	15
2. 고고, 역사 분야	17
3. 자연마을 및 주요지명 조사	19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21

표 차례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 (500m 이내)	15
[표 2]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현황(500m 이내)	21

지도 차례

[지도 1] 조사지역 위치도	6
[지도 2] 조사지역 위치도(大正 14年, 1925년 지형도)	7
[지도 3] 청주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4
[지도 4]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분포도	16
[지도 5] 조사범위 및 주변지형	18
[지도 6] 조사범위 및 시굴조사 필요범위	22

사진 차례

[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일대 위성사진	8
[사진 2] 조사지역 전경(①→남)	24
[사진 3] 조사지역 전경(①→북)	24
[사진 4] 조사지역 전경(②→남)	25
[사진 5] 조사지역 전경(②→북)	25
[사진 6] 조사지역 전경(③→남)	26
[사진 7] 조사지역 전경(③→북)	26
[사진 8] 조사지역 전경(④→남)	27
[사진 9] 조사지역 전경(④→북)	27
[사진 10] 조사지역 전경(⑤→남서)	28
[사진 11] 조사지역 전경(⑤→북서)	28
[사진 12] 조사지역 전경(⑥→남)	29
[사진 13] 조사지역 전경(⑥→남동)	29
[사진 14] 조사지역 전경(⑦→남동)	30
[사진 15] 조사지역 전경(⑦→북서)	30
[사진 16] 조사지역 전경(⑧→남동)	31
[사진 17] 조사지역 전경(⑧→북)	31
[사진 18] 조사지역 전경(⑨→남동)	32
[사진 19] 조사지역 전경(⑨→북서)	32
[사진 20] 조사지역 전경(⑩→남동)	33
[사진 21] 조사지역 전경(⑩→북서)	33
[사진 22] 조사지역 전경(⑪→북서)	34
[사진 23] 조사지역 전경(⑫→남동)	34
[사진 24] 조사지역 전경(⑬→동)	35
[사진 25] 조사지역 전경(⑬→서)	35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인해 시점부인 옥산분기점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함.
- 이에 설계변경구간에 대한 문화재 분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의뢰함.

3. 조사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77,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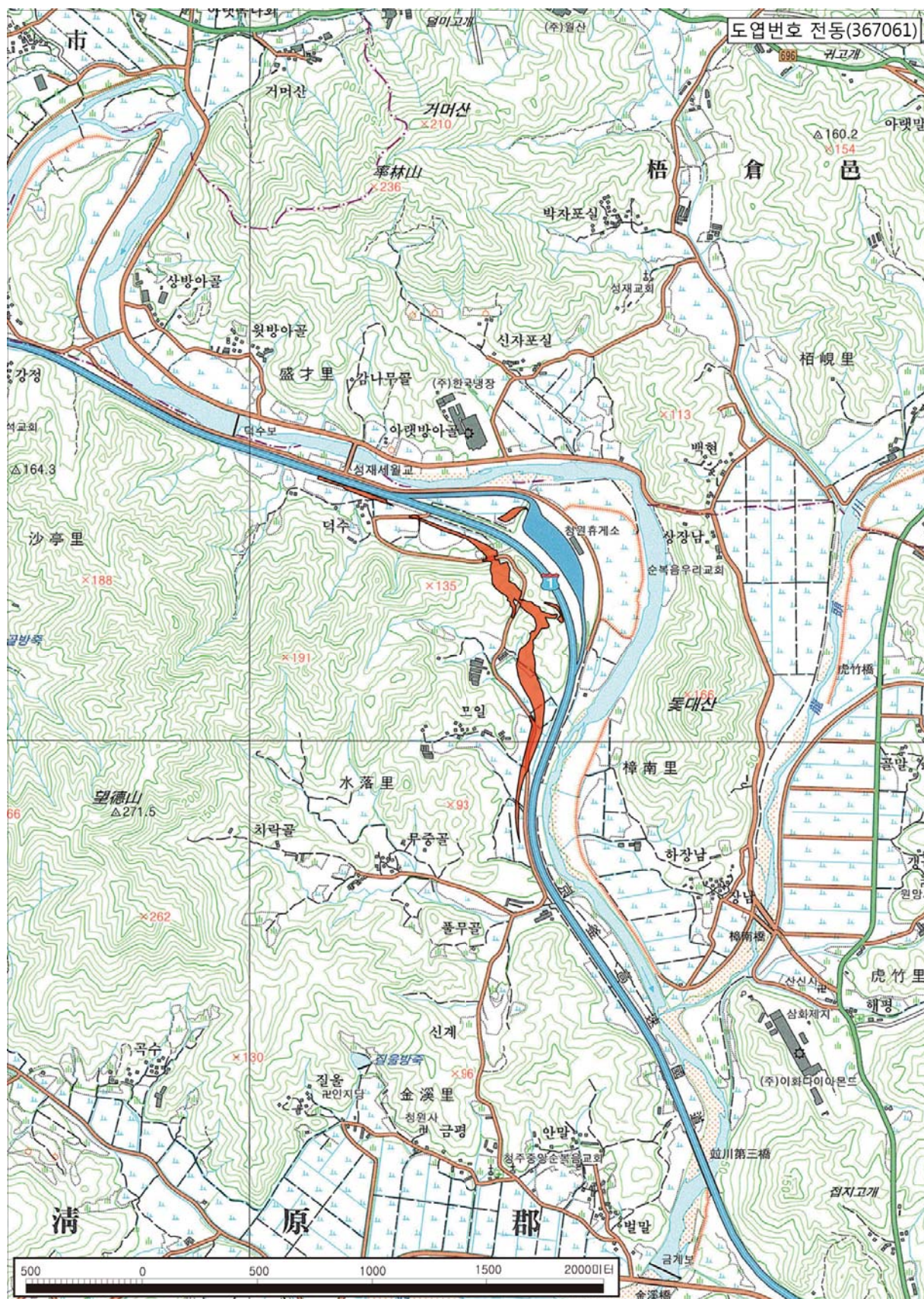
5. 조사기간 : 2016년 5월 2일 ~ 16일 (총 15일간)

(사전조사 0.2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3일, 보고서 작성 0.5일)

6. 조사의뢰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7. 조사단구성

- ☐ 조 사 단 장 : 우 종 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 조 사 원 : 신 승 철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 준 조 사 원 : 이 신 복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지도 2] 조사지역 위치도(大正 14年, 1925년 지형도)



[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일대 위성사진

II. 조사지역의 환경

1. 자연, 지리 환경

조사지역이 속한 청주시는 충청북도 중앙부에 위치한다. 청주시의 지질은 충청북도 지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옥천계와 조선계 지층의 영향 아래 변성퇴적암인 편마암류와 화성암류가 넓게 분포해 있다. 또한 무심천과 그 지류 주변에는 넓게 형성된 퇴적층이 발달해 있다.

산세는 직·간접적으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노령산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산맥들에 의해 동부지역은 산악지, 중앙부는 구릉성 산지로 구성되며 서부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평야를 이루고 있어, 동고서저·남고북저의 형상을 띠고 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지형을 세분한 북부산지, 동부산지, 중앙구릉지, 북부저지, 서부저지 가운데 금강상류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서부저지에 속한다.

주요 하천으로는 미호천과 무심천이 있다. 미호천은 음성에서 발원하여 백곡천, 초평천 및 보광천과 합류하여 청주시내의 강서동에 이르러 무심천과 합류한다. 미호천유역은 충북의 곡창지대로 큰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무심천은 청원군 남일면과 낭성면의 경계에 있는 선도산에서 발원하여 청주시내의 용암천 일대로 흐른다. 용암천 주변은 토질이 좋고 관개가 용이하여 취락이 발달하였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 청주 한씨의 집성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심천은 병암천 및 월운천, 영운천 등과도 합류하며, 시내의 무심천 양안은 제방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주는 우리나라 중남부의 차령산맥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지역으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인 분지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청주는 대륙성 기후의 전형적인 곳이다. 청주시의 연평균기온은 11.3℃, 강수량은 우리나라 연평균과 대체로 일치하며, 연강수량은 1,200mm로 약 60%가 6~8월의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2. 고고, 역사 환경

청주지역은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과 인접하고 있고, 미호천 주변으로는 해발 50~10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¹⁾

미호천과 그 지류 일대에는 구석기시대로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구석기시대로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호천유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청주 개신동²⁾, 석소동³⁾, 봉명동⁴⁾, 울랑동유

1)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文化遺蹟 分布地圖-淸州市』의 유적명을 그대로 따왔다.

2) 이용조,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 전통유물의 몇 예」 『白山學報』 20 (백산학회).

적⁵⁾, 청원 소로리⁶⁾, 만수리⁷⁾, 연제리⁸⁾, 남촌리, 각리, 구룡리유적⁹⁾, 진천 장관리유적¹⁰⁾, 신정리, 상신리¹¹⁾, 송두리유적¹²⁾ 등이 있다. 최근에도 미호천유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석기유적이 계속 찾아지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청원 쌍청리유적¹³⁾이 충북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되었으며, 이 유적은 중부내륙지방(금강유역권)에 발달된 신석기문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청주 서촌동 새터마을, 청원 환희리 내안마을유적 등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채집된 바 있으나, 다른 시기의 유적에 비해 볼 때 미호천유역 일대에서 확보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집터, 고인돌, 선돌 등 여러 유형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생활유적으로는 청주 향정동¹⁴⁾, 내곡동¹⁵⁾, 봉명동유적¹⁶⁾, 청원 내수리¹⁷⁾, 궁평리유적¹⁸⁾, 진천 사양리유적¹⁹⁾ 등이 있다. 무덤유적(돌널무덤, 고인돌)으로는 청주 비하동유적²⁰⁾, 진천 수의, 칠암, 용대, 구암²¹⁾, 옥동리, 노원리, 성석리, 평산리유적²²⁾, 청원 신촌리, 장동리²³⁾, 학평리²⁴⁾, 내둔리, 황탄리유적²⁵⁾ 등이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 여러 지점에서의 새로운 청동기유적이 확

- 3) 차용걸, 우종윤, 조상기, 1992. 『京釜高速道路 擴張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 4) 이웅조, 1997. 「청주 봉명동유적 I 지구(구석기) 발굴조사 약보고」 『청주 봉명동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13~24 : 이웅조, 홍미영, 1999. 「청주 봉명동 I 지구 발굴조사 개보」 『年報』 8 (충북대학교 박물관).
- 5)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청주 증원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 6) 충북대학교 박물관, 한국토지공사, 2000. 『청원 소로리 구석기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68책)
- 7) 『충청일보』 1993년 10월 25일자 사회 1면.
- 8) 박진우, 1993. 『美湖川流域 地表調査 報告書』 (청주대학교 박물관).
- 9) 이웅조, 우종윤, 하문식, 윤용현, 노병식, 1994. 「先史考古學分野 調査報告」 『淸州科學産業團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 10) 이웅조, 김주용, 김경표, 조태섭, 공수진, 김우성, 2002. 『진천 장관리유적(I)』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 11)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 『文化遺蹟 分布地圖 - 鎭川郡』.
- 1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鎭川~鎭川 IC間 道路擴, 鋪裝 工事區間內 松斗里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 증원문화재연구원, 2006. 『진천 송두리 구석기유적』.
- 13) 국립청주박물관, 1993. 『청원 쌍청리 주거지』.
- 14) 윤무병, 1986. 「淸州 香亭, 外北洞遺蹟 發掘調査 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 박물관).
- 15) 차용걸, 1986. 「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 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16) 하문식, 1998. 「청주 봉명동 II 지구 유적 발굴조사 개보」 『年報』 7 (충북대학교 박물관).
- 17) 조유전, 홍성빈, 1985. 「淸原 內秀里 無文土器 散布地 發掘調査 報告(略)」 『文化財』 18 (문화재관리국).
- 18) 이웅조 등, 1994. 『淸原 宮坪里 靑銅器遺蹟』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 1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鎭川 文百 電氣, 電子農工團地 鎭川 思陽里遺蹟』.
- 20) 한국고고학회, 1974. 「淸原 飛下里 出土遺物 一括」 『考古學』 3 (한국고고학회).
- 21) 이웅조, 하문식, 윤용현, 1988. 「증원지방에서 새로이 찾은 고인돌유적(I)」 『湖西文化研究』 7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 22) 이웅조, 박홍근, 1998. 「鎭川郡의 考古遺蹟」 『鎭川郡의 文化遺蹟』 (충북대학교 박물관).
- 23) 우종윤, 1993. 「금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 『年報』 2 (충북대학교 박물관).
- 24)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3. 『中原文化圈 遺蹟情密調査 報告書 - 淸原郡』.
- 25) 박진우, 1992. 『앞 책』.

인되고 있다.

또한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적들도 지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보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생활유적으로 정북동 토성²⁶⁾, 우암산 토성, 당차산 토성²⁷⁾, 부모산성²⁸⁾, 상당산성²⁹⁾, 청주읍성³⁰⁾이 있으며, 묘제유적으로 청주 신봉동³¹⁾, 송절동³²⁾, 청원 오창 송대리³³⁾, 주성리³⁴⁾, 상평리유적³⁵⁾이 있다.

미호천 상류인 진천지역에는 원삼국시대 토광묘 유적인 송두리유적³⁶⁾, 토기 생산유적인 삼용리와 산수리유적³⁷⁾이 있으며, 백제시대 제철유적인 석장리유적³⁸⁾이 있다. 이 밖에 인근 유적으로는 병천천 상류인 천안 지역에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인 천안 청당동유적³⁹⁾과 천안 화성리유적⁴⁰⁾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금강상류인 미호천과 병천천 주변의 충적대지와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

-
- 26) 차용걸 외, 1999. 『청주 정북동 토성 I-1997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7책). ; 2002. 『청주 정북동 토성 II-2000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33책).
- 27)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0. 『우암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28) 차용걸 외, 1999. 『청주 부모산성-지표조사보고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11책).
- 29)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2. 『상당산성 지표조사보고서』 : 차용걸 외, 1997. 『상당산성 -서장대 및 남문 외 유적지표조사보고』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연구총서 제 14책) : 차용걸 외, 1999. 『상당산성 -종합지표조사 및 문헌자료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총서 12책).
- 30)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1. 『청주읍성, 남석교 -복원학술조사보고서』 (유적조사보고 제 29책).
- 31) 이웅조, 차용걸, 1983.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82년도 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7책)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0.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90년도 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24책) : 김성명, 신종환, 이재열, 1993. [청주 신봉동 B지구 2차 발굴조사보고] 『고고학지』 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차용걸, 조상기, 오윤숙, 1995.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44책) :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6. 『청주 신봉동 고분군-1995년도 조사-』 (충북대학교 조사보고 제46책).
- 32) 차용걸 외, 1993. 『청주 송절동 고분군』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42책).
차용걸, 조상기, 1994. 『청주 송절동 고분군 1차년도('92)조사보고서』 『연천 삼관리 백제 적석총 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1995. 『청주 송절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93년도 발굴조사-』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북대학교 박물관).
- 3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토지공사, 1999. 『청원 오창유적』.
- 34) 조상기, 1999. 「청원 주성리 발굴조사 성과」 『호서지방의 선사문화』 (호서고고학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충청북도개발사업소, 2000. 『청원 주성리유적』.
- 35) 김병모, 1986. 「청원 상평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증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19책).
- 36) 차용걸, 조상기, 1991. 『진천 송두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29책).
- 37) 한남대학교 박물관, 1987. 「진천 산수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 약보고」 ; 1988. 「진천 삼용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 약보고」 ; 1989. 「진천 삼용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3차) 약보고」 ; 1990. 「진천 삼용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4차) 약보고」 ; 1992. 「진천 삼용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5차) 약보고」 ; 1993. 『백제토기 요지 특별전』.
- 38) 국립청주박물관, 1994. 「진천 석장리유적 철생산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및 보도자료) ; 1995. 「진천 석장리유적 제2차 발굴조사-고대 철생산 유적의 실례-」 (현장설명회 및 보도자료).
- 39) 서오선, 권오영, 1990. 「천안 청당동유적 발굴조사보고」 『휴암리』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2책) : 서오선, 권오영, 함순섭, 1991. 「천안 청당동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송국리』 IV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3책) : 서오선, 함순섭, 1992. 「천안 청당동 제3차 발굴조사보고서」 『고성패총』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4책) : 한영희, 함순섭, 1993. 「천안 청당동 제4차 발굴조사보고서」 『청당동』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5책) : 국립중앙박물관, 1995. 「천안 청당동유적 I 단계 조사보고」 『청당동II』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7책).
- 40) 김길식 외, 1991. 『천안 화성리 백제묘』 (국립공주박물관).

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지역의 문화적 성격과 변천을 규명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선사유적과 유물이 찾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연혁

삼한시대의 청주지역은 마한의 국읍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력들은 토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였다. 청주 송절동과 봉명동의 대규모 토광묘 유적이 그것으로 낙랑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토착의 세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자료와 함께 백제시기의 대규모 토광묘군과 석실분이 조사된 청주 신봉동유적, 백제 토광묘군이 조사된 청주 가경동, 명암동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들 수 있다.⁴²⁾ 이런 자료들로 볼 때 4세기 후반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자치적이고 토착적인 지배권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항쟁기에 삼국간의 세력 각축장이었다. 청주시 정북동 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비롯한 청원군의 여러 성터들은 삼국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백제에 이어 청주지역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아마 진흥왕대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대세 속에서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청주에 진출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6~7세기대의 신라 유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은의 삼년산성이 470년 신라에 의해 축조 되었고, 청주 인근의 청원 문의[一牟山郡]가 이미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가 474년 이곳에 양성산성이 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 5세기 후반경에는 보은, 문의가 신라의 영역 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⁴³⁾ 또한 문의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⁴⁴⁾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비중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동쪽에 인접한 우암산성, 배후의 보다 높은 위치의 상당산성을 축조하여 그 중심부가 방어도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

41)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4. 『청주 송절동 고분군』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42책).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9. 『청주 봉명동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63책).

42)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0.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90년도 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24책 ; 1995.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44책) ; 2002. 『청주 가경 4지구 유적(Ⅰ)』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92책) : 국립청주박물관, 2000. 『청주 명암동유적(Ⅰ)』 (학술조사보고서 제5책 ; 2001. 『청주 명암동유적(Ⅱ)』 (학술조사보고서 제 6책).

43) 차용걸 외, 2001. 『청원 양성산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총서 제23책).

44)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청원 미천리 고분군』.

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서 또 한 차례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청주 호족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세력기반이었지만 점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청주 호족들은 크게 친궁예세력과 친왕건세력으로 분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들 청주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 광종때 설치한 「龍頭寺址鐵幢竿」의 기록에 의하면 김(金), 손(孫), 경(慶), 한(韓)씨 등 1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청주지역에는 한(韓), 이(李), 김(金), 곽(郭), 손(孫), 경(慶)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을 보게 된다. 즉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이름을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 중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5) 12목이 폐지되고 10도로 나누어 12주를 두게 되자 청주는 중원도(中原道)에 속한 전절군(全節軍)으로 불리우는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다시 설치할 때 청주는 그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 건국초에 붙여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 지금의 청원군 문의면)과 목주군(木州郡 :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 군과 진주(鎭州 : 진천군), 전의(全義 : 연기군 전의읍), 청주, 도안(道安 : 괴산군 도안면), 청당(靑塘 :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 연기군), 회인(懷仁 : 보은군 회남, 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 공주)와 홍주(洪州 : 홍성군), 천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領官)을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川縣 : 괴산군 청천면)이고, 향은 2곳이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鄉 : 대전 동면)과 덕평향(德坪鄉 : 전의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 청원군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曲 :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豐部曲 :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閑身部曲 : 괴산군 청천면)의 4곳이 있었다.

조선 건국 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에 우호적이었던 경복흥(慶復興)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충(鄭攄), 정탁(鄭擢), 3등 공신 한상경(韓尙敬)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監司兼牧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종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년(1449) 감사겸목제가 잠시 부활된 적이 있었다.

이후 세조 때에는 감사겸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제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1455) 군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익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익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익에 천안, 온양, 전의, 평택, 아산, 목

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 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보은·청산·황간·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청주는 청주권의 행정, 군사적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지도 3] 청주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근대에 이르러 청주는 몇 차례 행정 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33년(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군의 하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제하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귀를 행하였다. 이때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었다. 사상 최초로 충청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서 빠져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부(府), 군(郡), 면(面)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편되었다. 1963년 1월 사주면의 16개리를 병합하였으며, 1983년 청원군 강서면 전지역과 청원군 낭성면 산성리 등 3개리를, 1987년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등 14개리를 편입시켰고, 이어 1995년 상당구와 흥덕구 등 2개 구청으로 개칭한 이래 현재 79개 법정동을 관할였다.

지금은 1946년 6월 1일 분리되었던 청주, 청원이 2012년 6월 통합이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 청주시로 통합되었다.

III. 조사내용

문화재 지표조사의 진행은 현지조사에 앞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문헌자료와 문화재 관련 각종 보고서 등을 수집, 검토하여 지표조사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의 성격과 분포범위를 파악하였다. 이후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단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물론 공사 진행시 훼손이 예상되는 주변지역까지 포괄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조사하여 마무리하였다.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현장조사에 앞서 사업진행으로 인한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에 대한 직, 간접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원군』⁴⁵⁾과 『문화재통합 GIS 인트라넷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정문화재는 분포하지 않으며, 비지정문화재로는 수락리 유물산포지의 일부가 조사지역에 포함되어 공사시행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 청원 수락리 유적,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제1,2유물산포지⁴⁶⁾, 백현리 유물산포지 등이 조사지역 주변에 분포하는데 이들 유적들은 조사지역으로부터 최소 400m 이상 떨어져 있어 공사로 인한 직, 간접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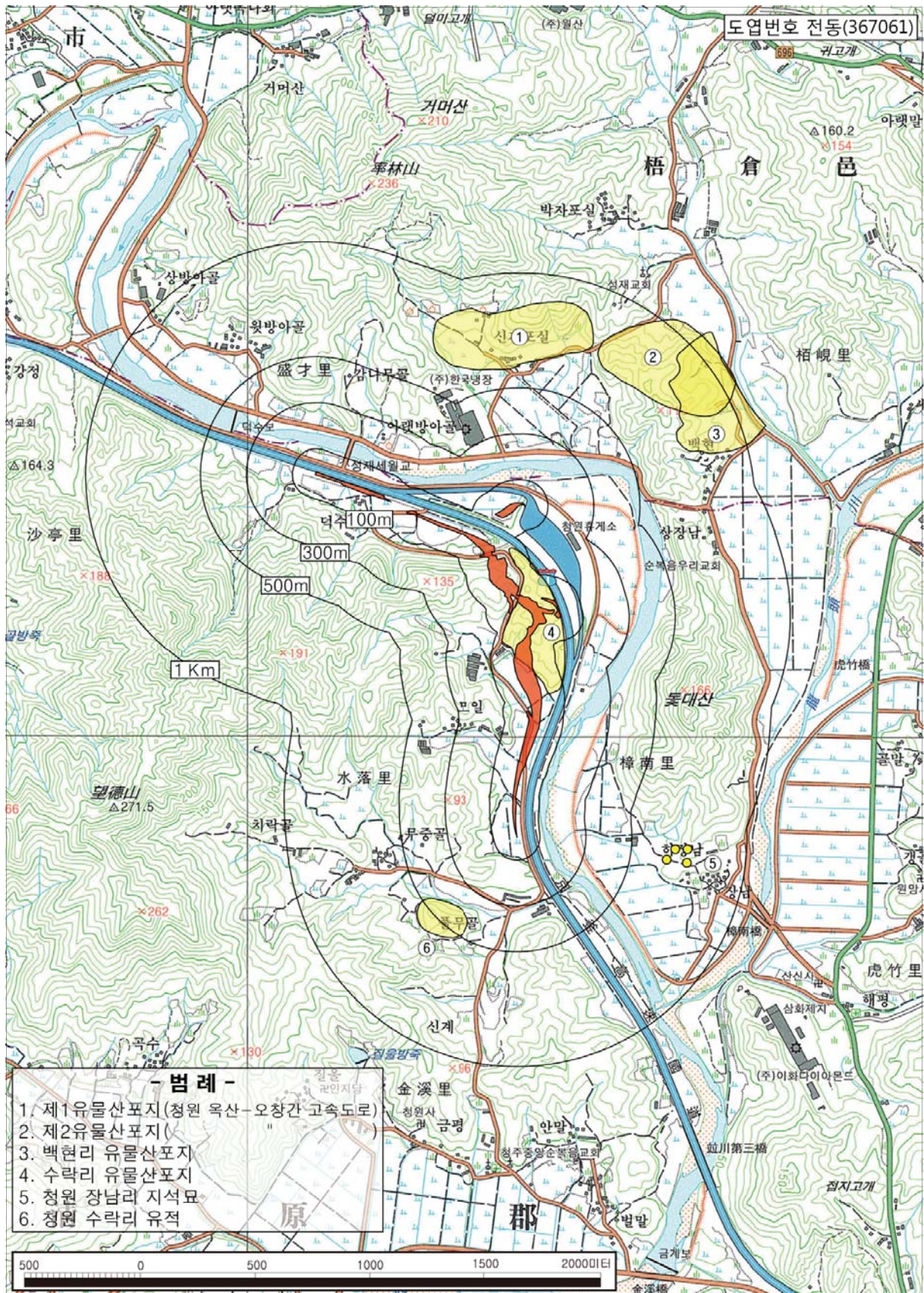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 (500m 이내)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	수락리 유물산포지	청주시 옥산면 수락리 일원	조선	고분	포함	직접영향
2	청원 수락리유적	청주시 옥산면 성재리 일원	원삼국	고분	400	직,간접 영향없음

45)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 - 淸原郡』.

4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옥산-오창 고속도로 기존 계획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시 보고된 유물산포지이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2013년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지도 4]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분포도

2. 고고, 역사분야

조사지역은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점이자 경부고속도로와 연결지점인 옥산분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이다. 지표조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중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인해 옥산분기점에 대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조사면적은 77,387㎡이다.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및 청원휴게소가 있고 미호천의 지류인 병천천이 남류한다. 서쪽으로는 덕성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려온 능선말단부와 접하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병천변을 따라 형성된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다.

조사지역은 크게 능선지역과 경작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능선지역

능선지역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덕성산(해발 271.5m)의 북동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해발 60~80m의 비교적 낮은 능선으로 대부분 자연산림이지만 곳곳에 분묘 또는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수락리 덕수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로 인해 능선의 일부가 끊어진 상태인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남동쪽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능선일대를 중심으로 기초사를 통해 다수의 조선시대 분묘가 확인된 ‘수락리 유물산포지47)’가 자리하고 있어 공사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훼손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락리 유물산포지 범위 내 공사가 진행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반드시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도로의 북서쪽 능선 내 완만한 사면부는 대규모의 계단식 묘역 또는 공장(현재 철거됨) 등이 조성되면서 이미 지형변화가 진행된 상태이었고, 능선의 북동사면의 경우 경사가 매우 급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굴, 발굴 등 추가조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능선지역 내 고속도로 개설공사구간 및 주변일대에 자리한 분묘에 대한 이장이 진행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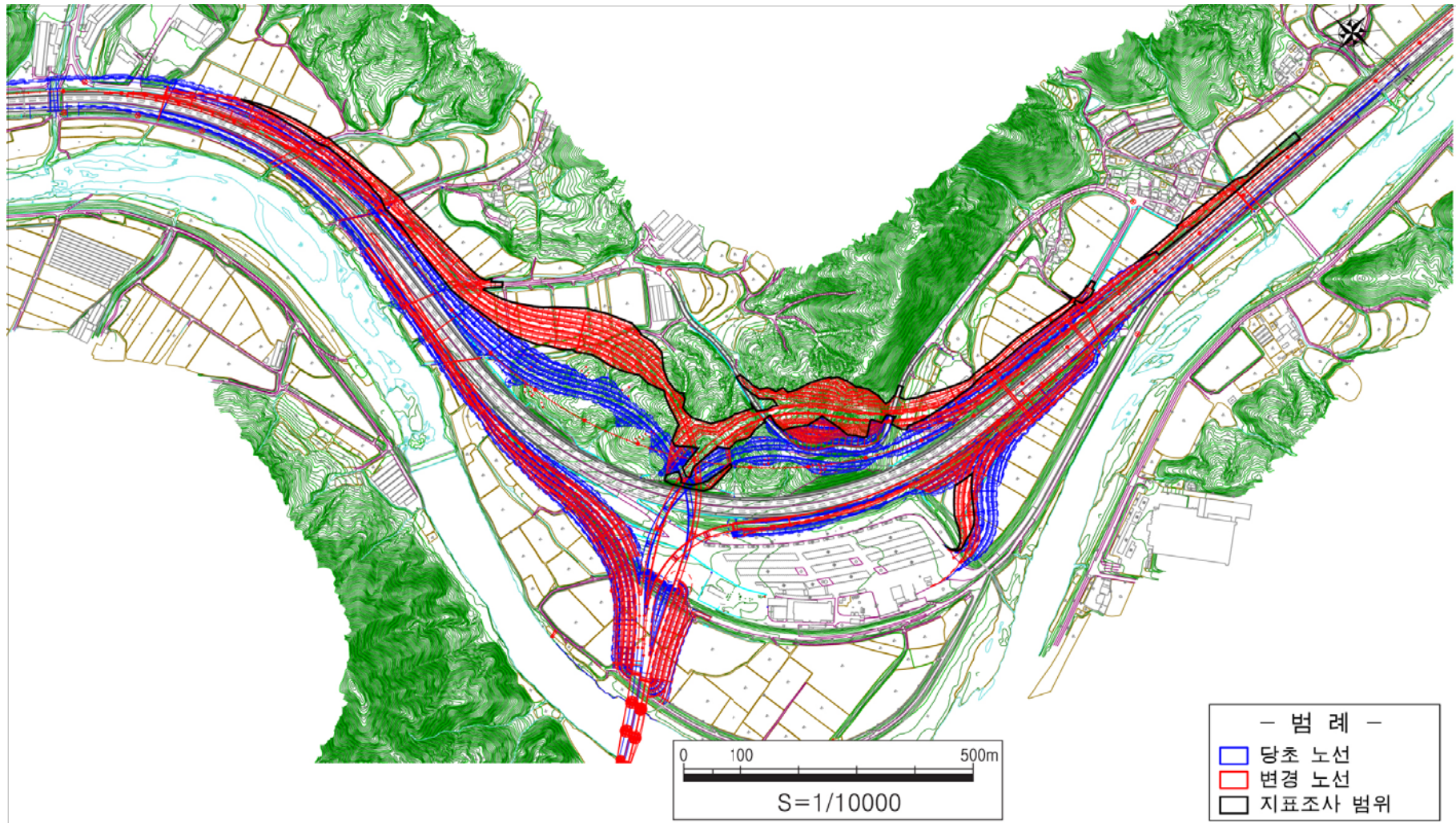
2) 경작지지역

경작지지역은 병천천이 ‘C’자형으로 굽이쳐 흐르는 천변을 따라 조사지역의 북서쪽과 남동쪽에 나뉘어 위치하며, 주로 논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다.

현지조사결과, 매장유구와 관련한 유물 또는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지요건으로 보아 논경작지의 하부로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하성퇴적층이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매장유구의 분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발굴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7)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지도 5] 조사범위 및 주변지형

3. 지명조사

1) 옥산면(玉山面)

충청북도 청원군의 서쪽에 위치한 면이다. 면 소재지는 오산리이다. 면의 서부와 동부 지역에 산지가 발달하고 두 산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앙을 천수천(天水川)이 심한 곡류를 하면서 남류하여 미호천에 합류한다. 합류 지역 일대에 넓은 평야가 발달하고 있다. 현재 오산·덕촌·신촌 등의 15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목 서강외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옥산은 면 소재지인 오산리의 중심 마을인 ‘오미’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즉 지명에서 ‘오미’는 흔히 ‘옥산’이나 ‘오산(烏山)’으로 표기된다. 이때 ‘玉’이나 ‘烏’는 ‘오’에 대한 음차표기이고, ‘산’은 ‘미’에 대한 훈차 표기이다. 이곳에서 면 이름은 옥산면으로 표기되었고, 법정 마을이름은 오산리로 표기하고 있다.

『해동지도』에 서강외이면은 서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록서원(白鹿書院)과 동림사(桐林寺)가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의 서강외이면에는 신원창(薪院倉)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지도』의 서강외이면에는 소탄(所灘)이 표기되어 있고, 수신면 남쪽에는 금성창(金城倉)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에 의하면 서강외이면은 송산·신촌·어정·금성창 등의 18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구한국행정구역일람』에 의하면, 1912년경 서강외이상면은 신촌·점촌·옹봉촌 등의 35개 마을을 관할하였고, 서강외이하면은 청룡·모산·정척동 등의 30개 마을을 관할하였다. 1914년 옥산면으로 통합·개칭되었으며 1949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어 오늘에 이른다.

(1) 수락리(水落里)

본래 청주군(淸州郡) 서강외이상면(西江外二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모일리(票速里)·수락리(水落里)를 병합하여, 수락리(水落里)라 명명하고 옥산면(玉山面)에 편입하였다.

- 무중골 : 수락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 뒤[서쪽]에는 ‘차돌배기’란 산이 있는 데, 장마가 지면 이곳에 목포수를 형성한다.
- 모일 : ‘무중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분무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골짜기에 과거 풀뭇간[대장간]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불무골’은 지역에 따라서는 ‘야동(治洞)’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 치락골 : ‘무중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가는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곡수고개(曲水) : ‘유터골’ 남쪽에 있는 고개로, ‘유터골’에서 ‘곡수’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곡수’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농바골 : ‘무중골’ 뒤[서쪽] ‘챔배기’와 ‘망덕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농바위 : ‘무중골’ 뒤[서쪽] ‘굿별배기’와 ‘망덕산’ 사이에 있는 바위.
- 달지 : ‘모일’ 앞[남동쪽]에 있는 논이다. ‘구레고개’ 너머에 있다.
- 당고개 : ‘분무골’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분무골’에서 금계리로 갈 때 넘었다. 서낭당이 있어 ‘당고개’로 부른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 덕수고개(德水-) : ‘모일’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모일에서 사정2리 ‘덕수’로 갈 때 넘었다. 현재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마을 이름 ‘덕수’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망덕산 : ‘무중골’ 뒤[서쪽]에 있는 해발 2715m의 산으로, 예전에 ‘망덕새가 있었다고 전하나 그터를 알 수가 없다.
- 매봉재 : ‘무중골’ 동쪽 ‘삼배기’ 건너에 있는 산이다.
- 모열고개 : ‘무중골’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무중골’에서 ‘모일’로 갈 때 넘었다. 마을 이름 ‘모일’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바깥샘 : ‘무중골’ 동쪽에 있는 샘이다. ‘바깥’과 ‘샘’으로 나뉘며 ‘마을 바깥쪽에 있는 샘’으로 풀이된다.
- 부송골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 사라골(沙羅-) : ‘무중골’ 뒤[서쪽] ‘차돌배기’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잠장골 : ‘모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일’에서 사정2리 ‘덕수’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
- 안산(案山) : ‘무중골’ 남쪽에 있는 산이다.
- 안샘 : ‘무중골’ 서쪽에 있는 샘으로,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양달말샘(陽-) : ‘무중골’의 ‘양달말’에 있던 바가지샘이다. 가정마다 샘을 파면서 없어졌다. 마을 이름 ‘양달말’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엄나무골 : ‘무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여미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수락휴게소’ 옆에 있던 들이나, 현재는 ‘수락휴게소’가 사라졌다. 경부고속국도 상행선 ‘청원휴게소’ 아래에 있다.
- 여미등범 : ‘모일’ 북동쪽 ‘여미’에 있는 웅덩이이다. 지금도 이 물로 농사를 짓는다. 들이름 ‘여미’에 기대어 붙은 이름이다.
- 오앗가마 : ‘모일’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과거 주막이 있던 곳으로, ‘청원휴게소’ 밑이다.
- 전자리 : ‘분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계리로 가는 곳이다. 현재 청주곽씨(淸州郭氏) 재실이 있다.
- 첼텃골 : ‘무중골’ 남쪽, ‘가는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름재 : ‘모일’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 지매가 : ‘무중골’ 동쪽, 경부고속국도 너머에 있는 들이다.
- 차돌배가 : ‘무중골’ 뒤[서쪽]에 있는 산이다.
- 천비논(千陣-) : ‘무중골’ 앞[남쪽]에 있는 들로, 수렁이 많다.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주)이 시행하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내 옥산분기점 설계변경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지역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 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77,387㎡이다.

조사지역은 크게 능선지역과 경작지지역으로 나뉘지는데, 먼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덕성산(해발 271.5m)의 북동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능선지역 내 기조사를 통해 다수의 조선시대 분묘가 확인된 ‘수락리 유물산포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공사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사시행 전 해당 범위(대상면적 22,85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부 및 성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지도 6]. 그 외에 능선지역은 대규모의 계단식 묘역, 공장(현재 철거됨)의 조성으로 인한 지형변화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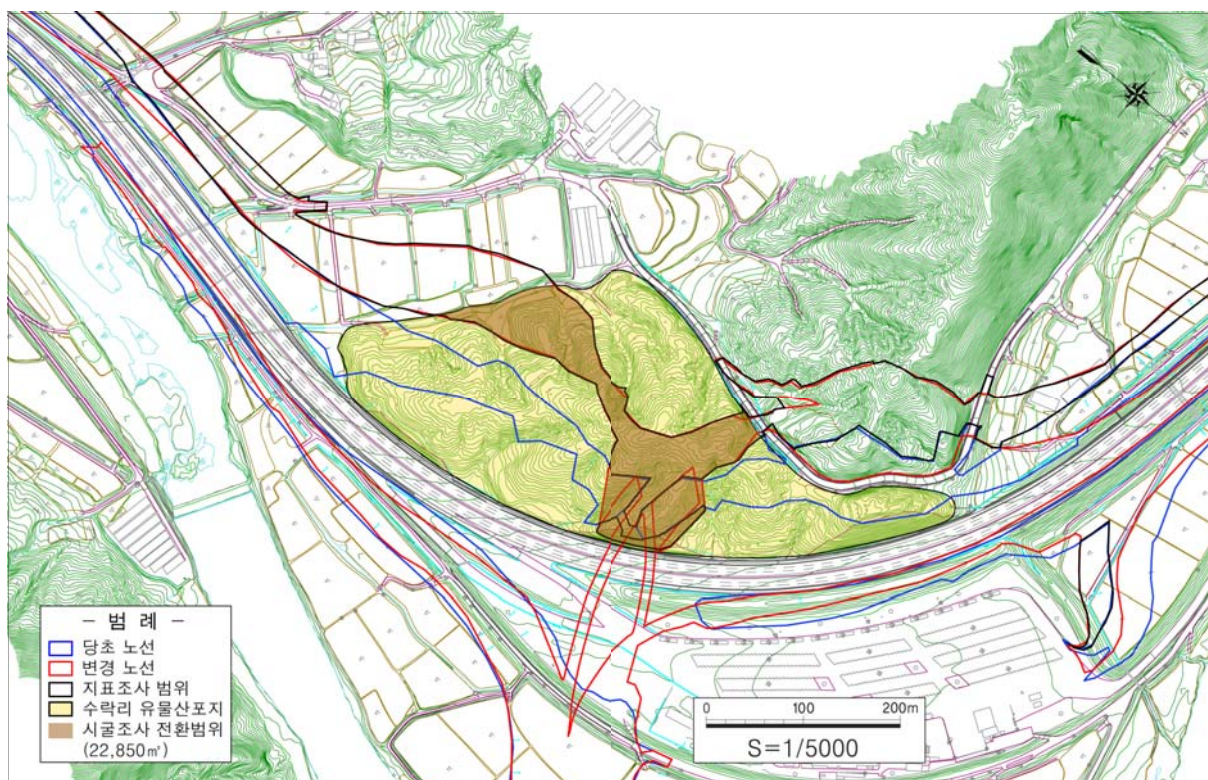
한편 병천천변을 따라 조사지역의 북서쪽과 남동쪽에 나뉘어 위치한 경작지지역은 주로 논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다. 현지조사결과, 매장유구와 관련한 유물 또는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또 입지요건상 논경작지의 하부로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하성퇴적층이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발굴 등 추가조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현황(500m 이내)

연번	유 적 명	위 치	시 대	유적 성격	이격 거리 (m)	비 고
1	수락리 유물산포지	청주시 옥산면 수락리 일원	조선	고분	포함	직접영향
2	청원 수락리유적	청주시 옥산면 성재리 일원	원삼국	고분	400	직,간접 영향없음

문화재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노출된 문화유적의 흔적과 지형적인 특징을 포함한 주변의 환경과 현상만으로 유적의 잔존가능성과 그 분포범위 등을 추정해야만 하는 조사 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시 문화유적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옥산분기점 조성공사시 매장문화재가 노출된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조사기관에 신고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도 6] 조사범위 및 시굴조사 필요범위(22,850㎡)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현 장 조 사 사 진



※ 원문자는 사진촬영지점임.



[사진 2] 조사지역 전경(①→남)



[사진 3] 조사지역 전경(①→북)



[사진 4] 조사지역 전경(②→남)



[사진 5] 조사지역 전경(②→북)



[사진 6] 조사지역 전경(③→남)



[사진 7] 조사지역 전경(③→북)



[사진 8] 조사지역 전경(④→남)



[사진 9] 조사지역 전경(④→북)



[사진 10] 조사지역 전경(⑤→남서)



[사진 11] 조사지역 전경(⑤→북서)



[사진 12] 조사지역 전경(⑥→남)



[사진 13] 조사지역 전경(⑥→남동)



[사진 14] 조사지역 전경(㉠→남동)



[사진 15] 조사지역 전경(㉠→북서)



[사진 16] 조사지역 전경(㉔→남동)



[사진 17] 조사지역 전경(㉔→북)



[사진 18] 조사지역 전경(㉠→남동)



[사진 19] 조사지역 전경(㉠→북서)



[사진 20] 조사지역 전경(㉓→남동)



[사진 21] 조사지역 전경(㉓→북서)



[사진 22] 조사지역 전경(㉑→북서)



[사진 23] 조사지역 전경(㉒→남동)



[사진 24] 조사지역 전경(㉓→동)



[사진 25] 조사지역 전경(㉓→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사업명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사업기간			
	사업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면적	전체사업면적	77,387㎡			사업 목적	도로개설공사		
		지표조사면적	77,387㎡						
	사업 시행자	기관명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연락처		
지표 조사	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재)한국선사 문화연구원		책임조사원	손명수	조사원 이하	신승철, 이신복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간	2016. 5. 2.~5. 16. (사전조사 0.2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3일, 보고서 작성 0.5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 역사 분야	3,300,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조사 결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500m 이내)	지정문화재	없음						
		비지정문화재	청원 수락리 유적(400m 이격)						
	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수락리 유물산포지						
	지상문화재	기존	-						
		신규	-						
	매장문화재	기존	수락리 유물산포지						
		신규	-						
	건축물	기존	-						
		신규	-						
	민속자료	기존	-						
신규		-							
조사기관 종합 의견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능선지역 내 기초사를 통해 다수의 조선시대 분묘가 확인된 ‘수락리 유물산포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시행 전 해당 범위(대상면적 22,85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부 및 성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지역은 현지조사결과, 매장유구와 관련한 유물 또는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대규모 묘역, 공장 등의 조성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입지요건으로 보아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 발굴 등 추가조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기관명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문화재청장 귀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	⑤ 시대	⑥ 종류	⑦ 유적구분		조사의견			⑪ 비고
						기존	신규	⑧ 의견구분	⑨ 조사면적	⑩ 사유	
1	수락리 유물산포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6-8일원	106,936	조선	유물 산포지 ·분묘	√		시굴조사	22,850	기조사시 유물산포지 내에서 다수의 고묘를 확인함.	

[별지 제3호 서식]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허가 번호	제2016-0716호	유적명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발굴 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발굴 사유	고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구제조사	
매장문화재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매장문화재 산포지 면적	106,936㎡	
발굴 기관명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단	조사단장	우종윤
발굴 기간	2016. 6. 20. ~ 6. 29.			책임조사원	손명수
				조 사 원	윤병일
				준조사원	한승철
발굴 비용	24,000,000원		보 조 원	오오타니 카오루, 홍기택	
전체 발굴대상면적		22,850㎡	부분 발굴완료 면적		21,100㎡
전체 현장조사일		8일	진행된 현장조사일		8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6년 7월 일					
기 관 명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약식 보고서(조사구역,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 및 관련 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6.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목 차

I. 조사개요	5
II. 조사지역의 환경	7
1. 자연·지리 환경	7
2. 고고 환경	13
3. 연혁	15
III. 조사내용	21
1. 1지점	21
2. 2지점	26
IV. 조사결과	31

지도 차례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금번 시굴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	6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7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8
[지도 4]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9
[지도 5] 조사지역 위치(1914년 제작)	11
[지도 6] 시굴트렌치 현황도	20
[지도 7]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 ²)	32

표 차례

[표 1] 1지점 트렌치 현황	22
[표 2] 2지점 트렌치 현황	27

사진 차례

[사진 1] 조사지역 위치(위성사진)	10
[사진 2] 조사지역 위치(1954년도 항공사진)	12
[사진 3] 조사지역 위치(1968년도 항공사진)	18
[사진 4] 조사 전 전경(2013년 12월)	18
[사진 5] 조사 후 원경	19
[사진 6] 조사 후 전경	19
[사진 7] 1지점 전경	23
[사진 8] 1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23
[사진 9] 1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24
[사진 10] 1지점 트렌치 모습	25
[사진 11] 2지점 원경	26
[사진 12] 2지점 전경	28
[사진 13] 2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28
[사진 14]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29
[사진 15]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 또는 유물 출토모습	30
[사진 16] 학술자문위원회 개최모습(2016.06.17.)	34

I. 조사개요

□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 조사유형 : 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 조사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 면 적 : 22,850m²

□ 조사경위

○ 문화재 지표조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인해 시점부인 옥산분기점에 대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내 포함된 ‘수락리 유물산포지’ 22,850m²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조사기간 : 2016. 06. 08. ~ 06. 17.(실조사일수 8일)

□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우 종 윤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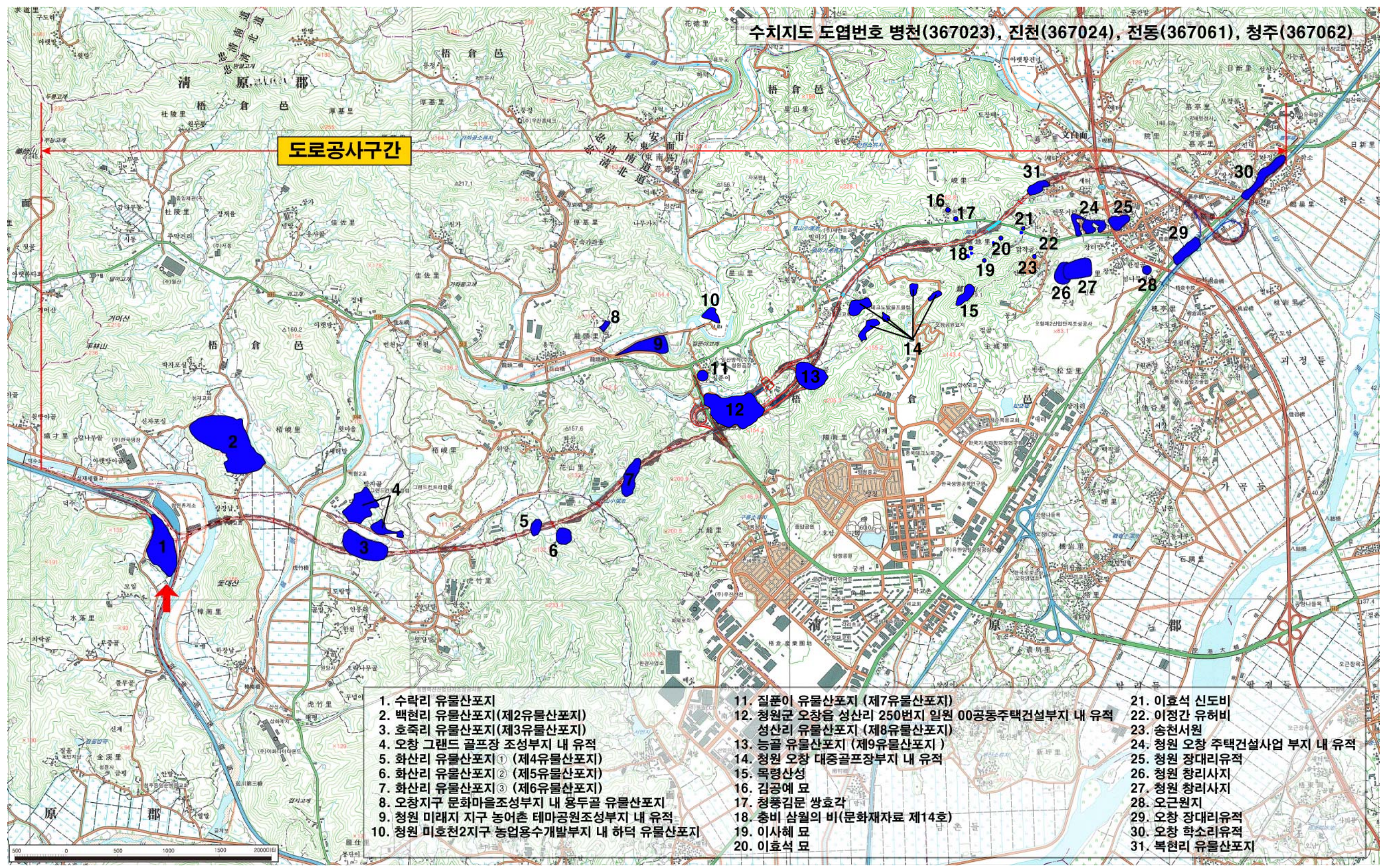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윤 병 일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한 승 철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오오타니 카오루((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홍 기 택((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금번 시굴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 지리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22,850㎡ 이다. 조사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또 동쪽으로는 병천천이 남류하고, 천변을 따라 충적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청주시는 충북의 중서부에 자리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증평군,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남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연기군, 북쪽으로는 진천군, 괴산군과 접하고 있으며, 중앙부에 자리한 청주시를 감싸고 있다. [지도 2참조]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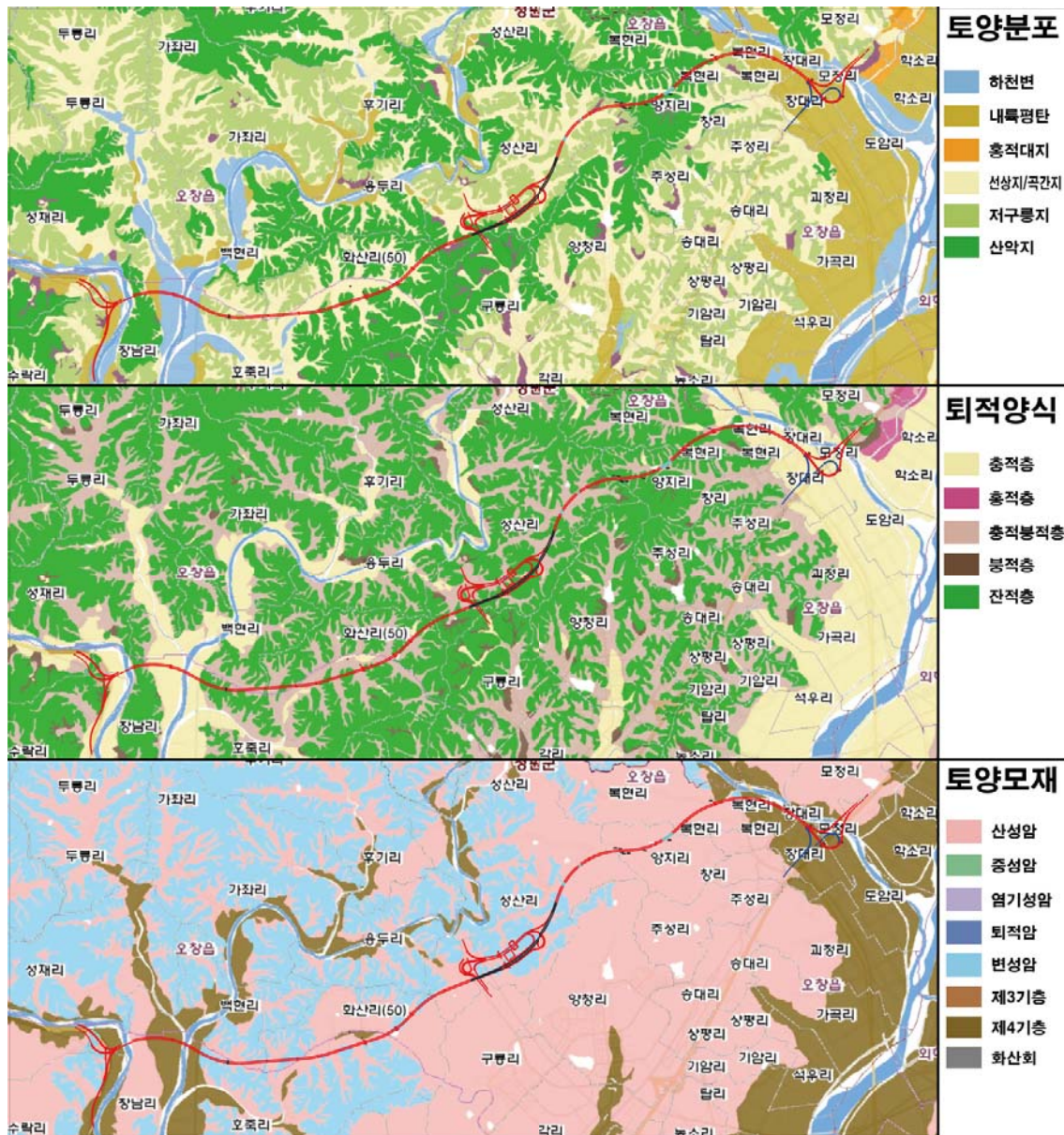
청주시의 지형은 전체로 보아 동고서저형으로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야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구성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의 노령산맥은 차령산맥과 옥갑산에서 분기하여 정남으로 뻗어내려 백마령, 보광산, 칠보산을 지나 미원면의 좌구산에서 미동산, 국사봉, 피반령, 샘봉산을 지나 옥천군의 환산과 대성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쪽으로 문의의 작두산, 현도면의 구봉산등이 솟아 있다.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면서 서남방향으로 뻗어 소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

충북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오창평야와 미호평야를 관개하는 미호천은 음성군 부용산(644m) 남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 청원군 및 충남 연기군을 거치면서 백곡천, 보광천, 무심천, 천수천, 조천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지류들과 합류하여 신탄진까지는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에서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서해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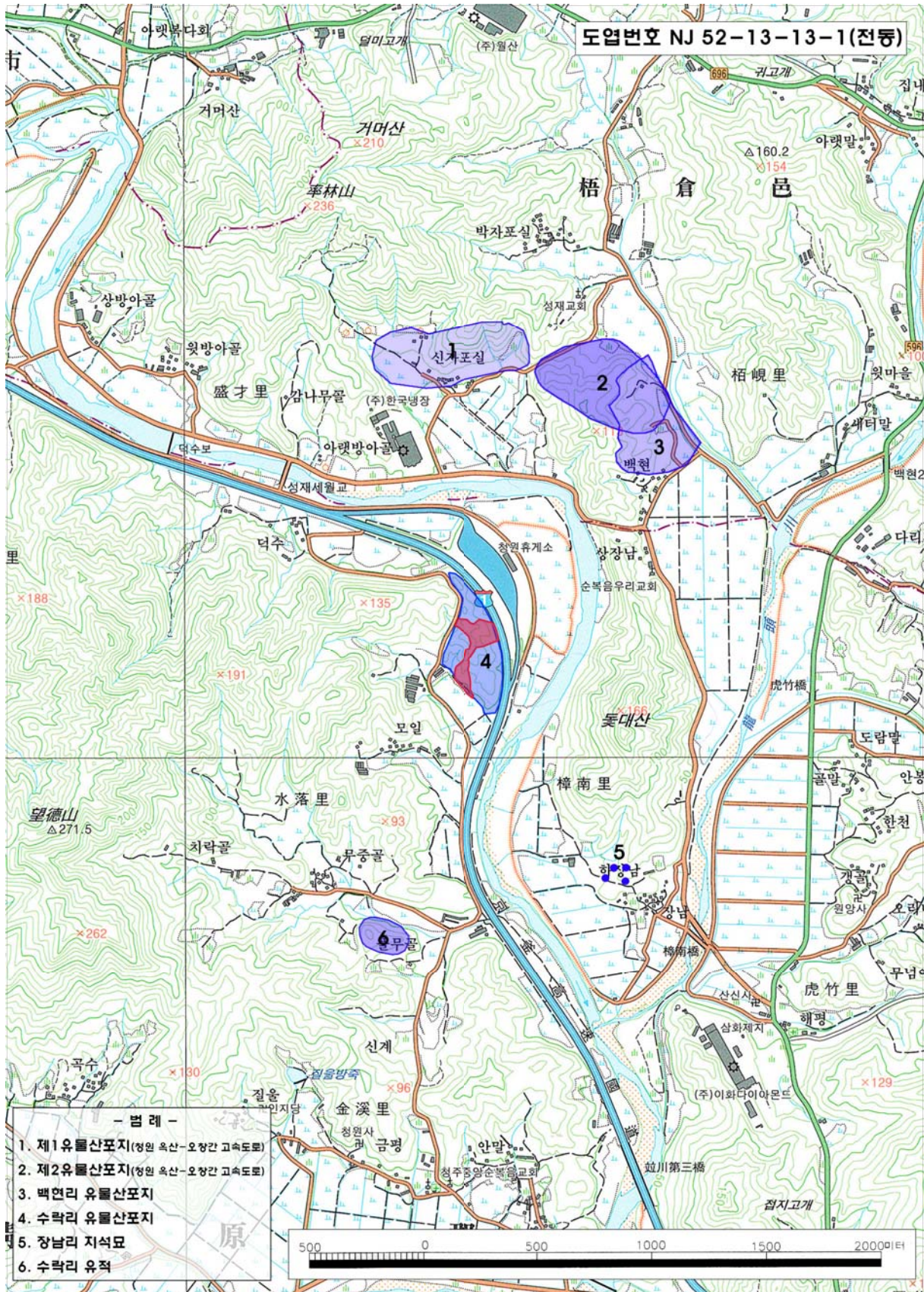
청주시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편마암류와 곳곳에 잔류되어 있는 흑운모 편암류, 이들이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층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¹⁾ 토양은 크게 6개의 토양군으로 구분되고, 사촌-상주 토양군, 식질토양인 화동-극락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토양군 등이 있다.

1) 나기창, 1990, 「지형과 지질」 『청원구지』 (청원구지 간행위원회) 19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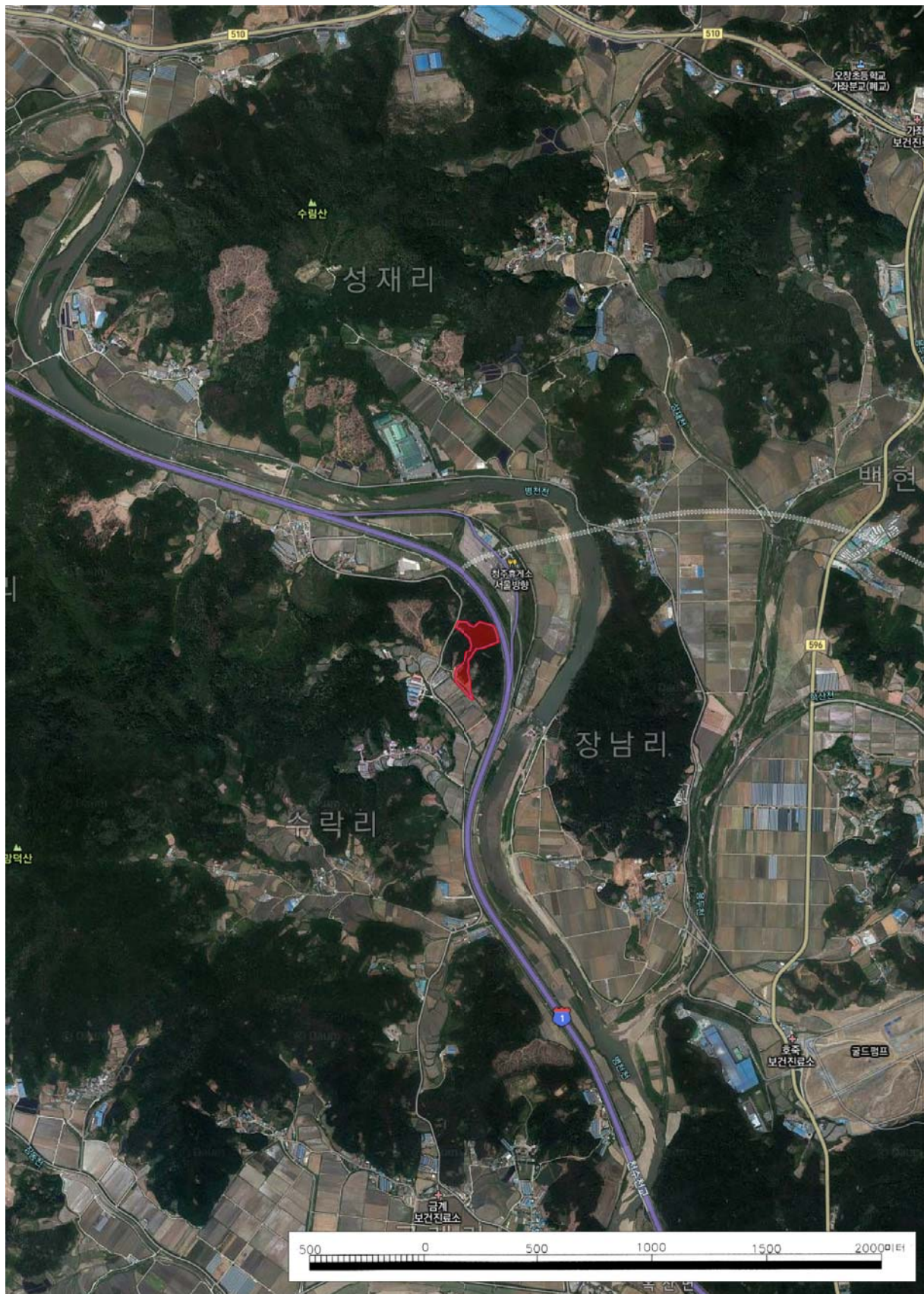
기후는 충청북도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형이 높은 동부지역은 서부의 저지대에 비해 특이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연 평균 기온은 11.5℃로 온난한 편이나 1월 평균기온은 -3.8℃, 8월은 25.2℃ 내외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29℃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위도에 비해 춥고 더운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강수량은 남동풍이 탁월한 3개월 동안은 연간 강수량의 55%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6.7% 정도이다 연 강수량은 1,246mm이다.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지도 4]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사진 1] 조사지역 위치(●;위성사진)



[지도 5] 조사지역 위치(●;1914년 제작)



[사진 2] 조사지역 위치(●;1954년도 항공사진)

2. 고고 환경

청주시는 금강의 상류지역으로 미호천과 병천천이 진천지역과 천안지역에서 흘러 청원군 강외면에서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미호천과 병천천 주변의 무심천, 초평천, 작천 등의 작은 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으로는 해발 50~15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인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호천 유적의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하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80년대 이후 부분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적이 보고되었으며,²⁾ 1998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주시』³⁾와 2000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원군』⁴⁾이 간행되어 전반적인 문화유적 분포양상이 밝혀졌다.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동굴유적과 한데유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동굴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동굴⁵⁾, 작은용굴유적⁶⁾, 청석굴유적⁷⁾이 있으며, 한데유적으로는 청원 샘골유적⁸⁾, 문산유적⁹⁾, 소로리 유적¹⁰⁾, 노산리유적¹¹⁾, 청주 봉명동유적¹²⁾, 울랑동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 미호천 상류지역인 진천지역에서 장관리유적¹³⁾과 송두리유적¹⁴⁾ 등이 발굴조사 되어, 금강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구석기문화의 유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유적¹⁵⁾, 옥산면 환희리 내안마을유적¹⁶⁾, 강외면 쌍청리유적¹⁷⁾과 청주 상당산성 남문밖유적¹⁸⁾이 있다. 쌍청리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 - 清州市, 槐山郡』; 1986.『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調査報告 第 17集); 金榮振, 朴相侑, 1990.『清原郡 文化遺蹟』(清州大學校 博物館); 이원복 외, 1992.『鎭川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朴瑱雨, 1993.『美湖川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禹鍾允, 1994.『금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Ⅰ)』『年報』2 (忠北大學校 博物館); 趙祥紀, 1994.『미호천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Ⅰ)』『年報』3 (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4.『清州科學産業團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清州市 文化遺蹟』.

3)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州市』(調査報告 第 58集).

4)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0.『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原郡』.

5) 李隆助, 1983.『清原 두루봉동굴 舊石器遺蹟 發掘調査 報告書(1)』(忠北大學校 博物館).

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청원 작은용굴유적』(調査報告 第105冊).

7)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8) 李隆助, 1979.『大清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9) 李隆助, 1981.『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 연구』(탐구당).

10) 李隆助, 禹鍾允 편, 2000.『清原 小魯里 舊石器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11)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清原 老山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清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진천 장관리유적』.

14) 中원문화재연구원, 2004.『진천 송두리 구석기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15) 李隆助, 1979.『大清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16) 朴瑱雨, 1993.『美湖川 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17) 申鍾煥, 1993.『清原 雙清里 住居址』(國立清州博物館).

1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7.『上黨山城 - 서장대 및 남문 외 유적지 조사보고』.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2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凸字形 돌출부시설이 보이는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특히 연속된 압인무늬가 특징적으로 베풀어지고 독특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른바 금강식토기로 설정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청원 궁평리유적¹⁹⁾, 내수리유적²⁰⁾, 황탄리유적²¹⁾, 송대리유적²²⁾과 청주 내곡동유적²³⁾, 향정동, 외북동 유적²⁴⁾, 비하동 유적²⁵⁾, 가정3지구유적²⁶⁾, 용암동유적²⁷⁾, 봉명동유적²⁸⁾이 있다.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유적²⁹⁾, 신봉동유적³⁰⁾, 송절동유적³¹⁾, 가정4지구유적³²⁾, 명암동유적³³⁾, 용담동유적³⁴⁾, 용암동유적³⁵⁾, 청원 주성리유적³⁶⁾, 송대리유적³⁷⁾, 상평리유적³⁸⁾, 남촌리유적³⁹⁾, 미천리유적⁴⁰⁾ 등이 있다.

이 밖에 현재의 충북지역은 삼국시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관방유적이 있다. 특히 청주시 부용면 일원에는 1개면에 10여개의 산성유적이 밀집하고 있으며, 최근 고구려 산성인 남성곡산성이 발굴조사되어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보은 삼년산성

19) 李隆助 外, 1994. 『清原 宮坪里 靑銅器遺蹟』(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산청 강루리, 청원 내수리』.

21)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黃灘里遺蹟』(연구총서 제 10집).

2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梧倉遺蹟』.

23) 車勇杰, 1986. 『清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24) 尹武炳, 1986. 『清州 香亭,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 『위책』.

25) 한국고고학회, 1974. 『청원 비하리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 3 : 김성명, 신종환, 1993. 『청주 비하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청주박물관).

26) 이용조, 2002. 『청주지역 선사문화』(청주문화원).

2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龍岩遺蹟 I~III』.

28) 車勇杰 외, 2004. 『清州 鳳鳴洞遺蹟(III)-IV地區 調査報告②』(忠北大學校 博物館).

29) 車勇杰 외, 2002. 『清州 鳳鳴洞遺蹟(I)-I地區 調査報告』(忠北大學校 博物館) ; 2002. 『清州 鳳鳴洞遺蹟(II)-IV地區 調査報告①』(忠北大學校 博物館).

30)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82年度 調査』; 1990.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90年度 調査』; 金成明 외, 1993. 『清州 新鳳洞 B地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史研究所) : 車勇杰 외, 1995.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6. 『清州 新鳳洞 古墳群 - 1995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외, 2002.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3.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車勇杰 외,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4. 『清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調査 報告書』 : 車勇杰, 趙祥紀 외,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93年度 發掘調査』(百濟文化開發研究所, 忠北大學校 博物館).

32) 車勇杰 외, 2002. 『清州 清州 佳景4地區 遺蹟(I)』(忠北大學校 博物館) : 禹鐘允 외, 2004. 『清州 清州 佳景4地區 遺蹟(II)』(忠北大學校 博物館).

33) 國立清州博物館, 2000. 『清州 明岩洞遺蹟(I) - 1998年度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清州博物館, 2001. 『清州 明岩洞遺蹟(II) - 1998年度 試掘 및 發掘調査 報告書』.

34) 國立清州博物館, 2001. 『清州 龍潭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3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龍岩遺蹟 I』.

3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清原 主城里 遺蹟』.

3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梧倉遺蹟』.

38) 김병모, 1986. 『청원 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39)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0. 『남촌리 유적』.

4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5. 『清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으로부터 진천 도당산성에 이르기까지 2~30리 마다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이 서로 상망하고 있어 신라가 경주 - 상주 - 보은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대략을 알려주고 있다.

청주시에는 모두 36개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방유적으로 지금까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은 정북동토성⁴¹⁾, 우암산토성, 당차산토성⁴²⁾, 부모산성⁴³⁾, 상당산성⁴⁴⁾, 청주읍성⁴⁵⁾과 남성곡산성⁴⁶⁾, 소재산성⁴⁷⁾, 낭비성⁴⁸⁾, 구라산성⁴⁹⁾, 양성산성⁵⁰⁾, 저산성⁵¹⁾ 등이 있다.

이처럼 청주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지방의 고고, 역사적인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연혁

삼한시대의 청주는 마한의 국읍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력들은 토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자료와 함께 백제시기의 청주 신봉동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런 자료들로 볼 때 3세기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자치적인 지배권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 항쟁기에 삼국간의 각축장이었다. 청주 정북동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비롯한 청원군의 여러 성터들이 백제시기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용면 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발굴조사 됨으로써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청주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진흥왕대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대세 속에서 6세기경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 문의(一牟山郡)가 이미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갔고 474년 이 곳의 양성산성(壤城山

4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清州 井北洞 土城 I -1997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清州 井北洞 土城 II -2000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4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43) 車勇杰 외, 1999.『清州 父母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4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車勇杰 외, 1997.『上黨山城』(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車勇杰 외, 1999.『上黨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上黨山城 - 城壁補修區間內 試, 發掘調査 報告書』.

45)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1.『清州邑城, 南石橋』.

46) 車勇杰 외, 2005.『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47) 車勇杰 외, 2005.『清原 芙蓉面地域 山城』(中原文化財研究院).

48) 車勇杰 외, 2001.『清原 狼臂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49) 車勇杰 외, 2001.『清原 謳羅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0) 車勇杰 외, 2001.『清原 壤城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車勇杰 외, 2001.『清原 壤城山城 貯水池 發掘調査 略報告書』(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1) 車勇杰 외, 1999.『清原 猪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城)이 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의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방어도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 또 한차례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청주 호족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기반세력이었지만 점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하였다. 그리하여 청주 호족들은 크게 친궁예세력과 친왕건세력으로 분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들 청주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광종때 설치한 『용두사지철당간기』(국보 제 41호)에 의하면 김(金), 손(孫), 경(慶), 한(韓)씨 등의 1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청주지역에는 한(韓), 이(李), 김(金), 곽(郭), 손(孫), 경(慶)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게 된다. 즉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중의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5) 12목이 폐지되고 10도로 나누어 12주를 두게 되자 청주는 중원도에 속한 전절군(全節軍)으로 불리는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다시 설치할 때 청주는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건국 초에 불리어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 지금의 청주시 문의면)과 목주군(木州郡 ;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 군과 진주(鎭州 ; 진천군), 전의(全義 ; 연기군 전의면), 청주, 도안(道安 ; 괴산군 도안면), 청당(靑塘 ;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 연기군), 회인(懷仁 ; 보은군 회남, 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 공주)와 홍주(洪州 ; 홍성군), 천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令官)을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川縣 ; 괴산군 청천면)이 있고 향은 2곳에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鄉 ; 대전 동면)과 덕평향(德坪鄉 ; 전의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 청주시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曲 ;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豐部谷 ;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閑身部谷 ; 괴산군 청천면)의 4곳이다.

조선 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의 우호적이었던 경복흥(慶復興)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충(鄭攄), 정탁(鄭擢), 3등 공신 이었던 한상경(韓尙敬)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監司兼牧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

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종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년(1449) 감사겸목제가 잠시 부활한 적이 있었다. 이후 세조 때에는 감사겸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제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1455) 군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익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익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익에 천안, 온양, 진의, 평택, 아산, 목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청주는 청주권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청주 지역은 몇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33년(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 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 군의 하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제 하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져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면서 충청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서 빠져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거 부(府), 군(郡), 면(面)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나머지 면은 청원군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지역이 속해 있는 옥산면 수락리는 망덕산에 폭포가 있었으므로 ‘무중골’이라 하였다. 수락은 정조 때부터 쓰인 이름이다. ‘수락’은 ‘무중골’에서 ‘무중’을 뜻을 빌어 표기한 이름으로, ‘수락’은 오늘날 ‘무중골’의 별칭과 법정리명 ‘수락리’와 통칭으로 함께 쓰인다. 수락리는 본래 청주군 서강외이상면 지역이었다. 1914년에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모일리를 병합하여 수락리라 해서 옥산면에 편입하였다.



[사진 3] 조사지역 위치(●;1968년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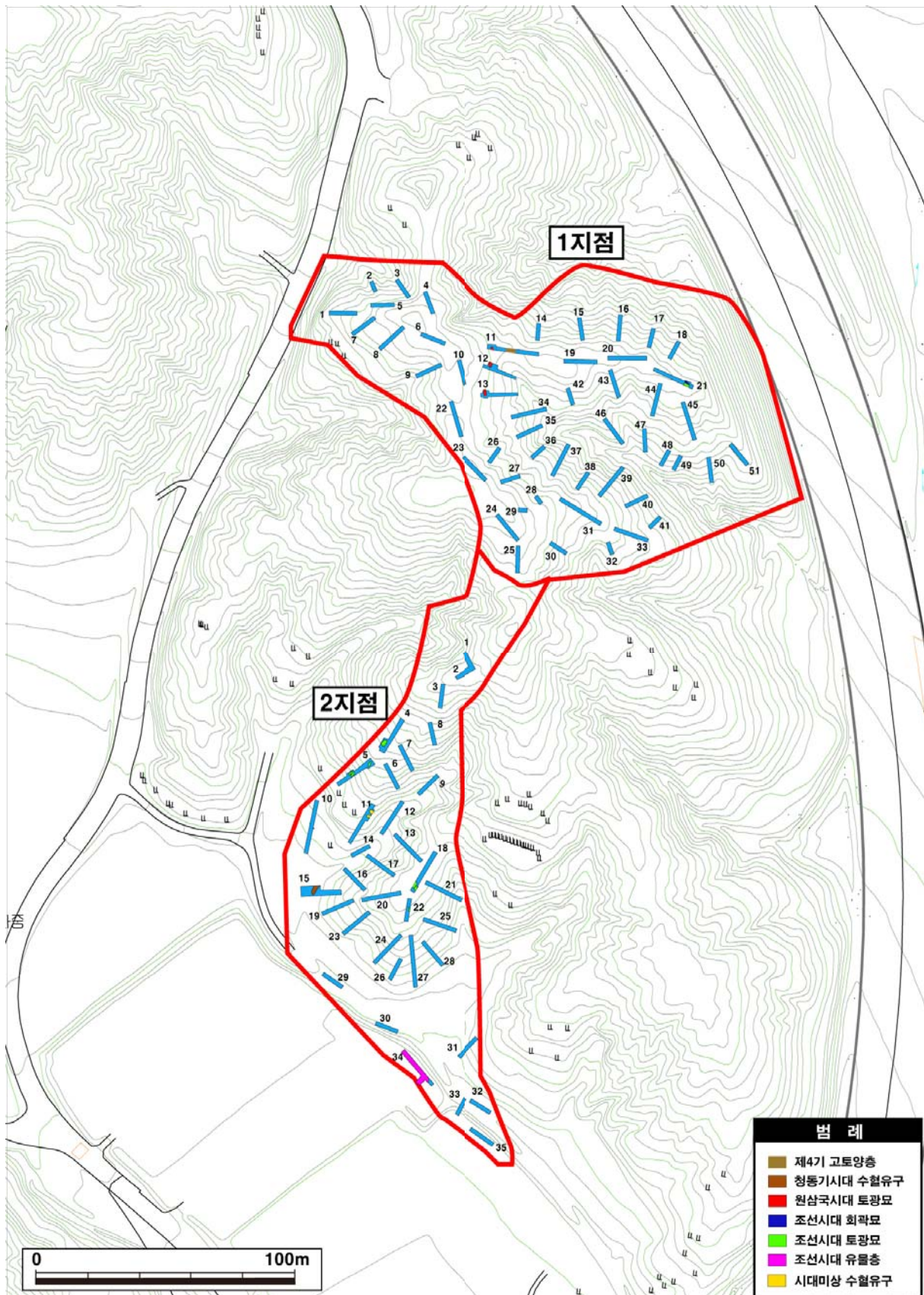
[사진 4] 조사 전 전경(2013년 12월)



[사진 5] 조사 후 원경



[사진 6] 조사 후 전경



[지도 6] 시굴트렌치 현황도

Ⅲ. 조사내용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유적(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로, 조사면적은 22,850㎡이다.

조사지역은 2011년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지표조사에서 지표에서 토기편이 수습되고 추정고묘가 찾아져 ‘수락리 유물산포지’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또 동쪽으로는 병천천이 남류하고, 천변을 따라 충적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대부분은 잡목과 수풀로 뒤덮인 자연산림지역이나 곳곳에 묘역 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남사면부 하단일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비교적 본래의 지형을 간직하고 있었다.

편의상 조사지역 내 중심에 위치한 정상부(해발 약82m)를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한 동향사면부와 도로(금계사정로)와 맞닿은 서향사면부를 1지점, 남향사면부를 2지점으로 구분하여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너비 2m의 트렌치를 1지점 51개, 2지점 35개 등 총 86개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1. 1지점

1지점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정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은 동향사면과 도로(금계사정로)와 접한 서향사면부를 포함한다.

동향사면부의 끝부분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절단되고, 사면의 날등일대는 비교적 넓고 완만한 반면 사면사이로 계곡이 깊게 형성되어 경사가 급한 편이며, 서향사면부는 민묘 조성 및 임도 개설 등으로 인해 지형훼손이 일부 진행된 상태이다.

총 51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내 정상부 일대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 제4기 고토양층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향사면의 날등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트렌치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지점에 설치한 트렌치 및 유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지점 트렌치 현황

Tr.	길이	너비	깊이	토층양상	유구 및 유물
1	12.1	2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2	4.4		0.1 ~ 0.2		
3	10.5		0.1 ~ 0.3		
4	10.6		0.2 ~ 0.3		
5	9.9		0.1 ~ 0.2		
6	10.1		0.1 ~ 0.3		
7	12.2		0.2 ~ 0.3		
8	18.4		0.1 ~ 0.5		
9	18		0.1 ~ 0.5		
10	10.3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11	21		0.2 ~ 0.5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토광묘 1기 제4기 고토양층
12	14.9		0.2 ~ 0.3		토광묘 1기
13	16.7		0.2 ~ 1.1		토광묘 1기
14	9.7		0.1 ~ 0.2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15	14.5		0.1 ~ 0.3		
16	17.7		0.2 ~ 0.6		
17	14.3		0.1 ~ 0.4		
18	9.7		0.1 ~ 0.3		
19	15.2		0.1 ~ 0.2		
20	18.2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1	18.7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회곽묘 1기 토광묘 1기
22	16.7		0.2 ~ 0.4		
23	12.3		0.1 ~ 0.3		
24	15.2		0.1 ~ 0.2		
25	10.9		0.1 ~ 0.2		
26	9.3		0.2 ~ 0.8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7	10.3		0.2 ~ 0.6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8	5.4		0.2 ~ 0.7		
29	5.5		0.4 ~ 0.7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0	9.1		0.2 ~ 0.6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1	19.9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2	6.3		0.1 ~ 0.3		
33	16.5		0.2 ~ 0.4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4	16.4		0.5 ~ 1.7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5	15		0.7 ~ 1.0		
36	8.5		0.7 ~ 0.8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7	20.7		0.3 ~ 0.8		
38	10.1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9	24.7		0.2 ~ 0.6	표토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40	15.5		0.6 ~ 1.1	표토층-갈색모래질찰흙층-적갈색모래질점토층- 풍화암반층	
41	8.6		0.2 ~ 0.4	표토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42	14.3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43	12.2		0.1 ~ 0.3		
44	15.6		0.1 ~ 0.2		
45	17.7		0.1 ~ 0.3		
46	10.1		0.1 ~ 0.2		
47	10.4		0.1 ~ 0.4		
48	8.1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49	6.3		0.3 ~ 0.4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50	14.5		0.3 ~ 2.0		
51	13.4		0.1 ~ 0.3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사진 7] 1지점 전경



[사진 8] 1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Tr. 6



Tr. 11



Tr. 11(원삼국시대 토광묘)



Tr. 12(원삼국시대 토광묘)



Tr. 13(원삼국시대 토광묘)



Tr. 16



Tr. 21



Tr. 21(조선시대 회곽묘, 토광묘)

[사진 9] 1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Tr. 23



Tr. 27



Tr. 31



Tr. 35



Tr. 39



Tr. 44



Tr. 48



Tr. 51

[사진 10] 1지점 트렌치 모습

2. 2지점

2지점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향하는 사면부를 포함하며, 두 갈래로 완만하게 뻗은 능선일대와 그 사이로 발달한 급경사의 계곡부, 그리고 하단부에 인접한 발경작지로 이루어진다. 조사지역 내 곳곳에 민묘가 들어서 있었으나 조사시점에는 이장이 완료된 상태였다.

총 35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사면의 날등 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기(합장묘 2기, 단장묘 3기)와 함께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사면하단에 계곡부와 접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한편 2지점 내 최남단 경계부근에 있는 발경작지에 설치한 34번 트렌치에서 조선시대 토기편과 자기편이 혼합된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된다. 이 조선시대 유물층은 노출범위가 조사지역 경계와 인접한 경작지(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됨)를 따라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 대부분의 트렌치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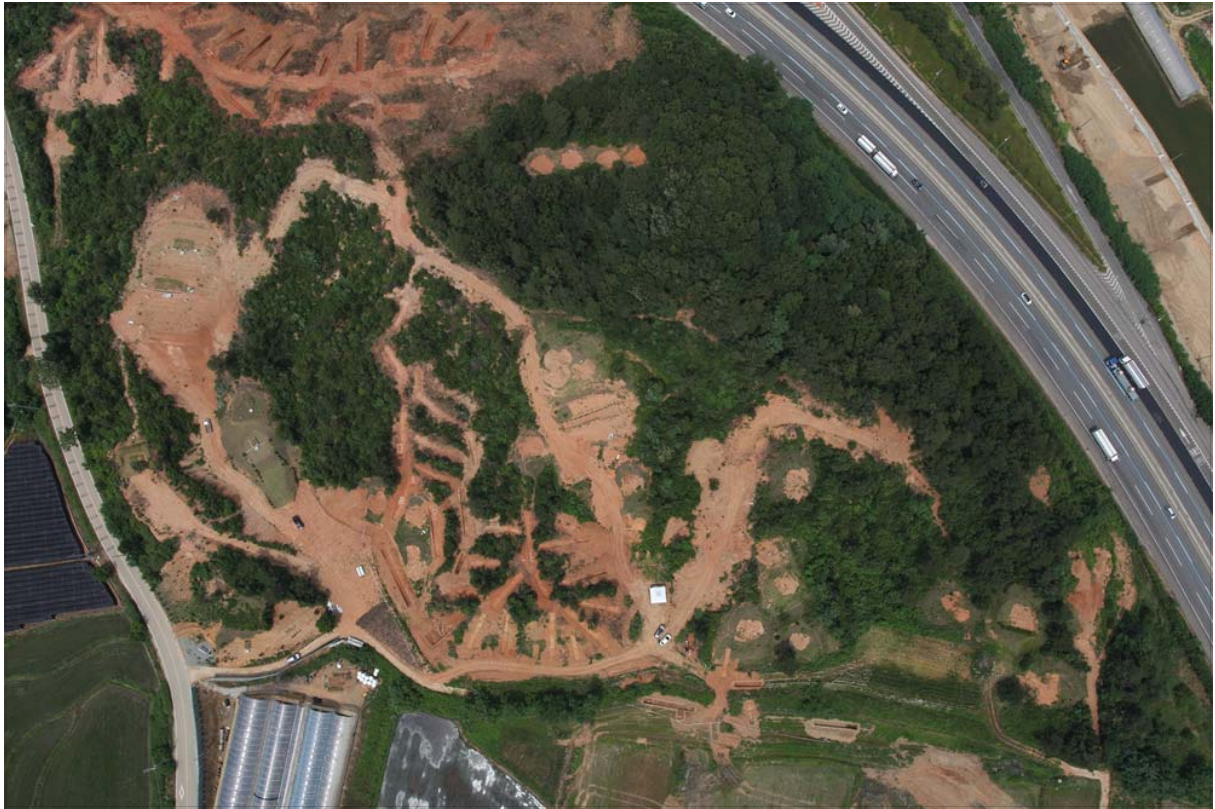
2지점에 설치한 트렌치 및 유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1] 2지점 원경

[표 2] 2지점 트렌치 현황

Tr.	길이	너비	깊이	토층양상	유구 및 유물
1	8.6	2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2	9.4	2	0.1 ~ 0.2		
3	14.2	2	0.1 ~ 0.2		
4	14.8	2	0.1 ~ 0.2		토광묘 1기
5	17.6	2	0.2 ~ 0.4		토광묘 2기
6	13.4	2	0.1 ~ 0.3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7	13.2	2	0.1 ~ 0.2		
8	9.7	2	0.1 ~ 0.2		
9	11.1	2	0.2 ~ 0.4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수혈유구 2기
10	21.8	2	0.2 ~ 0.8	표토층-암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11	18.2	2	0.2 ~ 0.9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12	15.5	2	0.4 ~ 0.6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13	10.1	2	0.1 ~ 0.2		
14	8	2	0.6 ~ 1.7		
15	16.6	2	0.3 ~ 1.2	표토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수혈유구 1기
16	12	2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17	11.9	2	0.1 ~ 0.2		
18	17.3	2	0.1 ~ 0.4		
19	14.3	2	0.1 ~ 0.3		
20	16.2	2	0.1 ~ 0.3		
21	16.8	2	0.1 ~ 0.5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토광묘 1기
22	10.1	2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3	14.7	2	0.2 ~ 0.8	표토층-적갈색모래층-회백색모래층-풍화암반층	
24	18	2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25	19.3	2	0.1 ~ 0.8		
26	10.8	2	0.1 ~ 0.3		
27	22.6	2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8	15	2	0.1 ~ 0.4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9	7.8	2	1.0 ~ 3.5	표토층-황갈색모래층-갈색모래층	
30	11	2	1.5 ~ 2.0	표토층-황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1	11.1	2	0.1 ~ 0.6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2	9.5	2	1.0 ~ 1.2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33	9.7	2	0.3 ~ 3.0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 암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34	14.6	2	0.2 ~ 0.9	표토층-회갈색모래층-암갈색모래층- 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조선시대 유물층
35	14.7	2	0.8 ~ 1.8	표토층-황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 암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사진 12] 2지점 전경



[사진 13] 2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사진 14]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Tr. 15(청동기시대 수혈유구)



Tr. 15(청동기시대 무문토기)



Tr. 18(조선시대 토광묘)



Tr. 22(조선시대 토광묘)



Tr. 26



Tr. 32



Tr. 40(조선시대 유물층)



Tr. 40(조선시대 유물층)

[사진 15]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 또는 유물 출토모습

Ⅳ. 조사결과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에 대한 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22,850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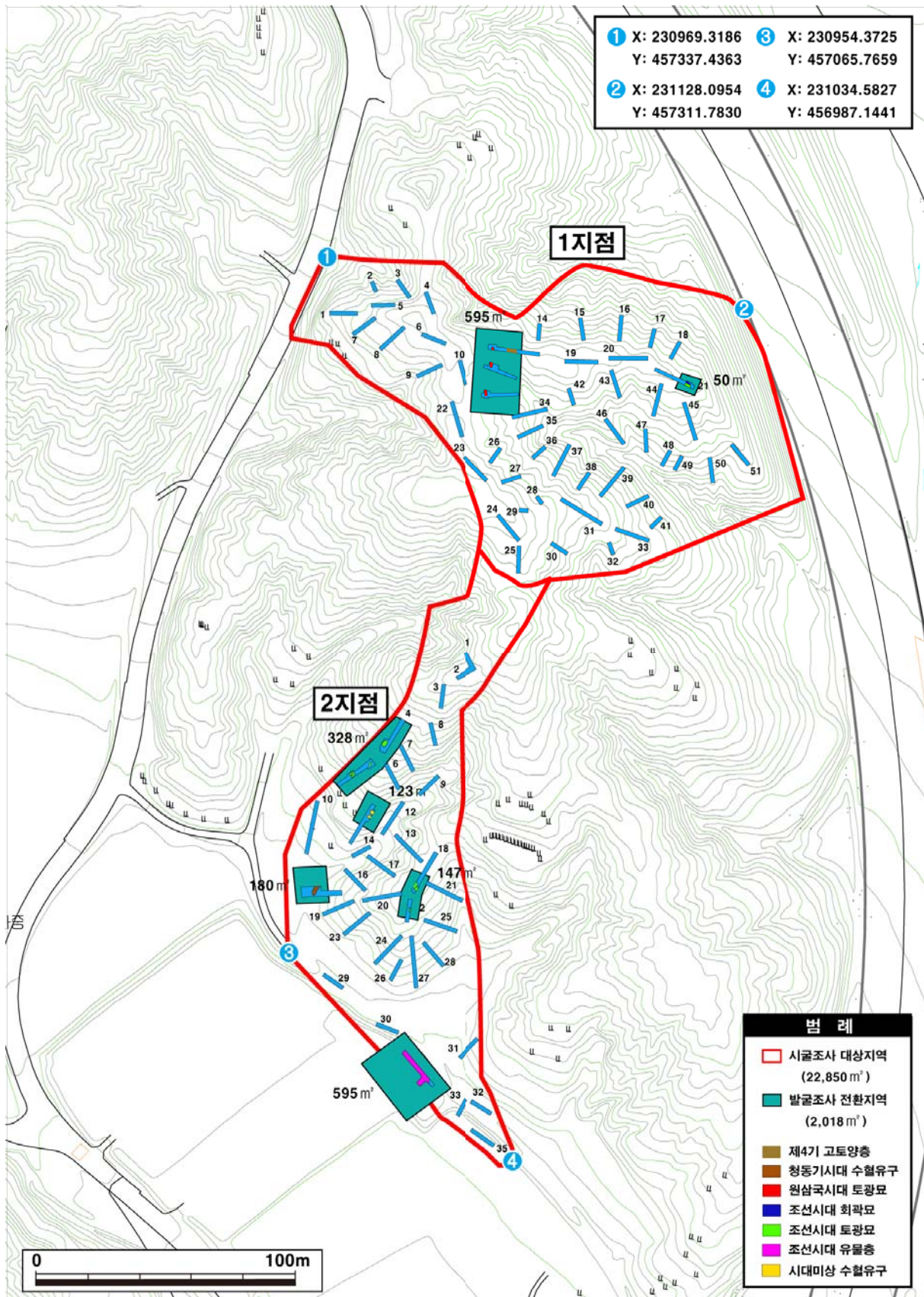
1. 조사지역은 수락리 유물산포지의 일부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 남서쪽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내 중앙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트렌치 86개(1지점 51개, 2지점 35개)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하였다.

2.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양상은 표토층 - 갈색모래층 - 풍화암반층으로 비교적 단순한 퇴적양상을 보이며, 일부 계곡부에서는 모래층 아래로 모래질찰흙층이 두텁게 퇴적된 경우도 있다.

3. 1지점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정상부 주변의 완만한 사면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와 제4기 고토양층,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향사면의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4. 2지점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남향사면의 날등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기(합장묘 2기, 단장묘 3기)와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고, 사면하단부와 계곡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바닥편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1기가 확인 되었다. 또 2지점 내 남쪽 경계부근에서 조선시대 토기편과 자기편이 혼합된 조선시대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는데, 그 노출범위가 조사지역 경계와 인접한 경작지(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됨)를 따라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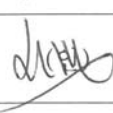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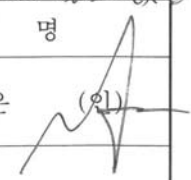
5. 현장 조사기간 중 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유적의 향후 조사방향과 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자문회의(2016년 06월 17일 개최, 차용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양시은 충북대학교 교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공사시행 전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발굴전환범위를 설정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조성시기를 규명하여야 하며,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우리 조사단은 [지도 7]과 같이 발굴전환필요범위(총 7개 지점, 2,018m²)를 설정하였으며, 조사현장에 발굴대상범위를 표시하고 원상복구를 실시한 후 현장을 철수하였다.



[지도 7]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²)



[사진 16] 학술자문위원회 개최모습(2016.06.17.)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2,850㎡	조사 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 6. 8. ~ 6. 17. (실조사일수 8일)	회의일시	2016. 6. 17. 오전 09시
유적 현황 및 성격	1.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86개의 밭농구덩은 석령 능선 유구 북쪽 면부를 지나한계리 1리구(51번)에서 11·12·13번구덩이에서 유물산포지 토광묘 유구 3개, 2번구덩이에 회곽기를 포함한 것으로, 11·19번 구덩이 사이에서 약간의 고토양 층이 발견됨. 2. 2리구(35번)의 경우 4·5번에서 토광 1, 2기, 11번에서 석대비상의 수혈 2기, 15번에서 채형기시대 토기 지붕기 포함된 수혈, 18번에서 토광, 22번에서 토광묘, 34번의 경작층 (흙은 바위이끼) 등 유물 포함 층이 나타남.		
조사기관 의견 검토	전반방파리 유구 개축을 위해 적절히 조사구덩은 석령 하고, 유구 성격은 토당히 파악함.		
추가 의견	1. 1리구 및 2리구의 토광묘 및 상하관련이 작은 능선상의 3리구덩이에 있는 수혈은 파악된 유구미 대해 밭농구덩이를 실시하여야 함 것임. 2. 1리구의 11·12·13 구덩은 유구개축 범위를 포함 변경에 포함 (바위까지) 확장 조사가 필요함. 3. 포지구의 4·5번, 11번의 경우 밭농 유물 포함, 18·22 구덩은 석령 확장 조사가, 15·34(채형기시대·동세 퇴적층)번 구덩유구는 충분히 밭농을 확대 하여 조사 (변경 또는 바위) 하고 바위 범위는 추가조사 필요 있음.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양 시 은  (인)
2016년 6월 17일			

조사기관 의견서

1.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2. 조사유형 : 시굴조사
3.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4. 조사지역의 위치와 면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 면적 : 22,850m²

5. 조사기간 : 2016년 6월 8일~6월 17일(실조사일수 8일)
6. 조사의뢰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7.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8.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수락리 유물산포지의 일부 지역으로,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을 크게 중앙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 86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하였다.
- 1지점 내 정상부 주변의 완만한 사면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와 제4기 고토양층이, 동향사면의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 2지점 내 남향사면의 날등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기(합장묘 2기, 단장묘 3기)와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고, 사면하단부와 계곡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바닥편이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또 2지점 내 남쪽 경계에서 조선시대 토기·자기편이 혼합된 조선시대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6월 17일에 학술자문회의 개최한 결과, 유구가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로 전환하고,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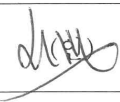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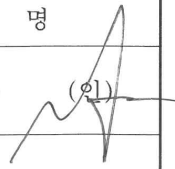
9. 조사기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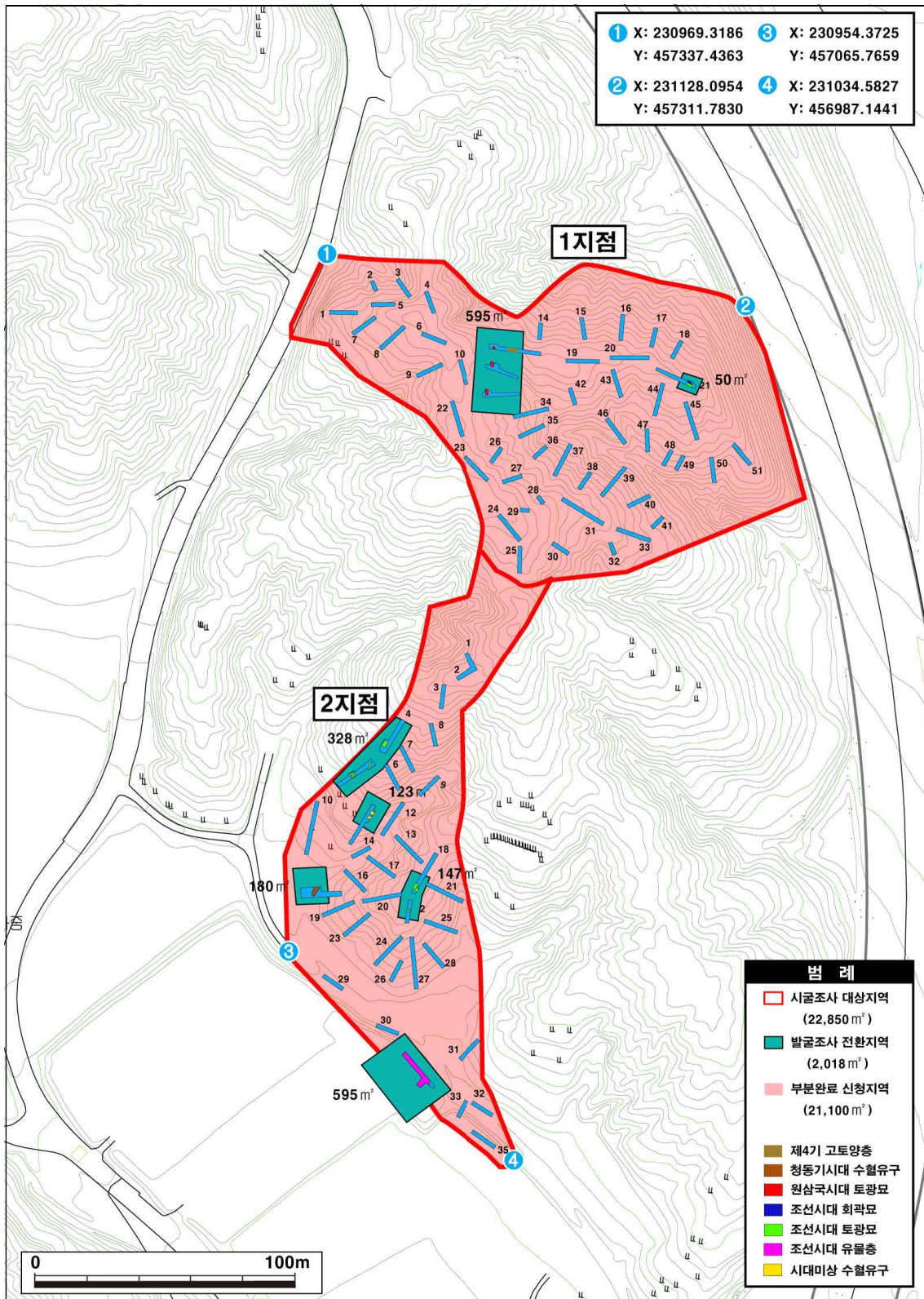
-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전환범위(총 7개 지점, 2,018m²)를 설정하고, 공사시행 전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조성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 공사를 실시하여야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2,850m ²	조사 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 6. 8. ~ 6. 17. (실조사일수 8일)	회의일시	2016. 6. 17. 오전 09시
유적 현황 및 성격	1.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86개의 밭농구덩은 석령 하역 유구 부근 대부분 조사한 결과 1지구(51개)에서 11·12·13번구덩이에서 유물출토가 두드러진 유구 3개, 2번구덩이에서 회색1기를 포함 함장묘, 11·19번 구덩이 사이에 약간의 고토임을 확인 할 수 있음. 2. 2지구(35개)의 경우 4·5번에서 토랑 1, 2기, 11번에는 석대지상의 수면2기, 15번에서 채동기시대 토기 지부가 포함 된 수면, 18번에서 토랑, 22번에서 토랑묘, 34번의 경각중 남은 바위이끼 등세유물 포함 함이 나타남.		
조사기관 의견 검토	조사방법과 유구 개수를 위해 적절히 조사구역을 선정 하고, 유구 개수를 토당히 파악함.		
추가 의견	1. 1지구 및 2지구의 토랑묘 및 상층관련이 적은 등세유물 2지구 구덩이에서 수면은 파악된 유구에 대해 밭농구덩이를 실시하여야 함 것임. 2. 1지구의 11·12·13 구덩은 채동기시대 범위를 포함 함장묘에 포함 된 바위이끼 포함 장묘가 됨. 3. 2지구의 4·5번, 11번의 경우 범위 및 범주확장, 18·22 구덩은 토랑 함장묘가 됨, 15·34(채동기시대 등세유물)번 구덩유구는 등세유물 포함 함장묘가 됨.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양 시 은  (인)
2016년 6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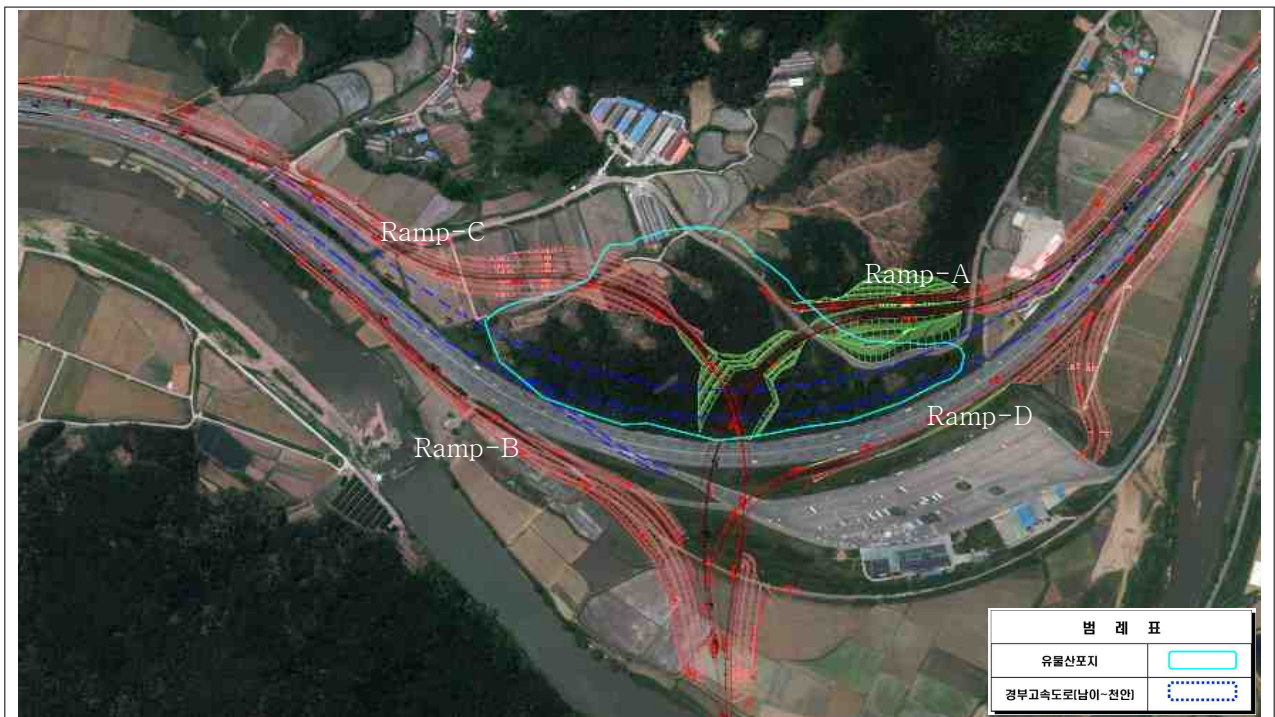
[지도 1]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²) 및 부분완료 대상범위(21,100m²)

[공사 계획서]

□ 금회 발굴조사 부분 발굴완료 구간

🟡 수락리 유물산포지 구간 (22,850m²)

1) 현 황



2) 공사추진 계획 (옥산분기점)

공종		공사기간	공사내용	비 고
토공사	절토	‘16.06.01~16.10.31	절토공사	
	성토	‘16.06.01~16.10.31	성토공사	
배수공사		‘16.06.01~16.10.15	횡배수관공사	
교량공사		‘16.09.01~17.06.15	교량 하부 및 상부공사 (총 3개소, 연장 684m)	
포장공사 및 부대공사		‘17.07.01~17.09.30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기 타		‘17.06.01~17.10.30	전기 및 통신공사 등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명 칭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사업자등록번호	104-85-21451		
	성 명	박 정 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273		연락처	070-4421-8690		
② 대상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명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매장문화재의 종류	유물산포지, 분묘		발굴(현상변경) 면적	22.850m ²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자연산림지역으로 곳곳에 이장묘가 산재함.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③ 신청 사유		구제조사		④ 건설공사 면적	1,422,000m ²		
⑤ 허가 사항	허가번호	제2016-0716호					
	발굴면적	22,850m ²		발굴비용	32,500,000원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8일간 (*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기 관 명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대 표 자	이 용 조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0번길 25 / (전화번호) 043-264-4191				
		조사단장	우 중 윤		책임조사원	손 명 수	
⑥ 변경사유		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다수의 원삼국시대 또는 조선시대 토광묘와 함께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및 조선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어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전환범위를 설정한 후 공사시행 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형성시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2,018m ²		추가 발굴비용	133,100,000원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부터 30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전화번호) 043-264-4191					
	발굴조사단	단 장		우 중 윤			
		책임조사원		손 명 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7월 일 신 청 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변경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 사진						



[v] 발굴조사 [] 현상변경 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조사기관	기관명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전화번호 : 043)-264-4191 팩스번호 : 043)-264-4194 전자우편 : huguduk@naver.com
	조사단	조사단장 우 종 윤	
		책임조사원 손 명 수	
		조사원 윤 병 일	
		준조사원 한 민 희	
		보조원 홍 기 택	
조사 목적 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다수의 원삼국시대 또는 조선시대 토광묘와 함께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및 조선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어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형성시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조사 유형 [] 시굴 [v] 정밀발굴	

조사 경위

- 문화재 지표조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시굴조사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6.8.~6.17., 실조사일수 8일) - 허가번호 제2016-0716호

조사방법

- 1)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층위별 전면 제토를 실시하고 유구의 평면형태·분포양상을 파악하며, 기준단면을 설치하여 유적의 퇴적양상을 파악한다.
- 2) 조사 중 유적의 형성과정과 연대측정을 위해 자연과학시료를 채취하여 향후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3) 제토작업은 입지조건에 맞춰 동일층위의 문화층 상면이 확인될 때까지 실시한다.
- 4) 제토작업 완료 후 확인된 유구 등은 주변에서 공반되는 유물과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성연대 및 그 성격을 규명한다.
- 5) 유구는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정밀 실측(축척 1/10 또는 1/20)과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며, 조사의 전반에 관한 내용은 조사일지에 기록, 조사내용은 개인 야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 6) 조사된 내용으로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 7) 기타 유적의 세부적인 조사는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계획서상의 일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조사비용 (총액) 133,100,000원	직접인건비 30,269,364원 (비중 22.7%)	직접경비 43,440,405원 (비중 32.6%)
	각종 경비 31,782,832원 (비중 23.9%)	학술료 15,507,399원 (비중 11.7%)
	그 밖의 비용 12,100,000원 (비중 9.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발굴조사 [] 현상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7월 일

신 청 인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위치도 및 근경·원경 사진 2.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 대상지역의 상세 조사계획(트렌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3. 비용산출 상세 명세서(조사 인력 투입 내용, 직접경비의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을 포함합니다)
------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발 굴 조 사 계 획 서



2016.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발 굴 조 사 계 획 서

□ 조 사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발굴조사

□ 유적위치와 면적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면 적 : 2,018m²

□ 조사목적

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다수의 원삼국시대 또는 조선시대 토광묘와 함께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및 조선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어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형성시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 조사경위

○ 문화재 지표조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시굴조사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6.8.~6.17., 실조사일수 8일) - 허가번호 제2016-0716호

□ 의뢰기관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우 중 윤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윤 병 일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한 민 희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홍 기 택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조사방법

가. 조사방법

- 1)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층위별 전면 제토를 실시하고 유구의 평면형태·분포양상을 파악하며, 기준단면을 설치하여 유적의 퇴적양상을 파악한다.

- 2) 조사 중 유적의 형성과정과 연대측정을 위해 자연과학시료를 채취하여 향후 발굴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3) 제토작업은 입지조건에 맞춰 동일층위의 문화층 상면이 확인될 때까지 실시한다.
- 4) 제토작업 완료 후 확인된 유구 등은 주변에서 공반되는 유물과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성연대 및 그 성격을 규명한다.
- 5) 유구는 상세한 기록을 위하여 정밀 실측(축척 1/10 또는 1/20)과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며, 조사의 전반에 관한 내용은 조사일지에 기록, 조사내용은 개인 야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 6) 조사된 내용으로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 7) 기타 유적의 세부적인 조사는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 조사 계획서상의 일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 조사일정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실조사일수 30일)

일 수 내 용	10	20	30	40	50
구획 및 제토작업					
유구내부 조사					
사진촬영 및 실측					
전문가 검토회의(학술자문회의)					
보완조사					
약보고서 작성, 제출	현장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다. 조사내용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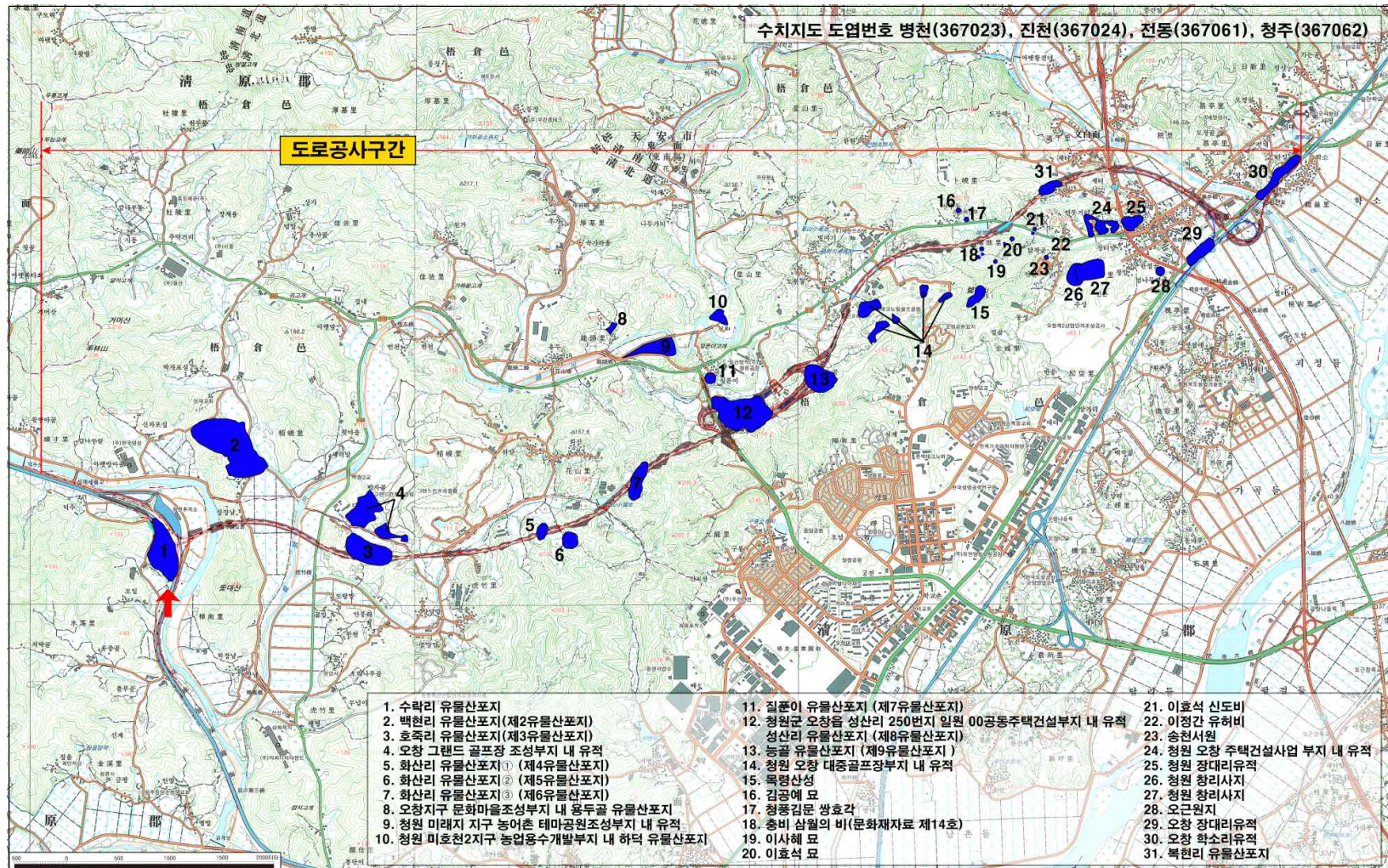
- 1) 사진촬영 : 조사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사진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 2) 도면작성 : 배치도는 1/100, 유구와 토층도면은 1/20의 축척으로 도면화한다.
- 3) 야장기록 : 향후 보고서 작성작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의 전반에 관한 내용은 조사일지에 매일 기록한다.

☐ **소요예산** : 일억삼천삼백일십만원정(₩133,100,000원)-VAT 포함금액

☐ **발굴조사 보고서** : 현장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기 타

- 가. 출토유구(유물)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 나. 발굴조사에서 당초 계획된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다. 조사 중 알게 된 특수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금번 발굴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



[사진 1] 조사 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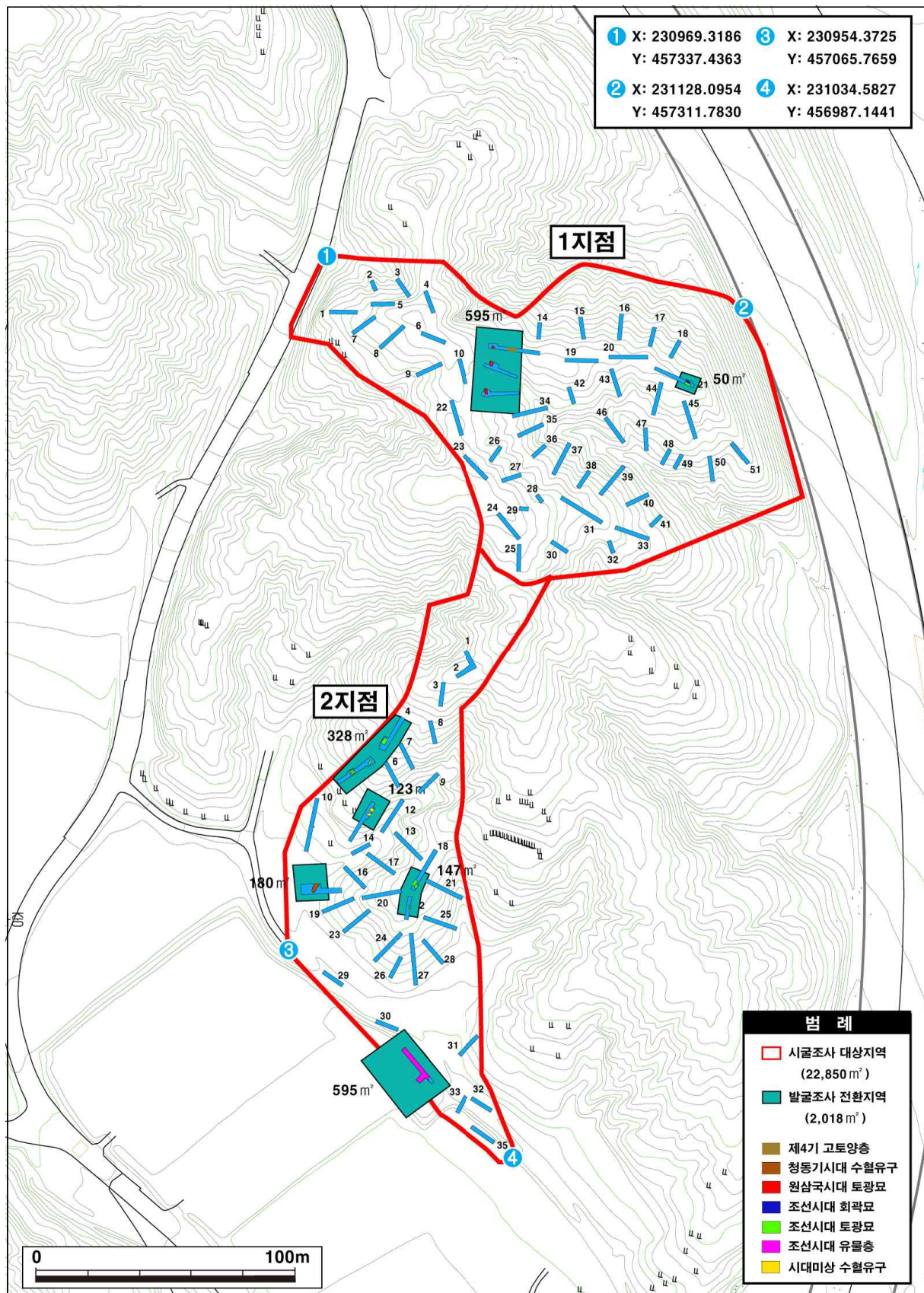
[사진 2] 조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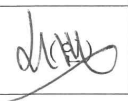
[사진 3] 1지점 근경(유구노출모습)



[사진 4] 2지점 근경(유구노출모습)



[지도 2]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²)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2,850m ²	조사 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 6. 8. ~ 6. 17. (실조사일수 8일)	회의일시	2016. 6. 17. 오전 09시
유적 현황 및 성격	1.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8개의 밭농구덩은 석령 11번 유구 북쪽 편부를 둘러싼 것으로 1지구(51개)에서 11·12·13번 구덩이에서 유물산포지 토양표 유구 3개, 2번 구덩이에서 회곽 1기를 포함 확장으로, 11·19번 구덩이 사이에 양쪽의 근방을 총 11개 포함. 2. 2지구(35개)의 경우 4·5번에서 토양 1, 2기, 11번에서 4대까지의 수혈 2기, 15번에서 채층기시대 후기 지붕기 포함된 수혈, 18번에서 토양, 22번에서 토양표, 34번의 경각층 등은 바로이기에 중세유물 포함함이 나타남.		
조사기관 의견 검토	전반방벽과 유구개착을 위해 적절히 조사구덩은 석령 하고, 유구 개착을 토양히 파악함.		
추가 의견	1. 1지구 및 2지구의 토양표 및 상층부면이 작은 농작물의 1지구에서 있는 수혈은 파악된 유구에 대해 밭농구덩은 실시하여야 함 것임. 2. 1지구의 11·12·13 구덩은 유구개착 범위를 포함 변적이 포함된 바로이기에 확장 조사가 필요함. 3. 토지구의 4·5번, 11번의 경우 변이 및 복확장, 18·22 구덩은 변이 확장 조사가, 15·34(채층기시대 중세회곽층)번 구덩이는 농작물 범위를 확대 하여 조사 (별리필시 변이) 하고 바로이 변이는 추가조사 필요함.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양 시 은  (인)
2016년 6월 17일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2016.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목 차

I. 조사개요	5
II. 조사지역의 환경	7
1. 자연·지리 환경	7
2. 고고 환경	13
3. 연혁	15
III. 조사내용	21
1. 1지점	21
2. 2지점	26
IV. 조사결과	31

지도 차례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금번 시굴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	6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7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8
[지도 4]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9
[지도 5] 조사지역 위치(1914년 제작)	11
[지도 6] 시굴트렌치 현황도	20
[지도 7]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 ²)	32

표 차례

[표 1] 1지점 트렌치 현황	22
[표 2] 2지점 트렌치 현황	27

사진 차례

[사진 1] 조사지역 위치(위성사진)	10
[사진 2] 조사지역 위치(1954년도 항공사진)	12
[사진 3] 조사지역 위치(1968년도 항공사진)	18
[사진 4] 조사 전 전경(2013년 12월)	18
[사진 5] 조사 후 원경	19
[사진 6] 조사 후 전경	19
[사진 7] 1지점 전경	23
[사진 8] 1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23
[사진 9] 1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24
[사진 10] 1지점 트렌치 모습	25
[사진 11] 2지점 원경	26
[사진 12] 2지점 전경	28
[사진 13] 2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28
[사진 14]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29
[사진 15]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 또는 유물 출토모습	30
[사진 16] 학술자문위원회 개최모습(2016.06.17.)	34

I. 조사개요

□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 조사유형 : 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 조사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 면 적 : 22,850m²

□ 조사경위

○ 문화재 지표조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인해 시점부인 옥산분기점에 대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내 포함된 ‘수락리 유물산포지’ 22,850m²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조사기간 : 2016. 06. 08. ~ 06. 17.(실조사일수 8일)

□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우 종 윤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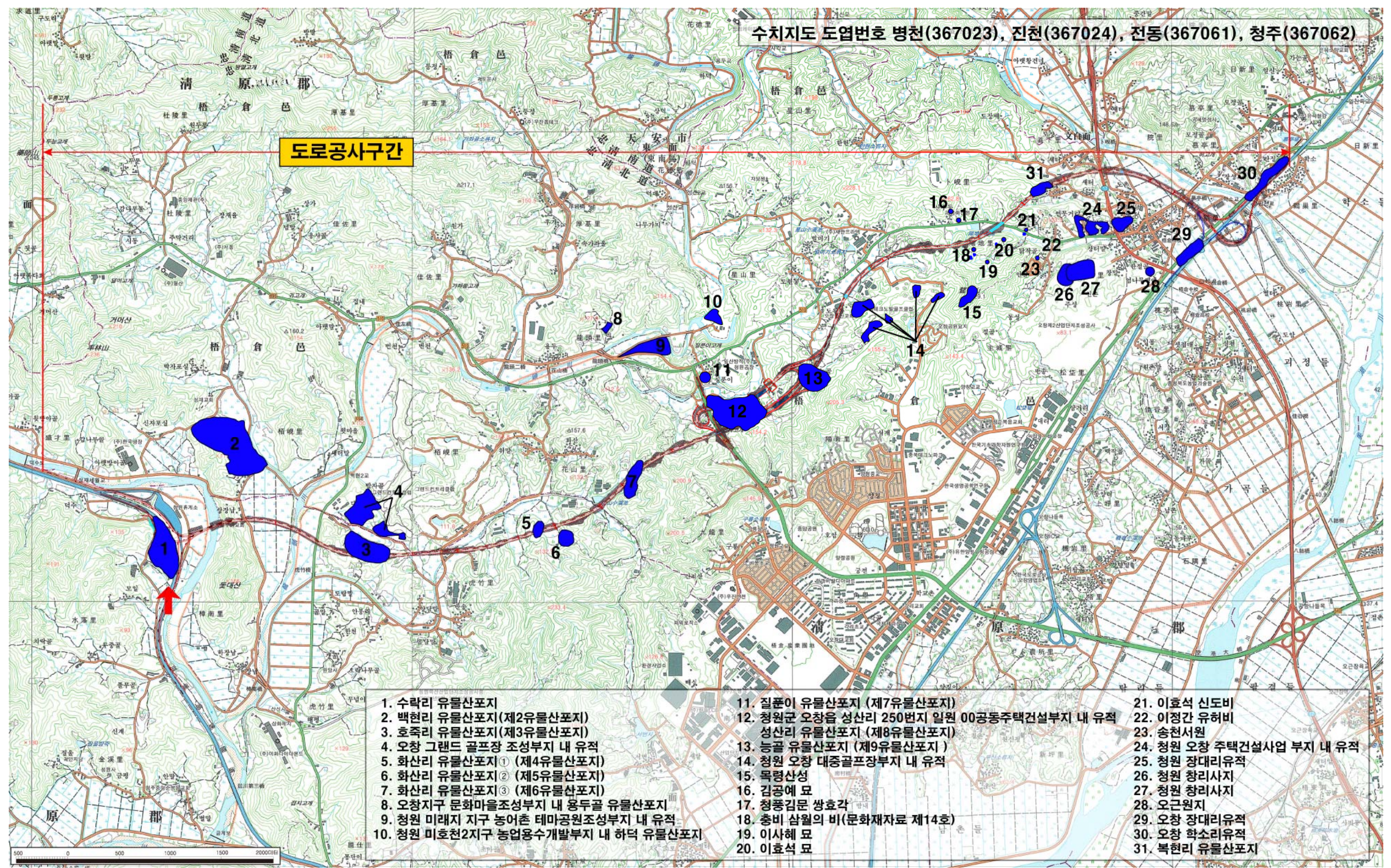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윤 병 일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한 승 철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오오타니 카오루((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홍 기 택((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금번 시굴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분포도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 지리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22,850㎡이다. 조사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또 동쪽으로는 병천천이 남류하고, 천변을 따라 충적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청주시는 충북의 중서부에 자리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증평군,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남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연기군, 북쪽으로는 진천군, 괴산군과 접하고 있으며, 중앙부에 자리한 청주시를 감싸고 있다. [지도 2참조]



[지도 2]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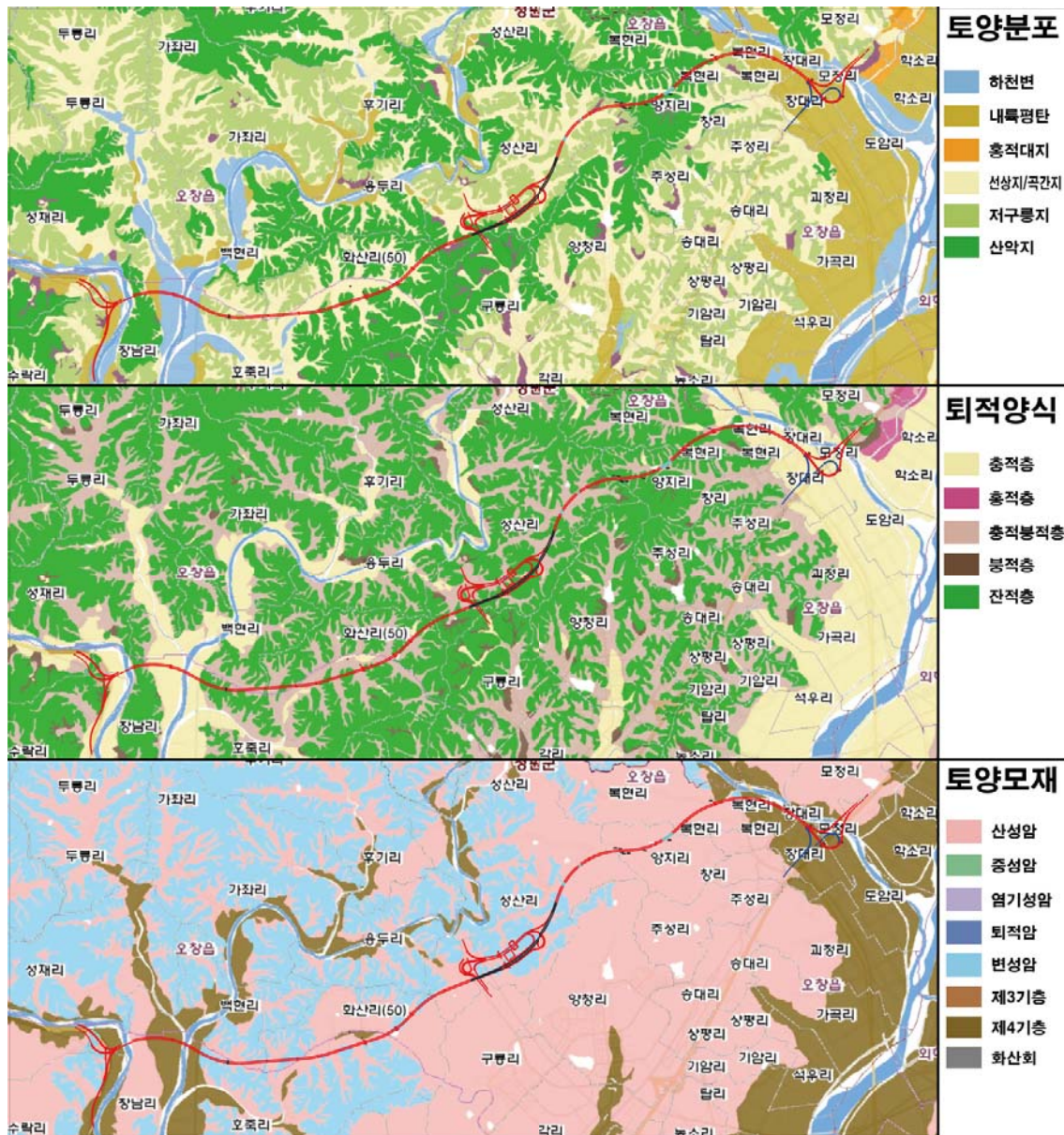
청주시의 지형은 전체로 보아 동고서저형으로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야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구성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의 노령산맥은 차령산맥과 옥갑산에서 분기하여 정남으로 뻗어내려 백마령, 보광산, 칠보산을 지나 미원면의 좌구산에서 미동산, 국사봉, 피반령, 샘봉산을 지나 옥천군의 환산과 대성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남쪽으로 문의의 작두산, 현도면의 구봉산등이 솟아 있다.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면서 서남방향으로 뻗어 소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다.

충북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오창평야와 미호평야를 관개하는 미호천은 음성군 부용산(644m) 남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 청원군 및 충남 연기군을 거치면서 백곡천, 보광천, 무심천, 천수천, 조천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지류들과 합류하여 신탄진까지는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에서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서해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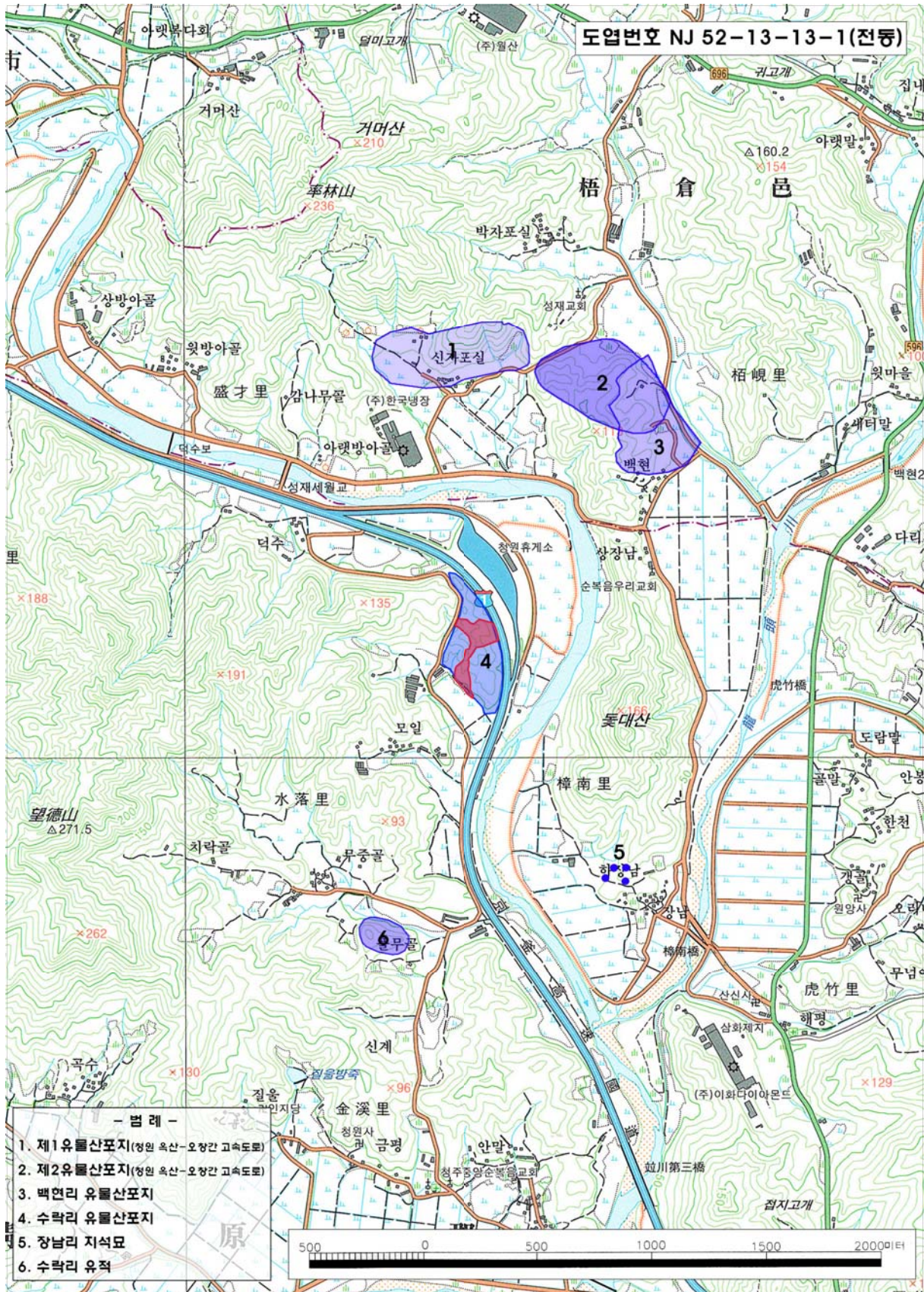
청주시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편마암류와 곳곳에 잔류되어 있는 흑운모 편암류, 이들이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¹⁾ 토양은 크게 6개의 토양군으로 구분되고, 사촌-상주 토양군, 식질토양인 화동-극락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토양군 등이 있다.

1) 나기창, 1990. 「지형과 지질」 『청원군지』(청원군지 간행위원회) 19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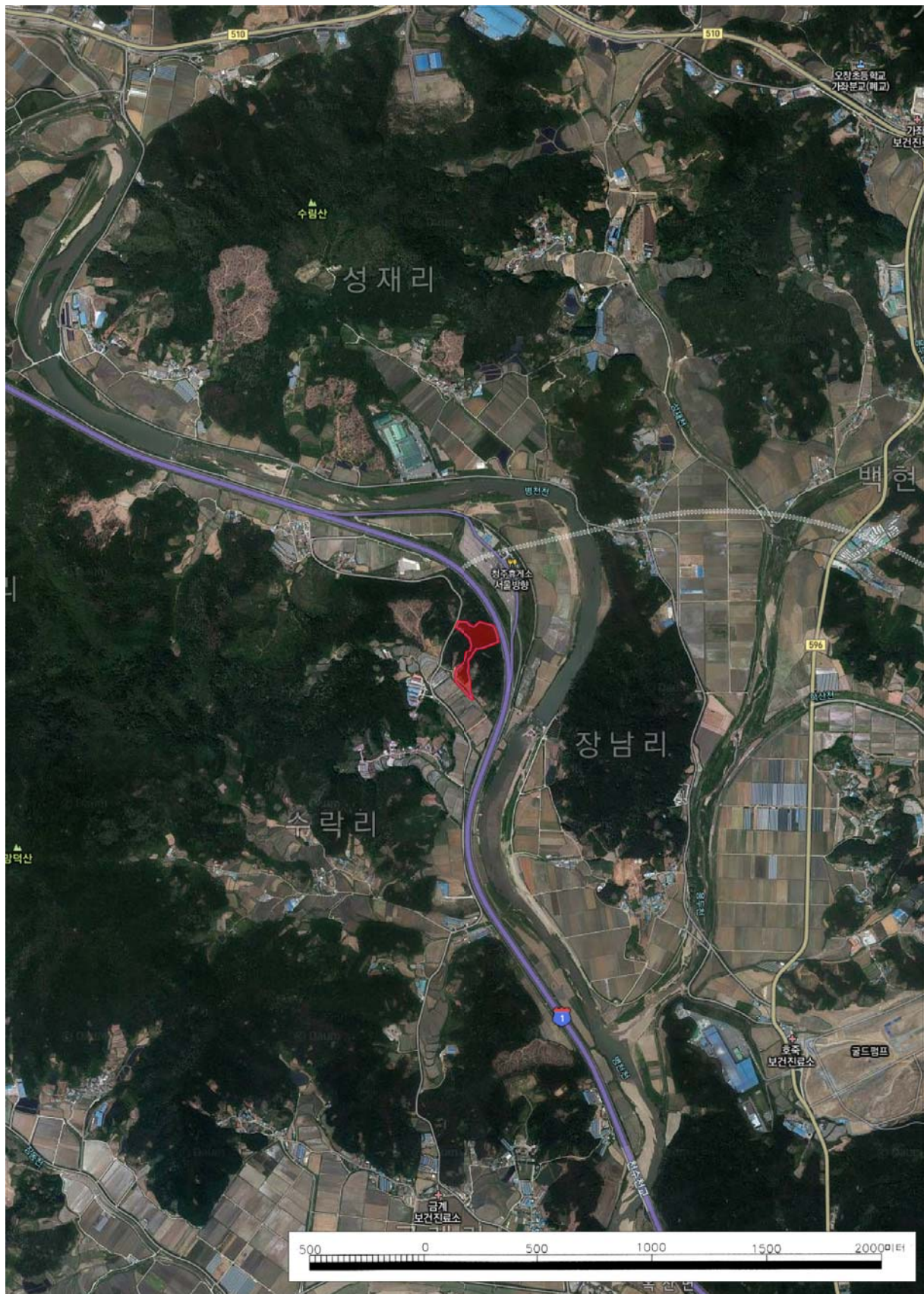
기후는 충청북도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형이 높은 동부지역은 서부의 저지대에 비해 특이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연 평균 기온은 11.5℃로 온난한 편이나 1월 평균기온은 -3.8℃, 8월은 25.2℃ 내외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29℃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위도에 비해 춥고 더운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강수량은 남동풍이 탁월한 3개월 동안은 연간 강수량의 55%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6.7% 정도이다 연 강수량은 1,246mm이다.



[지도 3]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지도 4]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사진 1] 조사지역 위치(●;위성사진)



[지도 5] 조사지역 위치(●;1914년 제작)



[사진 2] 조사지역 위치(●;1954년도 항공사진)

2. 고고 환경

청주시는 금강의 상류지역으로 미호천과 병천천이 진천지역과 천안지역에서 흘러 청원군 강외면에서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미호천과 병천천 주변의 무심천, 초평천, 작천 등의 작은 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으로는 해발 50~15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인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호천 유적의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하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80년대 이후 부분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적이 보고되었으며,²⁾ 1998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주시』³⁾와 2000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원군』⁴⁾이 간행되어 전반적인 문화유적 분포양상이 밝혀졌다.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동굴유적과 한데유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동굴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동굴⁵⁾, 작은용굴유적⁶⁾, 청석굴유적⁷⁾이 있으며, 한데유적으로는 청원 샘골유적⁸⁾, 문산유적⁹⁾, 소로리 유적¹⁰⁾, 노산리유적¹¹⁾, 청주 봉명동유적¹²⁾, 울랑동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 미호천 상류지역인 진천지역에서 장관리유적¹³⁾과 송두리유적¹⁴⁾ 등이 발굴조사 되어, 금강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구석기문화의 유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유적¹⁵⁾, 옥산면 환희리 내안마을유적¹⁶⁾, 강외면 쌍청리유적¹⁷⁾과 청주 상당산성 남문밖유적¹⁸⁾이 있다. 쌍청리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 - 清州市, 槐山郡』; 1986.『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調査報告 第 17集); 金榮振, 朴相侑, 1990.『清原郡 文化遺蹟』(清州大學校 博物館); 이원복 외, 1992.『鎭川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朴瑱雨, 1993.『美湖川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禹鍾允, 1994.『금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Ⅰ)』『年報』2 (忠北大學校 博物館); 趙祥紀, 1994.『미호천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Ⅰ)』『年報』3 (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4.『清州科學産業團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清州市 文化遺蹟』.

3)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州市』(調査報告 第 58集).

4)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0.『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原郡』.

5) 李隆助, 1983.『清原 두루봉동굴 舊石器遺蹟 發掘調査 報告書(1)』(忠北大學校 博物館).

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청원 작은용굴유적』(調査報告 第105冊).

7)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8) 李隆助, 1979.『大清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9) 李隆助, 1981.『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 연구』(탐구당).

10) 李隆助, 禹鍾允 편, 2000.『清原 小魯里 舊石器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11)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清原 老山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清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진천 장관리유적』.

14) 中원문화재연구원, 2004.『진천 송두리 구석기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15) 李隆助, 1979.『大清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16) 朴瑱雨, 1993.『美湖川 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17) 申鍾煥, 1993.『清原 雙清里 住居址』(國立清州博物館).

1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7.『上黨山城 - 서장대 및 남문 외 유적지 조사보고』.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2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凸字形 돌출부시설이 보이는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특히 연속된 압인무늬가 특징적으로 베풀어지고 독특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른바 금강식토기로 설정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청원 궁평리유적¹⁹⁾, 내수리유적²⁰⁾, 황탄리유적²¹⁾, 송대리유적²²⁾과 청주 내곡동유적²³⁾, 향정동, 외북동 유적²⁴⁾, 비하동 유적²⁵⁾, 가정3지구유적²⁶⁾, 용암동유적²⁷⁾, 봉명동유적²⁸⁾이 있다.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유적²⁹⁾, 신봉동유적³⁰⁾, 송절동유적³¹⁾, 가정4지구유적³²⁾, 명암동유적³³⁾, 용담동유적³⁴⁾, 용암동유적³⁵⁾, 청원 주성리유적³⁶⁾, 송대리유적³⁷⁾, 상평리유적³⁸⁾, 남촌리유적³⁹⁾, 미천리유적⁴⁰⁾ 등이 있다.

이 밖에 현재의 충북지역은 삼국시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관방유적이 있다. 특히 청주시 부용면 일원에는 1개면에 10여개의 산성유적이 밀집하고 있으며, 최근 고구려 산성인 남성곡산성이 발굴조사되어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보은 삼년산성

19) 李隆助 外, 1994. 『清原 宮坪里 靑銅器遺蹟』(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산청 강루리, 청원 내수리』.

21)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黃灘里遺蹟』(연구총서 제 10집).

2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梧倉遺蹟』.

23) 車勇杰, 1986. 『清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24) 尹武炳, 1986. 『清州 香亭,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 『위책』.

25) 한국고고학회, 1974. 『청원 비하리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 3 : 김성명, 신중환, 1993. 『청주 비하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청주박물관).

26) 이용조, 2002. 『청주지역 선사문화』(청주문화원).

2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龍岩遺蹟 I~III』.

28) 車勇杰 외, 2004. 『清州 鳳鳴洞遺蹟(III)-IV地區 調査報告②』(忠北大學校 博物館).

29) 車勇杰 외, 2002. 『清州 鳳鳴洞遺蹟(I)-I地區 調査報告』(忠北大學校 博物館) ; 2002. 『清州 鳳鳴洞遺蹟(II)-IV地區 調査報告①』(忠北大學校 博物館).

30)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82年度 調査』; 1990.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90年度 調査』; 金成明 외, 1993. 『清州 新鳳洞 B地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史研究所) : 車勇杰 외, 1995.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6. 『清州 新鳳洞 古墳群 - 1995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외, 2002. 『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3.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車勇杰 외,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 車勇杰, 趙祥紀 외, 1994. 『清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調査 報告書』 : 車勇杰, 趙祥紀 외,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93年度 發掘調査』(百濟文化開發研究所, 忠北大學校 博物館).

32) 車勇杰 외, 2002. 『清州 清州 佳景4地區 遺蹟(I)』(忠北大學校 博物館) : 禹鐘允 외, 2004. 『清州 清州 佳景4地區 遺蹟(II)』(忠北大學校 博物館).

33) 國立清州博物館, 2000. 『清州 明岩洞遺蹟(I) - 1998年度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清州博物館, 2001. 『清州 明岩洞遺蹟(II) - 1998年度 試掘 및 發掘調査 報告書』.

34) 國立清州博物館, 2001. 『清州 龍潭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3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龍岩遺蹟 I』.

3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清原 主城里 遺蹟』.

3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清原 梧倉遺蹟』.

38) 김병모, 1986. 『청원 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39)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0. 『남촌리 유적』.

4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5. 『清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으로부터 진천 도당산성에 이르기까지 2~30리 마다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이 서로 상망하고 있어 신라가 경주 - 상주 - 보은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대략을 알려주고 있다.

청주시에는 모두 36개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방유적으로 지금까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은 정북동토성⁴¹⁾, 우암산토성, 당차산토성⁴²⁾, 부모산성⁴³⁾, 상당산성⁴⁴⁾, 청주읍성⁴⁵⁾과 남성곡산성⁴⁶⁾, 소재산성⁴⁷⁾, 낭비성⁴⁸⁾, 구라산성⁴⁹⁾, 양성산성⁵⁰⁾, 저산성⁵¹⁾ 등이 있다.

이처럼 청주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지방의 고고, 역사적인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연혁

삼한시대의 청주는 마한의 국읍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력들은 토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자료와 함께 백제시기의 청주 신봉동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런 자료들로 볼 때 3세기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자치적인 지배권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 항쟁기에 삼국간의 각축장이었다. 청주 정북동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비롯한 청원군의 여러 성터들이 백제시기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용면 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발굴조사 됨으로써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청주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진흥왕대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대세 속에서 6세기경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 문의(一牟山郡)가 이미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갔고 474년 이 곳의 양성산성(壤城山

4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清州 井北洞 土城 I -1997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清州 井北洞 土城 II -2000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4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43) 車勇杰 외, 1999.『清州 父母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4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車勇杰 외, 1997.『上黨山城』(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車勇杰 외, 1999.『上黨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上黨山城 - 城壁補修區間內 試, 發掘調査 報告書』.

45)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1.『清州邑城, 南石橋』.

46) 車勇杰 외, 2005.『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47) 車勇杰 외, 2005.『清原 芙蓉面地域 山城』(中原文化財研究院).

48) 車勇杰 외, 2001.『清原 狼臂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49) 車勇杰 외, 2001.『清原 謳羅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0) 車勇杰 외, 2001.『清原 壤城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車勇杰 외, 2001.『清原 壤城山城 貯水池 發掘調査 略報告書』(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1) 車勇杰 외, 1999.『清原 猪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城)이 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의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방어도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 또 한차례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청주 호족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기반세력이었지만 점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하였다. 그리하여 청주 호족들은 크게 친궁예세력과 친왕건세력으로 분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들 청주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광종때 설치한 『용두사지철당간기』(국보 제 41호)에 의하면 김(金), 손(孫), 경(慶), 한(韓)씨 등의 1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청주지역에는 한(韓), 이(李), 김(金), 곽(郭), 손(孫), 경(慶)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게 된다. 즉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중의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5) 12목이 폐지되고 10도로 나누어 12주를 두게 되자 청주는 중원도에 속한 전절군(全節軍)으로 불리는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다시 설치할 때 청주는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건국 초에 불리어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 지금의 청주시 문의면)과 목주군(木州郡 ;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 군과 진주(鎭州 ; 진천군), 전의(全義 ; 연기군 전의면), 청주, 도안(道安 ; 괴산군 도안면), 청당(靑塘 ;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 연기군), 회인(懷仁 ; 보은군 회남, 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 공주)와 홍주(洪州 ; 홍성군), 천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令官)을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川縣 ; 괴산군 청천면)이 있고 향은 2곳에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鄉 ; 대전 동면)과 덕평향(德坪鄉 ; 전의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 청주시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曲 ;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豐部谷 ;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閑身部谷 ; 괴산군 청천면)의 4곳이다.

조선 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의 우호적이었던 경복흥(慶復興)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충(鄭攄), 정탁(鄭擢), 3등 공신 이었던 한상경(韓尙敬)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監司兼牧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

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종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년(1449) 감사겸목제가 잠시 부활한 적이 있었다. 이후 세조 때에는 감사겸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제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1455) 군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익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익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익에 천안, 온양, 진의, 평택, 아산, 목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청주는 청주권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청주 지역은 몇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33년(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 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 군의 하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제 하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져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면서 충청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서 빠져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거 부(府), 군(郡), 면(面)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나머지 면은 청원군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지역이 속해 있는 옥산면 수락리는 망덕산에 폭포가 있었으므로 ‘무중골’이라 하였다. 수락은 정조 때부터 쓰인 이름이다. ‘수락’은 ‘무중골’에서 ‘무중’을 뜻을 빌어 표기한 이름으로, ‘수락’은 오늘날 ‘무중골’의 별칭과 법정리명 ‘수락리’와 통칭으로 함께 쓰인다. 수락리는 본래 청주군 서강외이상면 지역이었다. 1914년에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모일리를 병합하여 수락리라 해서 옥산면에 편입하였다.



[사진 3] 조사지역 위치(●;1968년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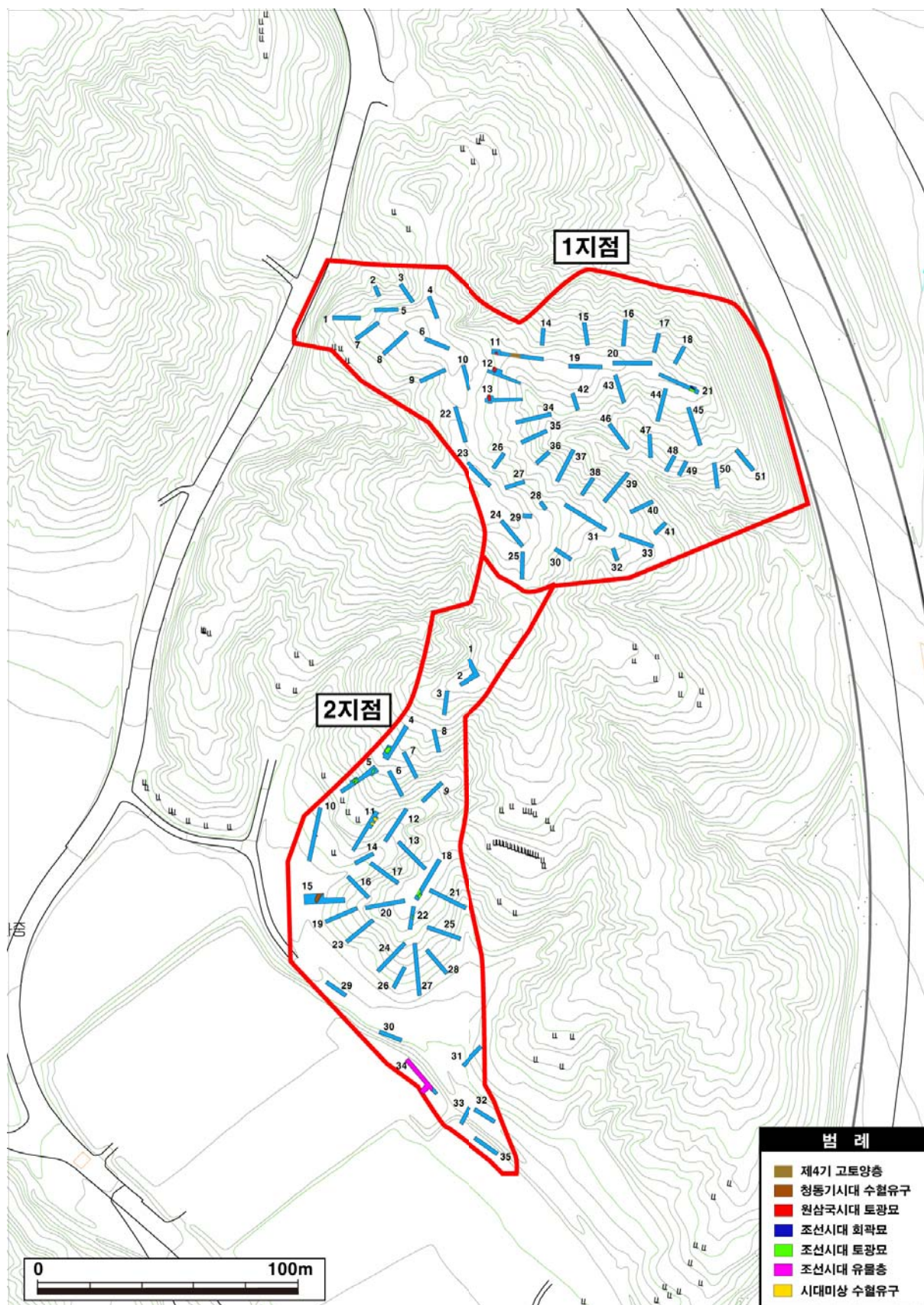
[사진 4] 조사 전 전경(2013년 12월)



[사진 5] 조사 후 원경



[사진 6] 조사 후 전경



[지도 6] 시굴트렌치 현황도

Ⅲ. 조사내용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유적(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로, 조사면적은 22,850㎡이다.

조사지역은 2011년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지표조사에서 지표에서 토기편이 수습되고 추정고묘가 찾아져 ‘수락리 유물산포지’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또 동쪽으로는 병천천이 남류하고, 천변을 따라 충적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대부분은 잡목과 수풀로 뒤덮인 자연산림지역이나 곳곳에 묘역 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남사면부 하단일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비교적 본래의 지형을 간직하고 있었다.

편의상 조사지역 내 중심에 위치한 정상부(해발 약82m)를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한 동향사면부와 도로(금계사정로)와 맞닿은 서향사면부를 1지점, 남향사면부를 2지점으로 구분하여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너비 2m의 트렌치를 1지점 51개, 2지점 35개 등 총 86개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1. 1지점

1지점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정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은 동향사면과 도로(금계사정로)와 접한 서향사면부를 포함한다.

동향사면부의 끝부분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절단되고, 사면의 날등일대는 비교적 넓고 완만한 반면 사면사이로 계곡이 깊게 형성되어 경사가 급한 편이며, 서향사면부는 민묘 조성 및 임도 개설 등으로 인해 지형훼손이 일부 진행된 상태이다.

총 51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 내 정상부 일대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 제4기 고토양층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향사면의 날등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트렌치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지점에 설치한 트렌치 및 유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지점 트렌치 현황

Tr.	길이	너비	깊이	토층양상	유구 및 유물
1	12.1	2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2	4.4		0.1 ~ 0.2		
3	10.5		0.1 ~ 0.3		
4	10.6		0.2 ~ 0.3		
5	9.9		0.1 ~ 0.2		
6	10.1		0.1 ~ 0.3		
7	12.2		0.2 ~ 0.3		
8	18.4		0.1 ~ 0.5		
9	18		0.1 ~ 0.5		
10	10.3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11	21		0.2 ~ 0.5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토광묘 1기 제4기 고토양층
12	14.9		0.2 ~ 0.3		토광묘 1기
13	16.7		0.2 ~ 1.1		토광묘 1기
14	9.7		0.1 ~ 0.2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15	14.5		0.1 ~ 0.3		
16	17.7		0.2 ~ 0.6		
17	14.3		0.1 ~ 0.4		
18	9.7		0.1 ~ 0.3		
19	15.2		0.1 ~ 0.2		
20	18.2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1	18.7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회곽묘 1기 토광묘 1기
22	16.7		0.2 ~ 0.4		
23	12.3		0.1 ~ 0.3		
24	15.2		0.1 ~ 0.2		
25	10.9		0.1 ~ 0.2		
26	9.3		0.2 ~ 0.8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7	10.3		0.2 ~ 0.6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8	5.4		0.2 ~ 0.7		
29	5.5		0.4 ~ 0.7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0	9.1		0.2 ~ 0.6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1	19.9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2	6.3		0.1 ~ 0.3		
33	16.5		0.2 ~ 0.4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4	16.4		0.5 ~ 1.7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5	15		0.7 ~ 1.0		
36	8.5		0.7 ~ 0.8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7	20.7		0.3 ~ 0.8		
38	10.1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9	24.7		0.2 ~ 0.6	표토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40	15.5		0.6 ~ 1.1	표토층-갈색모래질찰흙층-적갈색모래질점토층- 풍화암반층	
41	8.6		0.2 ~ 0.4	표토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42	14.3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43	12.2		0.1 ~ 0.3		
44	15.6		0.1 ~ 0.2		
45	17.7		0.1 ~ 0.3		
46	10.1		0.1 ~ 0.2		
47	10.4		0.1 ~ 0.4		
48	8.1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49	6.3		0.3 ~ 0.4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50	14.5		0.3 ~ 2.0		
51	13.4		0.1 ~ 0.3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사진 7] 1지점 전경



[사진 8] 1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Tr. 6



Tr. 11



Tr. 11(원삼국시대 토광묘)



Tr. 12(원삼국시대 토광묘)



Tr. 13(원삼국시대 토광묘)



Tr. 16



Tr. 21



Tr. 21(조선시대 회곽묘, 토광묘)

[사진 9] 1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Tr. 23



Tr. 27



Tr. 31



Tr. 35



Tr. 39



Tr. 44



Tr. 48



Tr. 51

[사진 10] 1지점 트렌치 모습

2. 2지점

2지점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향하는 사면부를 포함하며, 두 갈래로 완만하게 뻗은 능선일대와 그 사이로 발달한 급경사의 계곡부, 그리고 하단부에 인접한 발경작지로 이루어진다. 조사지역 내 곳곳에 민묘가 들어서 있었으나 조사시점에는 이장이 완료된 상태였다.

총 35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사면의 날등 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기(합장묘 2기, 단장묘 3기)와 함께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사면하단에 계곡부와 접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한편 2지점 내 최남단 경계부근에 있는 발경작지에 설치한 34번 트렌치에서 조선시대 토기편과 자기편이 혼합된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된다. 이 조선시대 유물층은 노출범위가 조사지역 경계와 인접한 경작지(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됨)를 따라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 대부분의 트렌치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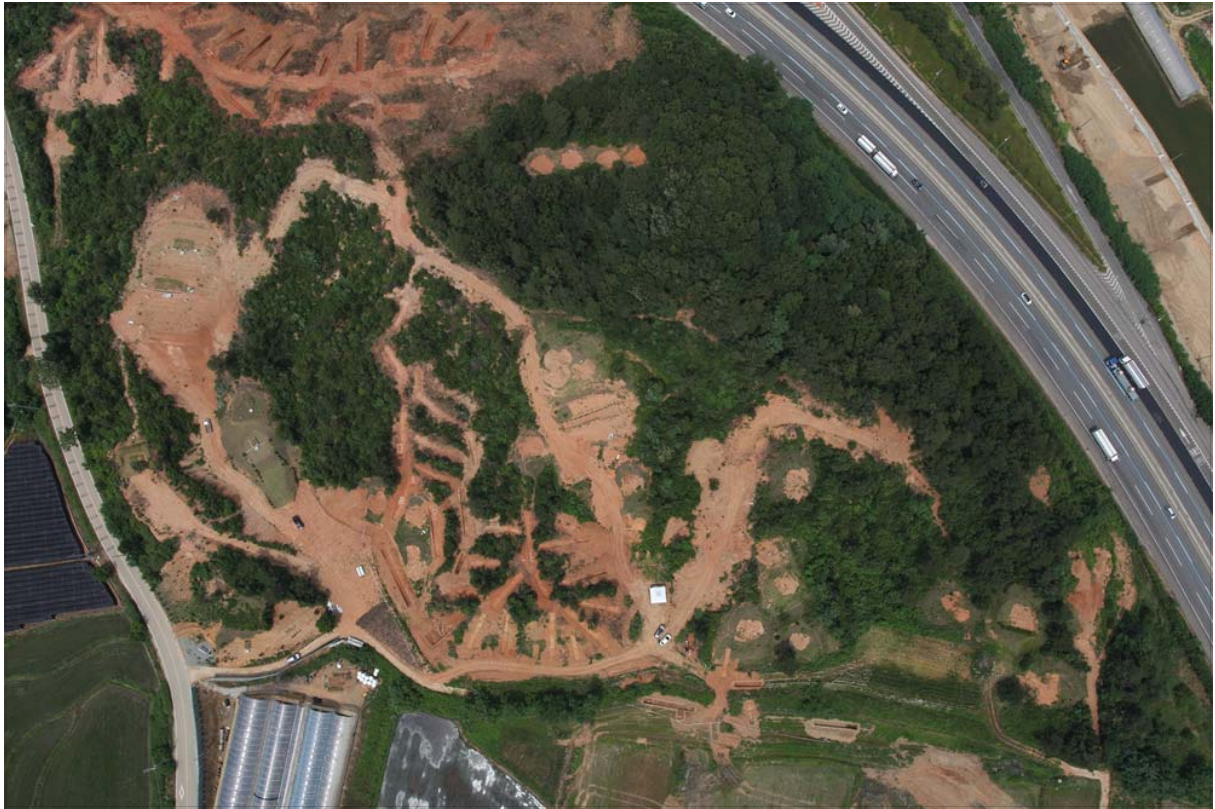
2지점에 설치한 트렌치 및 유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1] 2지점 원경

[표 2] 2지점 트렌치 현황

Tr.	길이	너비	깊이	토층양상	유구 및 유물
1	8.6	2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2	9.4	2	0.1 ~ 0.2		
3	14.2	2	0.1 ~ 0.2		
4	14.8	2	0.1 ~ 0.2		토광묘 1기
5	17.6	2	0.2 ~ 0.4		토광묘 2기
6	13.4	2	0.1 ~ 0.3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7	13.2	2	0.1 ~ 0.2		
8	9.7	2	0.1 ~ 0.2		
9	11.1	2	0.2 ~ 0.4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수혈유구 2기
10	21.8	2	0.2 ~ 0.8	표토층-암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11	18.2	2	0.2 ~ 0.9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12	15.5	2	0.4 ~ 0.6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13	10.1	2	0.1 ~ 0.2		
14	8	2	0.6 ~ 1.7		
15	16.6	2	0.3 ~ 1.2	표토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수혈유구 1기
16	12	2	0.1 ~ 0.3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17	11.9	2	0.1 ~ 0.2		
18	17.3	2	0.1 ~ 0.4		
19	14.3	2	0.1 ~ 0.3		
20	16.2	2	0.1 ~ 0.3		
21	16.8	2	0.1 ~ 0.5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토광묘 1기
22	10.1	2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3	14.7	2	0.2 ~ 0.8	표토층-적갈색모래층-회백색모래층-풍화암반층	
24	18	2	0.1 ~ 0.2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25	19.3	2	0.1 ~ 0.8		
26	10.8	2	0.1 ~ 0.3		
27	22.6	2	0.1 ~ 0.2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8	15	2	0.1 ~ 0.4	표토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29	7.8	2	1.0 ~ 3.5	표토층-황갈색모래층-갈색모래층	
30	11	2	1.5 ~ 2.0	표토층-황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1	11.1	2	0.1 ~ 0.6	표토층-갈색모래층-풍화암반층	
32	9.5	2	1.0 ~ 1.2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33	9.7	2	0.3 ~ 3.0	표토층-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층- 암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34	14.6	2	0.2 ~ 0.9	표토층-회갈색모래층-암갈색모래층- 적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조선시대 유물층
35	14.7	2	0.8 ~ 1.8	표토층-황갈색모래층-적갈색모래질찰흙층- 암갈색모래질찰흙층-풍화암반층	유구 및 유물 확인되지 않음



[사진 12] 2지점 전경



[사진 13] 2지점 근경(유구밀집지역)



[사진 14]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모습



[사진 15] 2지점 트렌치 및 유구선 노출 또는 유물 출토모습

Ⅳ. 조사결과

이번 조사는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에 대한 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22,850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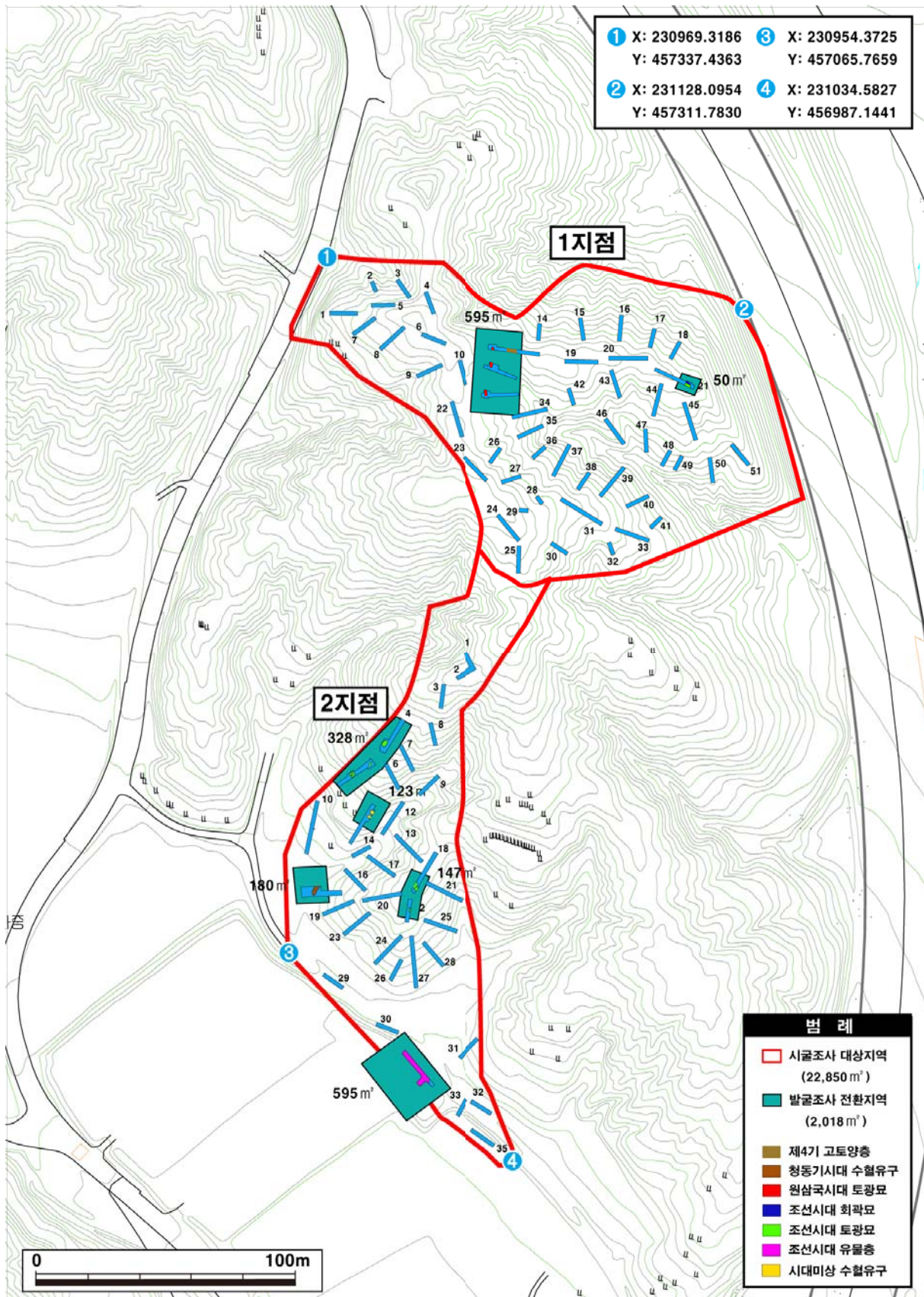
1. 조사지역은 수락리 유물산포지의 일부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 남서쪽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끝부분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내 중앙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트렌치 86개(1지점 51개, 2지점 35개)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하였다.

2.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양상은 표토층 - 갈색모래층 - 풍화암반층으로 비교적 단순한 퇴적양상을 보이며, 일부 계곡부에서는 모래층 아래로 모래질찰흙층이 두텁게 퇴적된 경우도 있다.

3. 1지점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정상부 주변의 완만한 사면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와 제4기 고토양층,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향사면의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4. 2지점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남향사면의 날등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기(합장묘 2기, 단장묘 3기)와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고, 사면하단부와 계곡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바닥편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1기가 확인 되었다. 또 2지점 내 남쪽 경계부근에서 조선시대 토기편과 자기편이 혼합된 조선시대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는데, 그 노출범위가 조사지역 경계와 인접한 경작지(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됨)를 따라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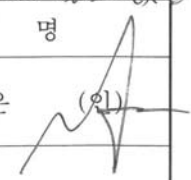
5. 현장 조사기간 중 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유적의 향후 조사방향과 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자문회의(2016년 06월 17일 개최, 차용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양시은 충북대학교 교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공사시행 전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발굴전환범위를 설정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조성시기를 규명하여야 하며,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우리 조사단은 [지도 7]과 같이 발굴전환필요범위(총 7개 지점, 2,018m²)를 설정하였으며, 조사현장에 발굴대상범위를 표시하고 원상복구를 실시한 후 현장을 철수하였다.



[지도 7]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²)



[사진 16] 학술자문위원회 개최모습(2016.06.17.)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2,850m ²	조사 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 6. 8. ~ 6. 17. (실조사일수 8일)	회의일시	2016. 6. 17. 오전 09시
유적 현황 및 성격	1.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86개의 밭농구덩은 석령 능선 유구 북쪽 면부를 지나한계리 1리구(51번)에서 11·12·13번구덩이에서 유물산포지 토광묘 유구 3기, 2번구덩이에 회곽기를 포함한 것으로, 11·19번 구덩이 사이에서 약간의 고토양 층이 발견됨. 2. 2리구(35번)의 경우 4·5번에서 토광 1, 2기, 11번에서 석대비상의 수혈 2기, 15번에서 채형기시대 토기 지붕기 포함된 수혈, 18번에서 토광, 22번에서 토광묘, 34번의 경작층 (흙은 바위이끼) 등 유물 산포 현상이 나타남.		
조사기관 의견 검토	전반적으로 유구 개황을 위해 적절히 조사구덩은 석령 하, 유구 상부를 토양층이 파악함.		
추가 의견	1. 1리구 및 2리구의 토광묘 및 상하관련이 작은 능선상의 3리구에서 있는 수혈은 파악된 유구에 대해 밭농구덩이를 실시하여도 할 것임. 2. 1리구의 11·12·13 구덩은 유구 개황 범위를 포함 변위에 포함 (바위까지) 토광묘 2기가 필요함. 3. 포지구의 4·5번, 11번의 경우 밭농 유물 산포, 18·22 구덩은 변위에 포함 34번, 15·34(채형기시대·동세 퇴적층) 구덩은 유구는 충분히 밭농을 할 수 있음 (변위까지 바위) 하의 바위 밭농은 추가조사 필요 있음.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양 시 은  (인)
2016년 6월 17일			

조사기관 의견서

1.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2. 조사유형 : 시굴조사
3.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4. 조사지역의 위치와 면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 면적 : 22,850m²

5. 조사기간 : 2016년 6월 8일~6월 17일(실조사일수 8일)
6. 조사의뢰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7.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8.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수락리 유물산포지의 일부 지역으로,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을 크게 중앙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 86개의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하였다.
- 1지점 내 정상부 주변의 완만한 사면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와 제4기 고토양층이, 동향사면의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 2지점 내 남향사면의 날등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5기(합장묘 2기, 단장묘 3기)와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고, 사면하단부와 계곡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바닥편이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또 2지점 내 남쪽 경계에서 조선시대 토기·자기편이 혼합된 조선시대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조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6월 17일에 학술자문회의 개최한 결과, 유구가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로 전환하고,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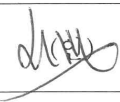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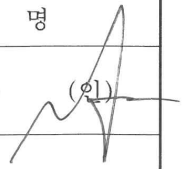
9. 조사기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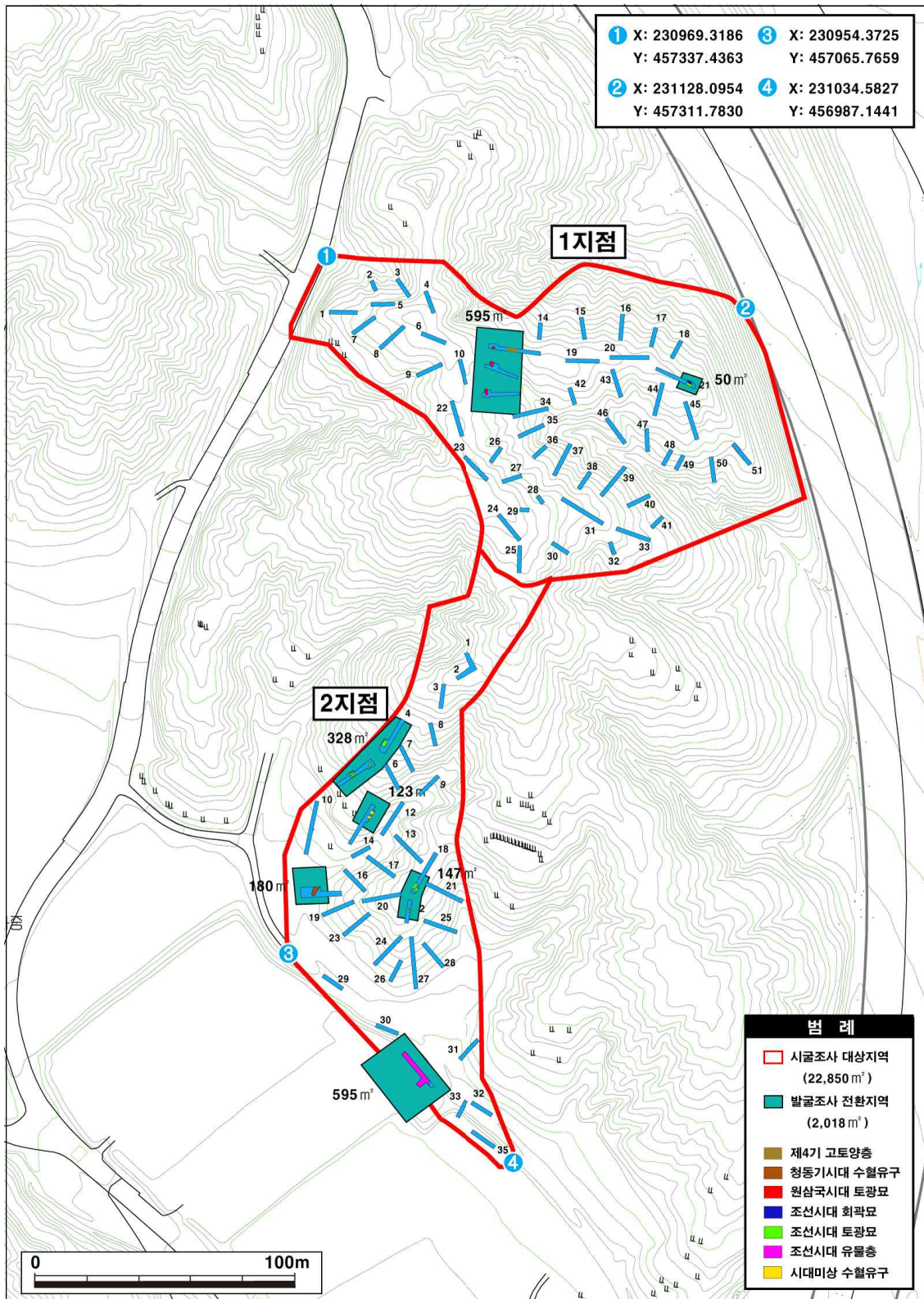
-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전환범위(총 7개 지점, 2,018m²)를 설정하고, 공사시행 전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조성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 외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 공사를 실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2,850㎡	조사 기관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 6. 8. ~ 6. 17. (실조사일수 8일)	회의일시	2016. 6. 17. 오전 09시
유적 현황 및 성격	1. 조사지역 전체에 걸쳐 86개의 밭농구덩은 석령 하역 유구 부근 대부분 조사한 결과 1지구(51개)에서 11·12·13번구덩이에서 유물출토가 두드러진 유구 3개, 2번구덩이에서 회색1기를 포함 함장묘, 11·19번 구덩이 사이에 약간의 고토임을 확인 할 수 있음. 2. 2지구(35개)의 경우 4·5번에서 토랑 1, 2기, 11번에는 석대지상의 수면2기, 15번에서 채동기시대 토기 지붕기 포함 된 수면, 18번에서 토랑, 22번에서 토랑묘, 34번의 경각중 남은 바위이끼 등세유물 포함 등이 나타남.		
조사기관 의견 검토	조사방법과 유구 개수를 위해 적절히 조사구역을 선정 하고, 유구 개수를 토당히 파악함.		
추가 의견	1. 1지구 및 2지구의 토랑묘 및 상층관련이 작은 능선상의 3번구덩이에서 수면은 파악된 유구에 대해 밭농구덩이를 실시하여야 함 것임. 2. 1지구의 11·12·13 구덩은 채동기시대 법위를 포함 한 변기에 포함 한 바위까지 확장 조사가 필요함. 3. 2지구의 4·5번, 11번의 경우 법위 및 석곽, 18·22 구덩은 석대 포함 조사가 필요, 15·34(채동기시대 등세퇴적층)번 구덩유구는 충분히 법위를 확대 하여 조사 (별리 실시 바위) 하고 바위 법위는 추가조사 필요 있음.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양 시 은  (인)
2016년 6월 17일			



[지도 1] 시굴조사지역 내 발굴조사 전환범위(2,018m²)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허가번호 제2016-0716호		매장 문화재명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발굴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발굴 사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구제조사			
매장문화재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		매장문화재산포지 면적 106,936㎡		발굴 면적 22,850㎡(시굴) 2,018㎡(발굴)	
발굴조사 기관명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단	조사단장 우종운		
발굴기간 2016. 06. 08. ~ 06. 17.(시굴) 2016. 07. 25. ~ 08. 29.(발굴)			책임조사원 손명수		
현장조사일 25일(발굴) 8일(시굴)			조 사 원 경송현, 황해경, 윤병일		
발굴 비용 32,500,000원(시굴) 133,100,000원(발굴)			준조사원 정효정, 황해경, 한승철		
			보 조 원 박준용, 곽문수, 홍기택, 이정아, 곽문수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출토유구	수혈유구	청동기	1	무문토기편
토광묘		원삼국	2	원저단경호, 철부	
수혈주거지		삼국	1	토기완	
수혈유구		삼국	1	-	
구들형주거지		통일신라	1	경질토기편	
수혈군		통일신라	1	-	
토광묘		조선	13	백자잔, 백자접시	
회곽묘		조선	1	-	
숫가마		시대미상	1	-	
출토유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금속	청동기, 조선	42	철부, 청동손가락	-
	토도	청동기~통일신라, 조선	23	토기 호, 백자접시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2년 이내 조사기관에서 발간예정임.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09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서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목 차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9.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Institute of Korean Prehistory

I. 조사개요	5
II.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1
1. 조사지역의 위치	11
2. 자연, 지리 환경	12
3. 고고, 역사 환경	13
III. 조사내용	20
1. 시굴조사	20
2. 발굴조사	22
1) 청동기시대	22
2) 원삼국시대	24
3) 삼국시대	24
4) 통일신라시대	25
5) 조선시대	27
6) 시대미상	30
I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32

지도 차례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 분포도	6
[지도 2]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7
[지도 3] 조사지역 위치(1914년 제작)	9
[지도 4]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12
[지도 5]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13
[지도 6] 시굴조사 대상지역 및 발굴조사 전환지역	21
[지도 7] 유구배치도	23

표 차례

[표 1] 원삼국시대 토광묘 현황	24
[표 2] 수혈주거지 및 수혈유구 현황	25
[표 3]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현황	26
[표 4] 통일신라시대 수혈군 현황	26
[표 5] 조선시대 분묘 현황	27

사진 차례

[사진 1] 조사지역 위치(위성사진)	8
[사진 2] 조사지역 위치(1954년도 항공사진)	10
[사진 3] 시굴조사 전 전경(서→동)	11
[사진 4] 조사지역 전경(①남서→북동, ②서→동)	11
[사진 5] 시굴조사 후 원경	19
[사진 6] 시굴조사 후 전경	19
[사진 7] 시굴조사지역 전경(①1지점, ②2지점)	20
[사진 8] 발굴조사지역 전경	22
[사진 9]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22
[사진 10] 원삼국시대 토광묘(①1호, ②2호)	24
[사진 11] 삼국시대 유구(①수혈주거지, ②수혈유구)	25
[사진 12]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26
[사진 13] 통일신라시대 수혈군	26
[사진 14] 조선시대 토광묘 및 출토유물	28
[사진 15] 조선시대 토광묘 및 출토유물	29
[사진 16]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	30
[사진 17] 시대미상 숫가마	30
[사진 18] 현장조사(①~④) 및 학술자문회의(⑤~⑧) 모습	31

I. 조사개요

□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 **조사유형** : 시·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 **조사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 면 적 : 22,850㎡(시굴)/2,018㎡(발굴)

□ **조사경위**

○ 문화재 지표조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6.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분기점 설계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인해 시점부인 옥산분기점에 대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추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내 포함된 '수락리 유물산포지' 22,85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문화재 시굴조사(2016. 06. 08. ~ 2016. 06. 17., 실조사일수 8일)

→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 조선시대 토광묘 5기, 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수혈 2기 등 모두 12기의 유구와 조선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재 발굴조사(2016. 07. 25. ~ 2016. 08. 29., 실조사일수 25일)

→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를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1기, 수혈군 1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숫가마 1기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음.

□ **조사기간** : 2016.06.08.~06.17.(실조사일수 8일, 시굴)/2016.07.25.~08.29.(실조사일수 25일, 발굴)

□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조사단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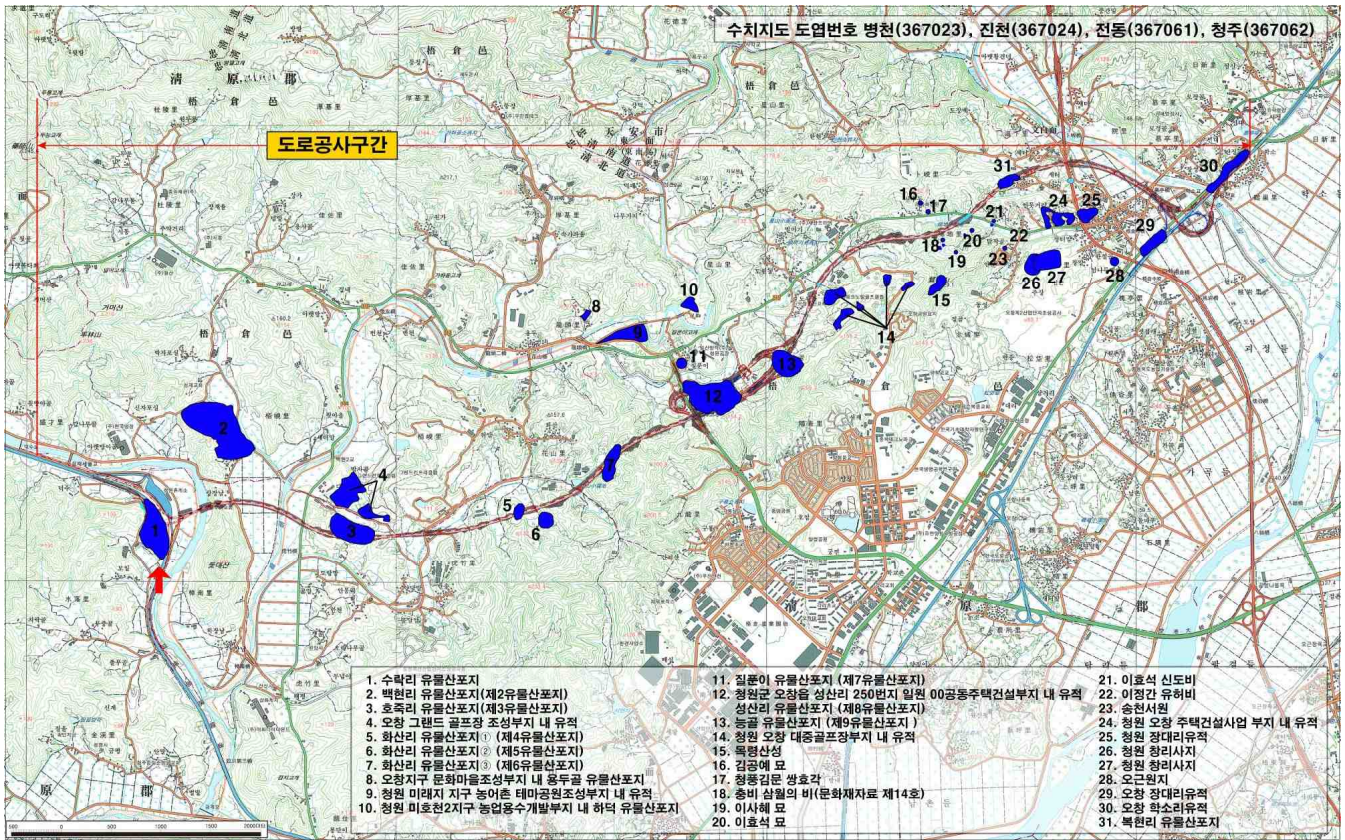
○ 조 사 단 장 : 우 종 윤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손 명 수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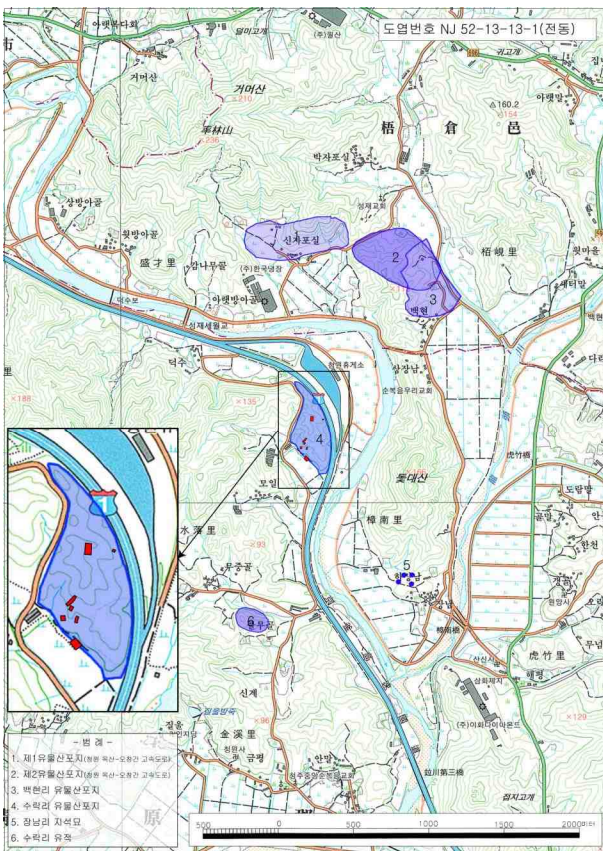
○ 조 사 원 : 경 송 현·황 해 경·윤 병 일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정 효 정·한 승 철·한 민 회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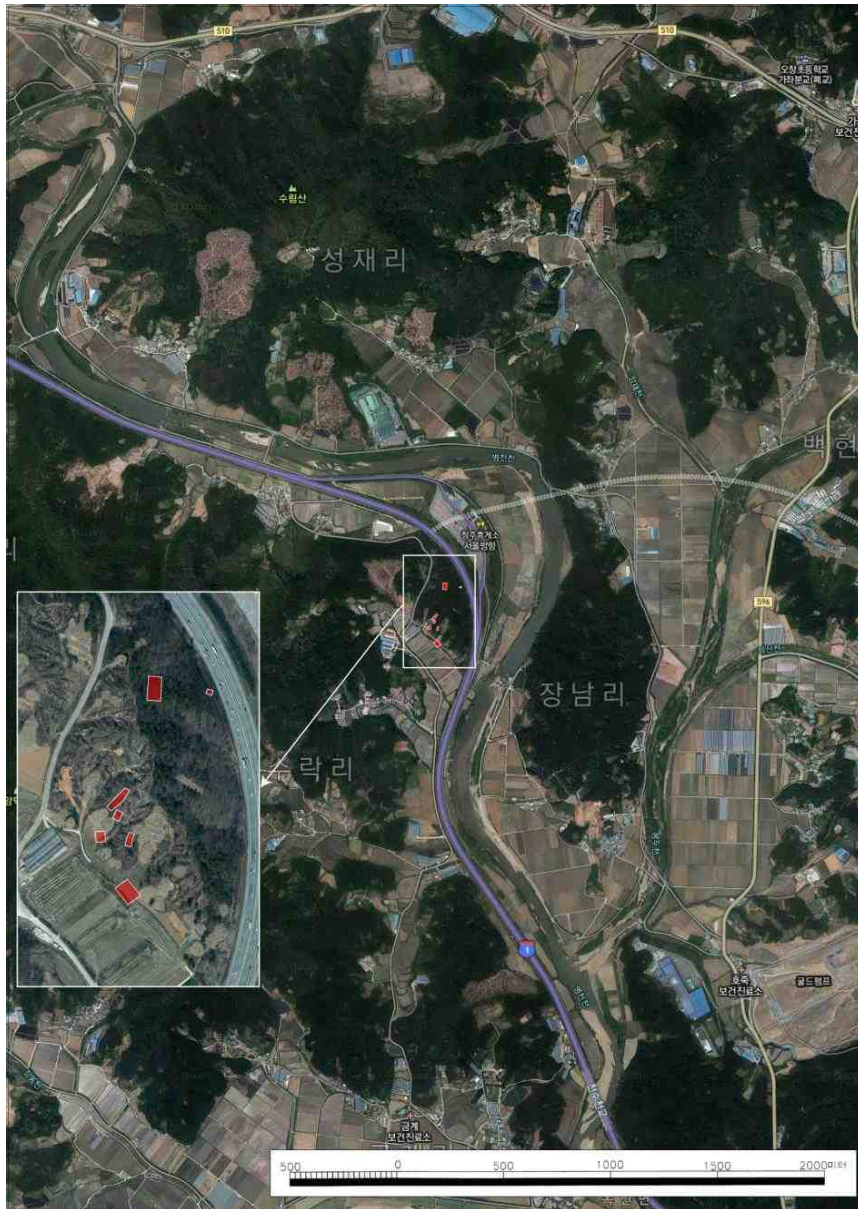
○ 보 조 원 : 박 준 용·홍 기 택·이 정 아·곽 문 수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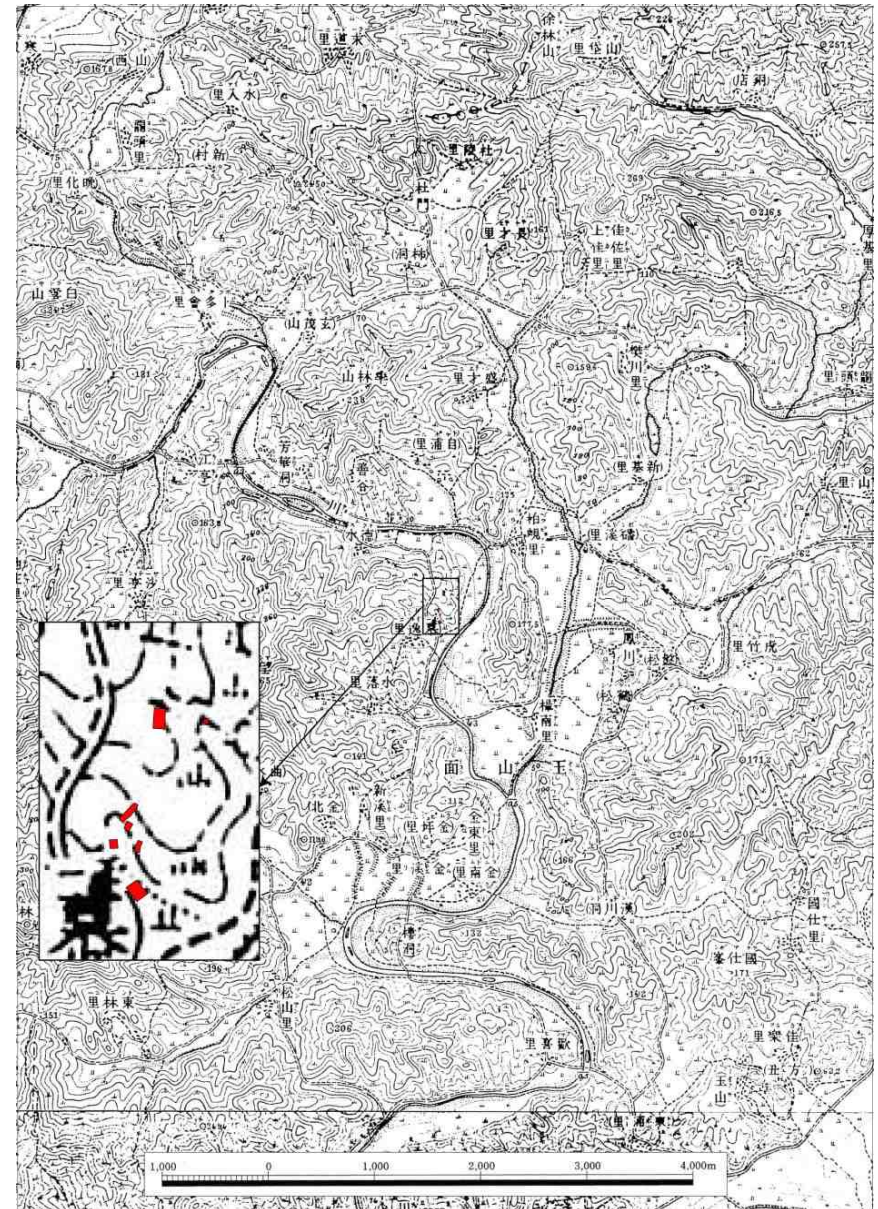
[지도 1] 옥산-오창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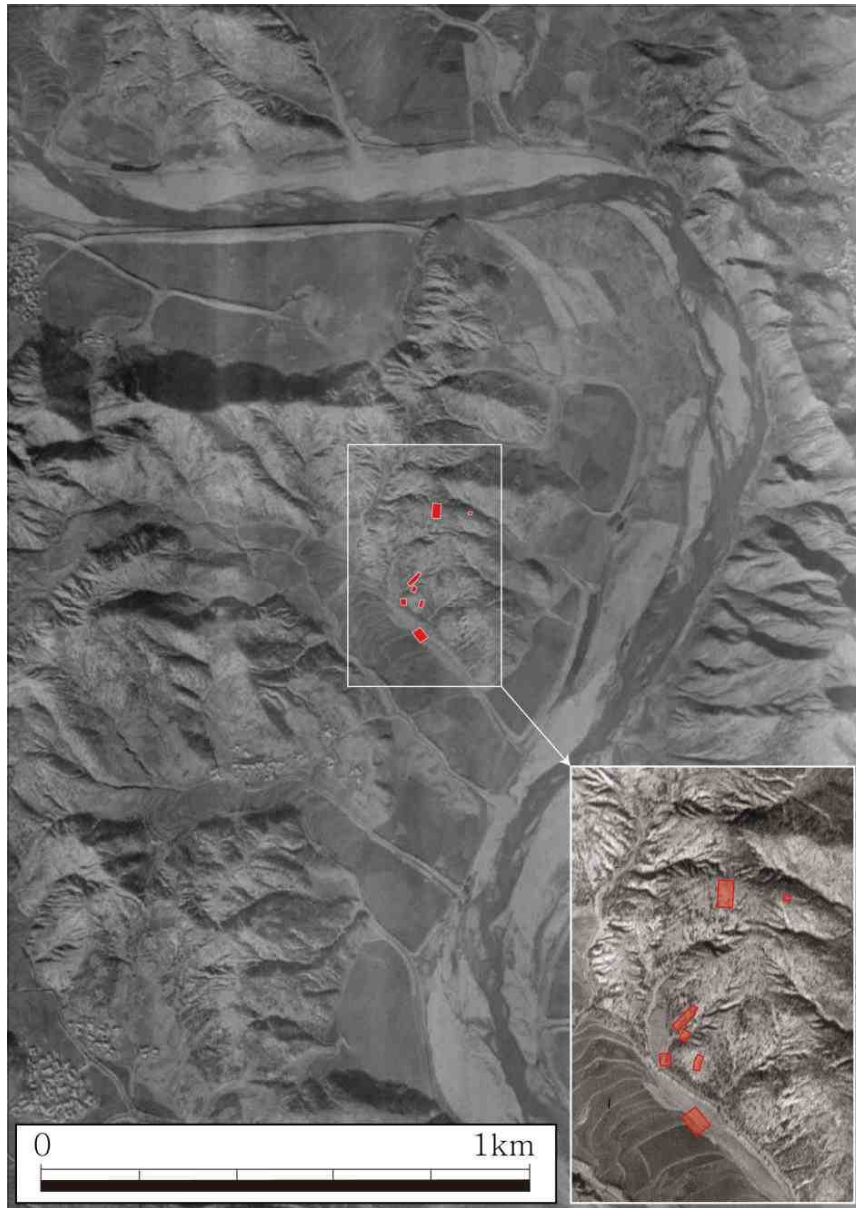
[지도 2]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



[사진 1] 조사지역 위치(●;위성사진)



[지도 3] 조사지역 위치(●;1914년 제작)



[사진 2] 조사지역 위치(●:1954년도 항공사진)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조사지역의 위치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에 자리하며, 수리적 위치는 36° 42' 46", 동경 127° 20' 48" 이다. 조사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의 청원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망덕산(해발 271.5m)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또 동쪽으로는 병천천이 남류하고, 천변을 따라 충적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사진 3] 시굴조사 전 전경(서→동)

조사지역의 대부분은 잡목과 수풀로 뒤덮인 자연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묘역 또는 민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후대 자연침식과 분묘조성 과정에서 능선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비교적 원지형은 잘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지역의 주변으로 현재 청주시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와 청주시 오창읍의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옥산오창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조사지역 내 능선의 날등부 및 사면하단부에 걸쳐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사진 4] 조사지역 전경(①남서→북동, ②서→동)

2. 자연, 지리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한 청주시는 충북의 중서부에 자리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증평군,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충남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연기군, 북쪽으로는 진천군, 괴산군과 접하며, 중앙부에 자리한 청주시를 감싸고 있다.

청주시의 지형은 전체로 보아 동고서저형으로 동쪽은 산악지대이고, 서쪽은 평야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구성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의 노령산맥은 차령산맥과 옥갑산에서 분기하여 정남으로 뻗어내려 백마령, 보광산, 칠보산을 지나 미원면의 좌구산에서 미동산, 국사봉, 피반령, 샘봉산을 지나 옥천군의 환산과 대성산으로 이어진다. 남쪽으로 문의의 작두산, 현도면의 구봉산 등이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서남방향으로 뻗어 소평야 지대를 이룬다.

충북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인 오창평야와 미호평야를 관개하는 미호천은 음성군 부용산(644m) 남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충북 진천군, 청원군 및 충남 연기군을 거치면서 백곡천, 보광천, 무심천, 천수천, 조천 등 지류를 합치고 부강 서쪽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은 전북 장수군 일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에서 여러 소지류들과 합류하여 신탄진까지는 곡류하고 있으나, 부여에서부터는 커다란 강폭을 나타내며 서해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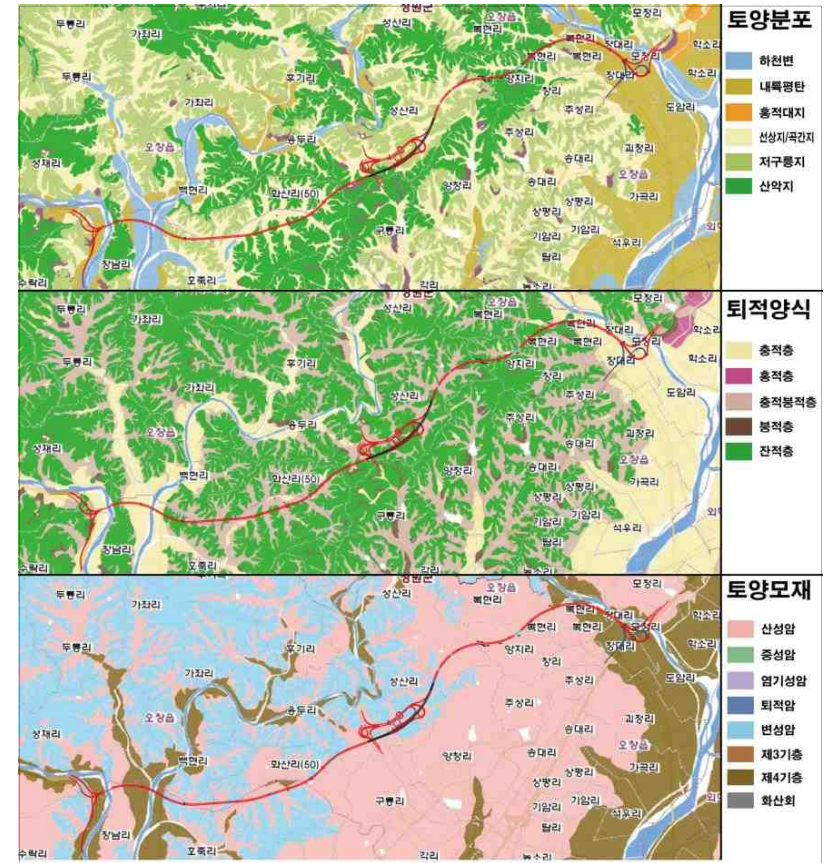
청주시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편마암류와 곳곳에 잔류되어 있는 흑운모 편암류, 이들이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¹⁾. 토양은 크게 6개의 토양군으로 구분되고, 사촌-상주 토양군, 식질토양인 화동-극락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토양군 등이 있다.

기후는 충청북도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차령, 노령, 소백산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형이 높은 동부지역은 서부의 저지대에 비해 특이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연 평균 기온은 11.5℃로 온난한 편이나 1월 평균기온은 -3.8℃, 8월은 25.2℃ 내외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29℃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위도에 비해 춥고 더운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강수량은 남동풍이 탁월한 3개월 동안은 연간 강수량의 55%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37%에 불과하고, 겨울의 강수량은 6.7% 정도이다 연 강수량은 1,246mm이다.

1) 나기창, 1990.『지형과 지질』『청원군지』(청원군지 간행위원회).



[지도 4] 충청북도 음영기복도



[지도 5] 조사지역의 토양 및 퇴적분포, 토양모재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

2. 고고, 역사 환경

청주지역은 금강상류 지역으로 미호천과 병천천이 진천지역과 천안지역에서 흘러 청원군 강외면에서 합류하여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미호천과 병천천 주변의 무심천, 초평천, 작천 등의 소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으로는 해발 50~15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인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호천 유적의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하류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80년대 이후 부분적인 지표 조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유적이 보고되었으며²⁾, 1998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주시』³⁾와 200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 청원군』⁴⁾이 간행되어 전반적인 문화유적 분포양상이 밝혀졌다.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동굴유적과 한테유적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동굴유적으로는 청원 두루봉동굴⁵⁾, 작은용굴유적⁶⁾, 청석굴유적⁷⁾이 있으며, 한테유적으로는 청원 샘골유적⁸⁾, 문산유적⁹⁾, 소로리 유적¹⁰⁾, 노산리유적¹¹⁾, 청주 봉명동유적¹²⁾, 울량동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 미호천 상류지역인 진천지역에서 장관리유적¹³⁾과 송두리유적¹⁴⁾ 등이 발굴조사 되어, 금강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구석기문화의 유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문이면 가호리 아득이유적¹⁵⁾, 옥산면 환회리 내안마을유적¹⁶⁾, 강외면 쌍청리유적¹⁷⁾ 과 청주 상당산성 남문밖유적¹⁸⁾이 있다. 쌍청리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2기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凸字形 돌출부시설이 보이는 주거지도 조사되었다. 특히 연속된 압인무늬가 특징적으로 배풀어지고 독특한 기형의 토기가 출토되어 이른바 금강식토기로 설정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지로는 청원 궁평리유적¹⁹⁾, 내수리유적²⁰⁾, 황탄리유적²¹⁾, 송대리유적²²⁾과 청주 내

- 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 - 清州市, 槐山郡』; 1986.『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調査報告 第 17集)』; 金榮振, 朴相尙, 1990. 『清原郡 文化遺蹟』(清州大學校 博物館); 이원복 외, 1992.『鎮川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朴瑛雨, 1993.『美湖川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禹鍾允, 1994.『금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Ⅰ)』『年報』2 (忠北大學校 博物館); 趙祥紀, 1994.『미호천유역 문화유적 지표조사(Ⅰ)』『年報』3 (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4.『清州科學産業園地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3.『清州市 文化遺蹟』.
- 3)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州市』(調査報告 第 58集).
- 4) 清州大學校 博物館, 2000.『文化遺蹟分布地圖 - 清原郡』.
- 5) 李隆助, 1983.『清原 두루봉洞窟 舊石器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Ⅰ)』(忠北大學校 博物館).
- 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5.『청원 작은용굴유적』(調査報告 第105冊).
- 7)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 報告書(清原郡)』.
- 8) 李隆助, 1979.『大淸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 9) 李隆助, 1981.『한국의 선사문화 -그 분석 연구(담구당)』.
- 10) 李隆助, 禹鍾允 편, 2000.『清原 小倉里 舊石器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 11)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清原 老山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 1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清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 1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진천 장관리유적』.
- 14)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진천 송두리 구석기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 15) 李隆助, 1979.『大淸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 16) 朴瑛雨, 1993.『美湖川 流域 地表調査 報告書』(國立清州博物館).
- 17) 申鍾煥, 1993.『清原 雙清里 住居址』(國立清州博物館).
- 18)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7.『上黨山城 - 서장대 및 남문 외 유적지 조사보고』.
- 19) 李隆助 외, 1994.『清原 宮坪里 靑銅器遺蹟』(忠北大學校 先史文化研究所).
- 2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선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산청 강루리, 청원 내수리』.
- 21)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黃灘里遺蹟』(연구총서 제 10집).
- 2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清原 梧倉遺蹟』.

곡동유적²³⁾, 향정동, 외북동 유적²⁴⁾, 비하동 유적²⁵⁾, 가정3지구유적²⁶⁾, 용암동유적²⁷⁾, 봉명동유적²⁸⁾이 있다.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으로는 청주 봉명동유적²⁹⁾, 신봉동유적³⁰⁾, 송절동유적³¹⁾, 가정4지구유적³²⁾, 명암동유적³³⁾, 용담동유적³⁴⁾, 용암동유적³⁵⁾, 청원 주성리유적³⁶⁾, 송대리유적³⁷⁾, 상평리유적³⁸⁾, 남촌리유적³⁹⁾, 미천리유적⁴⁰⁾ 등이 있다.

이 밖에 현재의 충북지역은 삼국시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관방유적이 있다. 특히 청주시 부용면 일원에는 1개면에 10여개의 산성유적이 밀집하고 있으며, 고구려 산성인 남성곡산성이 발굴조사되어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보은 삼년산성으로부터 진천 도당산성에 이르기까지 2~30리마다 신라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들이 서로 상망하고 있어 신라가 경주 - 상주 - 보은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대략을 알려주고 있다.

청주시에는 모두 36개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방유적으로 지금까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은 경복동토성⁴¹⁾, 우암산토성, 당차산토성⁴²⁾, 부모산성⁴³⁾, 상당산성⁴⁴⁾, 청주읍성⁴⁵⁾과 남성곡

- 23) 車勇杰, 1986.『清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報告』『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忠北大學校 博物館).
- 24) 尹武炳, 1986.『清州 香亭,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위책』.
- 25) 한국고고학회, 1974.『청원 비하리 출토 일괄유물』『고고학』3 : 김성명, 신종환, 1993.『청주 비하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국립청주박물관).
- 26) 이용조, 2002.『청주지역 선사문화』(청주문화원).
- 2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清原 龍岩遺蹟Ⅰ~Ⅲ』.
- 28) 車勇杰 외, 2004.『清州 鳳鳴洞遺蹟(Ⅲ)-Ⅳ地區 調査報告②』(忠北大學校 博物館).
- 29) 車勇杰 외, 2002.『清州 鳳鳴洞遺蹟(Ⅰ)-Ⅳ地區 調査報告』(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清州 鳳鳴洞遺蹟(Ⅱ)-Ⅳ地區 調査報告①』(忠北大學校 博物館).
- 30)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3.『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82年度 調査』; 1990.『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1990年度 調査』; 金成明 외, 1993.『清州 新鳳洞 B地區 2次 發掘調査 報告書』『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史研究所); 車勇杰 외, 1995.『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車勇杰, 趙祥紀 외, 1996.『清州 新鳳洞 古墳群 - 1995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車勇杰 외, 2002.『清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 調査』(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3.『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31) 車勇杰 외, 1995.『清州 松節洞 古墳群』(忠北大學校 博物館); 車勇杰, 趙祥紀 외, 1994.『清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調査 報告書』; 車勇杰, 趙祥紀 외, 1995.『清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93年度 發掘調査』(百濟文化開發研究所, 忠北大學校 博物館).
- 32) 車勇杰 외, 2002.『清州 清州 佳景4地區 遺蹟(Ⅰ)』(忠北大學校 博物館); 禹鍾允 외, 2004.『清州 清州 佳景4地區 遺蹟(Ⅱ)』(忠北大學校 博物館).
- 33) 國立清州博物館, 2000.『清州 明岩洞遺蹟(Ⅰ) - 1998年度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清州博物館, 2001.『清州 明岩洞遺蹟(Ⅱ) - 1998年度 試掘 및 發掘調査 報告書』.
- 34) 國立清州博物館, 2001.『清州 龍潭洞 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 3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清原 龍岩遺蹟Ⅰ』.
- 3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清原 主城里 遺蹟』.
- 3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清原 梧倉遺蹟』.
- 38) 김병모, 1986.『청원 상평리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박물관).
- 39)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2000.『남촌리 유적』.
- 4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5.『清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4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清州 井北洞 土城Ⅰ-1997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清州 井北洞 土城Ⅱ-2000년도 發掘調査 報告書』.
- 42)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0.『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43) 車勇杰 외, 1999.『清州 父母山城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산성⁴⁶⁾, 소재산성⁴⁷⁾, 낭비성⁴⁸⁾, 구라산성⁴⁹⁾, 양성산성⁵⁰⁾, 저산성⁵¹⁾ 등이 있다.

이처럼 청주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지방의 고고, 역사적인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삼한시대의 청주는 마한의 국읍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력들은 토착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문헌자료와 함께 백제시기의 청주 신봉동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들 수 있다.

이런 자료들로 볼 때 3세기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자치적인 지배권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주를 포함한 충북지역은 삼국 항쟁기에 삼국간의 각축장이었다. 청주 정북동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비롯한 청원군의 여러 성터들이 백제시기의 역사를 간직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용면 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발굴조사 됨으로써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청주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진흥왕대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대세 속에서 6세기경 신라에 의해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 문의(一牟山郡)가 이미 신라의 장악 하에 들어갔고 474년 이 곳의 양성산성(壤城山城)이 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의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써 정치적, 문화적으로 비중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방어도시의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 또 한차례 중요 쟁쟁지역이 되었다. 청주 호족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기반세력이었지만 점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하였다. 그리하여 청주 호족들은 크게 친궁예세력과 친왕건세력으로 분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4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上黨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車勇杰 외, 1997.『上黨山城』(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車勇杰 외, 1999.『上黨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上黨山城 - 城壁補修區間內 試 發掘調査 報告書』.

45)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1.『淸州邑城 南石橋』.

46) 車勇杰 외, 2005.『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忠北大學校 博物館).

47) 車勇杰 외, 2005.『淸原 芙蓉面地域 山城』(中原文化財研究所).

48) 車勇杰 외, 2001.『淸原 狼臂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49) 車勇杰 외, 2001.『淸原 疆羅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0) 車勇杰 외, 2001.『淸原 壤城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車勇杰 외, 2001.『淸原 壤城山城 貯水池 發掘調査 略報告書』(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51) 車勇杰 외, 1999.『淸原 猪山城』(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研究所).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이들 청주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려광종때 설치한 『용두사지철당간기』(국보 제 41호)에 의하면 김(金), 손(孫), 경(慶), 한(韓)씨 등의 1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청주지역에는 한(韓), 이(李), 김(金), 락(郭), 손(孫), 경(慶)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려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보게 된다. 즉 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중의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5) 12목이 폐지되고 10도로 나누어 12주를 두게 되자 청주는 충원도에 속한 전절군(全節軍)으로 불리는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를 폐하여 안무사(按撫使)로 하였고,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다시 설치할 때 청주는 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개국 초에 불려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지금의 청주시 문의면)과 목주군(木州郡;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 군과 진주(鎭州; 진천군), 전의(全義; 연기군 전의면), 청주, 도안(道安; 괴산군 도안면), 청당(靑塘;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연기군), 회인(懷仁; 보은군 회남, 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領知事府; 공주)와 홍주(洪州; 홍성군), 천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令官)을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川縣; 괴산군 청천면)이 있고 향은 2곳에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鄉; 대전 동면)과 덕평향(德坪鄉; 전의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청주시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曲;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豐部谷;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閑身部谷; 괴산군 청천면)의 4곳이다.

조선 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의 우호적이었던 경복흥(慶復興)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충(鄭摠), 정탁(鄭擢), 3등 공신 이었던 한상경(韓尙敬)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에 들어와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監司兼牧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가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5품의 판관, 종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년(1449) 감사겸목제가 잠시 부활한 적이 있었다. 이후 세조 때에는 감사겸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제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1455) 군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의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의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의에 천안, 온양, 진의, 평택, 아산, 목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청주는 청주권의 행정, 군사의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청주 지역은 몇 차례 행정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같은 33년(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 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 군의 하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제 하에 추진된 개혁에 대한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귀가 이루어져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면서 충청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서 빠져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거 부(府), 군(郡), 면(面)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나머지 면은 청원군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옥산면 수락리는 땅덕산에 폭포가 있었으므로 '무중골'이라 하였다. 수락은 정조때부터 쓰인 이름이다. '수락'은 '무중골'에서 '무중'을 뜻을 빌어 표기한 이름으로, '수락'은 오늘날 '무중골'의 별칭과 법정리명 '수락리'와 통칭으로 함께 쓰인다. 수락리는 본래 청주군 서강외이상면 지역이었다. 1914년에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모일리를 병합하여 수락리라 해서 옥산면에 편입하였다.



[사진 5] 시굴조사 후 원경



[사진 6] 시굴조사 후 전경

Ⅲ. 조사내용

이번 조사는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유적(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발굴조사이다. 시굴조사(면적 22,850㎡)를 통해 청동기~조선시대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범위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면적 2,018㎡).

1. 시굴조사

시굴조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한 능선정상부(해발 약82m)를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한 동향사면부와 함께 수락리 마을로 진입하는 1차선 도로(금계사정로)와 맞닿은 서향사면부를 1지점, 그 외 남향사면부를 2지점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너비 2m의 트렌치를 1지점 51개, 2지점 35개 등 총 86개를 설치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양상은 표토층 - 갈색모래층 - 풍화암반층으로 비교적 단순한 퇴적양상을 보이며, 일부 계곡부에서는 모래층 아래로 모래질찰흙층이 두텁게 퇴적된 경우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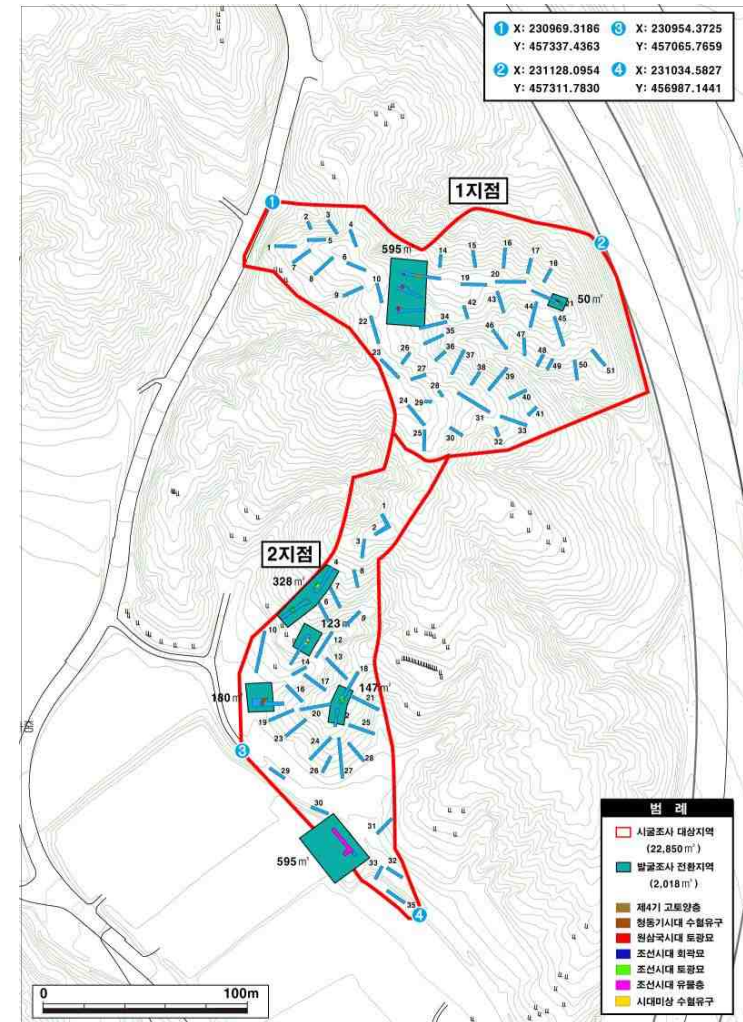
조사결과, 1지점에서는 정상부 주변 완만한 사면상단부에서 원삼국시대 토광묘와 제4기 고토양층이 확인되었고,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향사면의 끝부분에서 조선시대 회곽묘가 확인되었다. 또 2지점에서는 남향사면의 날등부를 따라 다수의 조선시대 토광묘와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고, 사면하단부와 계곡부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는 수혈유구 1기가 찾아졌다.

한편 2지점 내 남쪽 경계부근에서 조선시대 토기편과 자기편이 혼재된 유물층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확인되는데, 유구의 바닥선이나 벽선, 또는 내부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고, 노출범위가 조사지역의 바깥인 경작지를 따라 넓게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사진 7] 시굴조사지역 전경(①1지점, ②2지점)

조사기간 중에 개최한 학술자문회의(2016.06.17.) 결과, 공사시행 전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발굴전환범위를 설정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성격 및 조성시기를 규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유구가 확인된 범위를 중심으로 발굴범위를 설정하였다(면적 2,018㎡).



[지도 6] 시굴조사 대상지역 및 발굴조사 전환지역

2. 발굴조사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기, 수혈 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1기, 수혈군 1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숯가마 1기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사진 8] 발굴조사지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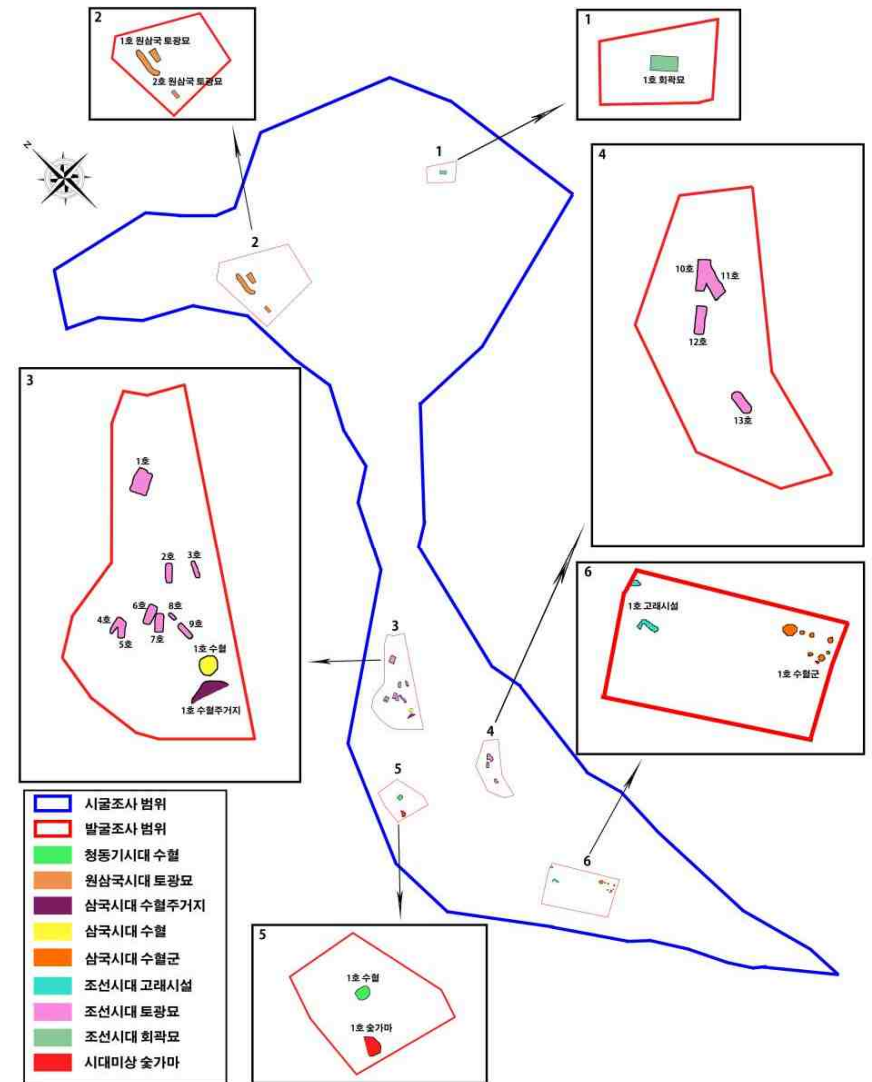
1) 청동기시대

(1) 수혈유구

청동기시대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내 남쪽 능선의 사면하단부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바닥 전면에 걸쳐 목탄 부스러기가 다량 포함된 사질토가 두께 5cm 내외로 깔려 있었다. 내부퇴적토에서 다수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사진 9]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지도 7] 유구분포도

2) 원삼국시대

(1) 토광묘

원삼국시대 토광묘는 조사지역 내 정상부 주변 사면상단부(해발높이 82m)에서 2기가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어 잔존상태는 불량하다. 2기의 토광묘 중 1기에서 눈썹 형태의 주구가 함께 확인되었다.

1호 토광묘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매장주체부의 형태만 확인된다. 주구는 토광묘에서 능선의 정상부 쪽으로 약 2m 거리를 두고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눈썹형으로, 양측면의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유물은 토광묘 내 서벽에서 철부와 철촉이 각 1점씩 출토되었고, 동벽쪽으로 토기동체부편이 산재하여 출토되었다.

2호 토광묘는 1호 토광묘에서 남쪽으로 약 6~7m 떨어져 있으며,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다. 1호 토광묘와 달리 주구는 확인되지 않고 매장주체부만 조사되었다. 유물은 토광묘 내 북편에서 원저단경호와 토기소호를 비롯하여 모두 3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표 1】 원삼국시대 토광묘 현황

호수	묘제	평면형태	규 모 (cm)				유물 출토 위치	출토유물
			길이	너비	최대 깊이	장단비		
1호	주구토광묘	장방형	358	126	18	2.84	중상부	토기동체부편, 철부, 철촉
		(주구)	914	128	20	·	·	·
2호	토광묘	장방형	238	96	17	2.48	상부	원저단경호, 토기소호 등 토기3



【사진 10】 원삼국시대 토광묘(①1호, ②2호)

3) 삼국시대

(1) 수혈주거지

수혈주거지는 조선시대 토광묘가 다수 조사된 남쪽 능선의 사면중하단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대부분이 사면삭평되었으며, 아궁이와 주거지의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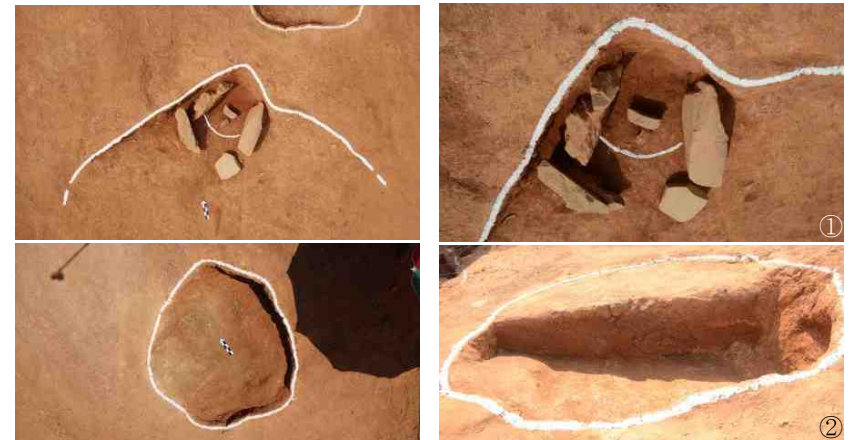
의 북쪽 상부에 붓돌을 좌우로 세워 간단한 형태의 아궁이를 시설하였다. 아궁이 주변 바닥면에서 토기완, 토기구연부편, 토기저부편 등 4점이 출토되었다.

(2) 수혈유구

수혈은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북쪽(상단)에 인접하여 조성되었고,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인접 유구인 수혈주거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표 2】 수혈주거지 및 수혈유구 현황

호수	평면형태	규 모 (cm)				유물 출토위치	출토유물
		길이	너비	최대 깊이	장단비		
1호 수혈주거지	(타원형)	(210)	(246)	25	-	아궁이 주변	토기완 등 토기편4
1호 수혈	원형	183	164	32	1.12	·	·



【사진 11】 삼국시대 유구(①수혈주거지, ②수혈)

4) 통일신라시대

(1) 구들형주거지

구들형주거지는 시굴조사시 조선시대 유물층이 확인된 조사지역 남쪽 경계와 접한 발경작지에서 잔존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현재 30~5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만든 ‘—’자형의 고래열 1줄만 남아있으며, 고래열의 동쪽 끝에서 아궁이의 바닥면으로 추정되는 소결흔이 확인된다. 화기(火氣)의 진행방향은 아궁이의 위치와 동에서 서로 가면서 바닥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동→서로 판단된다. 배연부 및 기타 다른 시설은 후대 지형훼손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상부퇴적층에서 토기구연부편 등 경질토기편 3점이 출토되었다.

[표 3]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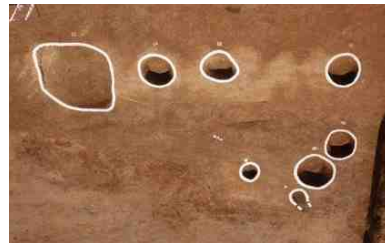
호수	평면형태	규 모 (cm)				유물출토 위치	출토유물
		길이	너비	최대 깊이	장단비		
1호 구들형주거지	장방형	344	78	-	-	-	토기구연부편 등 경질토기편3



[사진 12]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2) 수혈군

수혈군은 조사지역의 남쪽 경계 발경작지에서 총 8기가 불규칙하게 배치된 채로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7기가 원형이며, 1기가 방형이다. 단면형태는 바닥이 편평한 'U'자형으로, 내부에서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퇴적토에서 토기완과 토기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사진 13] 통일신라시대 수혈군

[표 4] 통일신라시대 수혈군 현황

호수	평면형태	규 모 (cm)				유물출토 위치	출토유물
		길이	너비	최대 깊이	장단비		
1-1 호 수혈	말각방형	74	78	52	1.54	중심부	토기완, 토기동체부편
1-2 호 수혈	원형	33	34	37	0.97	-	-
1-3 호 수혈	원형	30	34	23	0.88	-	-
1-4 호 수혈	원형	32	29	25	1.10	-	-
1-5 호 수혈	원형	34	31	24	1.09	-	-
1-6 호 수혈	원형	38	41	25	0.92	-	-
1-7 호 수혈	원형	17	17	13	1.00	-	-

5) 조선시대

(1) 토광묘

조선시대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남쪽 능선 정상부 및 사면부에서 모두 13기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목관의 사용유무에 따라 토광목관묘와 토광직장묘로 구분하였다.

토광목관묘는 1~7, 10, 13호 토광묘 등 모두 9기이다. 남쪽 능선 사면부에 위치한 1~7호 토광묘는 합장묘인 1호 토광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그 아래로 부채꼴형태로 분포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유물은 1호 토광묘의 요갱에서 백자발, 2, 3, 5, 11호 토광묘의 편방에서 청동순가락, 백자잔, 백자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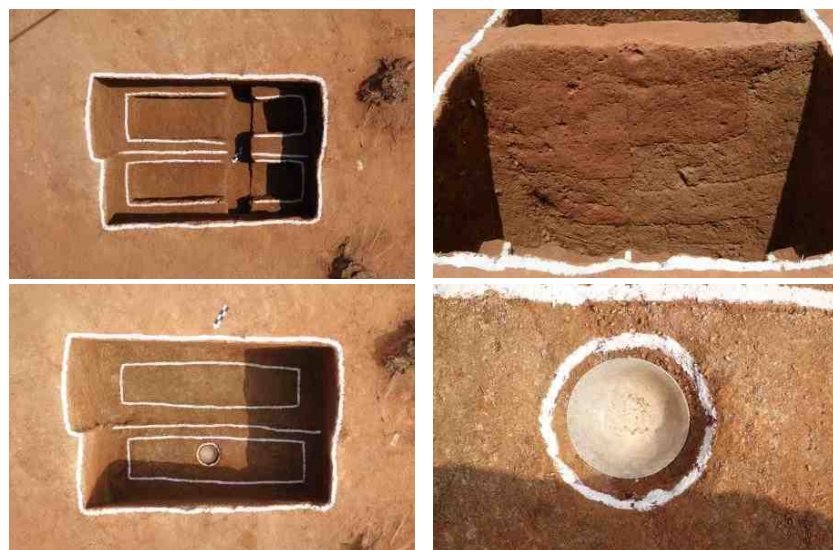
토광직장묘는 8, 9, 11, 12호로 모두 4기로, 임지나 묘광의 형태로 보아 토광목관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회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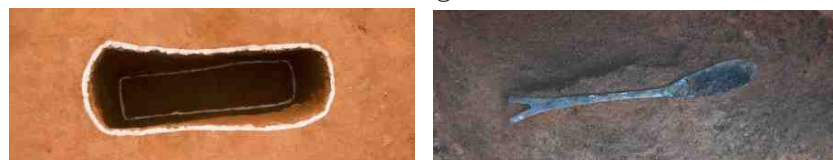
조선시대 회곽묘는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길게 뻗은 동향사면의 남동부에 위치한다. 후대 이장으로 인해 회곽묘의 우측 장벽이 훼손되었다. 회곽은 층층쌓기로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회곽의 상면에서 회벽단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횡대를 받친 후 천회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표 5] 조선시대 분묘 현황

호수	묘제	평면형태	규 모 (cm)				분묘 형식	유물출토 위치	출토유물
			길이	너비	최대 깊이	장단비			
1호	토광묘	좌 장방형	253	86	130	2.94	동혈합장 목관묘	-	-
		우 장방형	241	75	128	3.21		요갱	백자발
2호	토광묘	말각장방형	196	62	111	3.16	목관묘	좌편방, 보강토	청동순가락, 관정13
3호		세장방형	229	61	150	3.75	목관묘	좌편방	청동순가락
4호		세장방형	225	56	74	4.01	목관묘	보강토	관정14 (5호와 중복)
5호		장방형	201	77	90	2.61	목관묘	좌편방, 보강토	청동순가락 (4호와 중복)
6호		장방형	250	110	76	2.27	목관묘	-	-
7호		말각장방형	260	85	87	3.05	목관묘	-	-
8호		장방형	150	59	22	2.54	직장묘	-	-
9호		세장방형	206	50	73	4.12	직장묘	-	-
10호		장방형	235	83	53	2.83	직장묘	-	백자접시2, 백자잔 (11호와 중복)
11호		장방형	229	105	168	2.18	목관묘	보강토	관정9 (10호와 중복)
12호		장방형	237	85	108	2.79	직장묘	-	-
13호		말각장방형	243	87	55	2.79	목관묘	-	-
1호	회곽묘	장방형	235	105	110	2.24	회곽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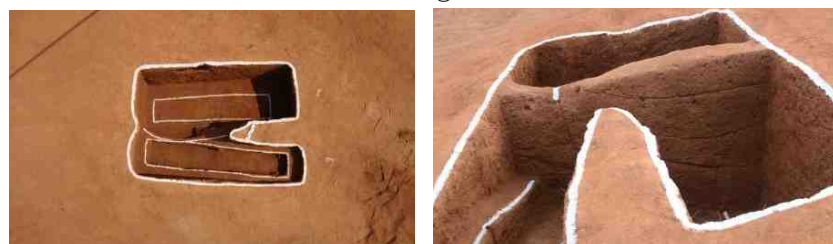
1호 토광묘



2호 토광묘



3호 토광묘



4, 5호 토광묘

[사진 14] 조선시대 토광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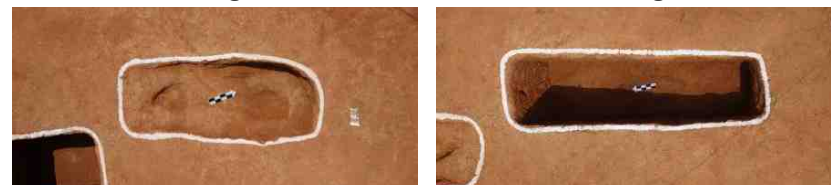


5호 토광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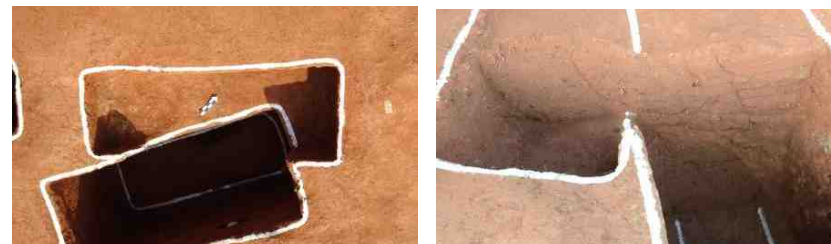
6호 토광묘

7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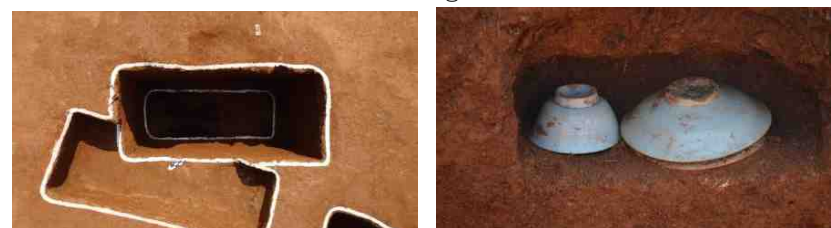


8호 토광묘

9호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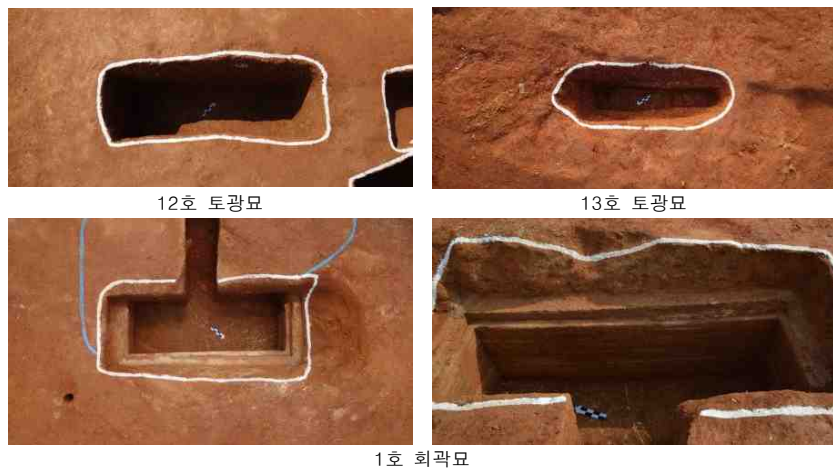


10호 토광묘



11호 토광묘

[사진 15] 조선시대 토광묘 및 출토유물



12호 토광묘

13호 토광묘

1호 회곽묘

[사진 16]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

6) 시대미상

(1) 숯가마(추정)

숯가마는 남사면의 하단부에 조성되었으며, 사면식평과 후대 형성된 자연도랑으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다. 회색을 띠는 경화된 바닥면 위에 목탄이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숯가마로 추정된다.



[사진 17] 시대미상 숯가마



[사진 18] 현장조사(①~④) 및 학술자문회의(⑤~⑧) 모습

IV.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에 대한 시·발굴조사(문화재청 발굴허가 제2016-0716호)로, 행정구역상 위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시굴조사 22,850㎡, 발굴조사 2,018㎡이다.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단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조선시대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1기와 수혈군 1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숫가마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으며, 철부, 청동순가락 등 금속류 42점, 원저단경호, 백자접시 등 토도류 23점을 비롯하여 모두 6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 현장조사 중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향후 유적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학술자문위원회(2016.08.25., 자문위원 차용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양시은 충북대학교 교수)결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여 특별히 보존조치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유구는 없으며, 목탄 등 일부 연대측정자료를 수집,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에 결과를 보고하여 학술적 자료로 이용케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보완조사와 기록을 완료하는 하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매몰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유적의 처리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3. 이에 우리 조사단은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보완조사와 기록,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한 후 복토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적법한 행정절차 후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은 청주와 천안, 진천 등 3개의 지역이 맞닿은 위치에 자리하며, 천안에서 발원하여 유적의 동쪽을 지나 미호천으로 합류하는 병천천이 흐르고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주거 또는 분묘유구가 조사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일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주변 유적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각 시기별,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018㎡	조사 기관	한국전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년 7월 25일 ~ 8월 29일 (실조사일수 30일 중 현재 23일 진행)	회의일시	2016년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유적 현황 및 성격	구분산포지의 특성에서 하안부 경사면에서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유적으로, 회곽묘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고대~중세 세기의 수혈지 1기, 수혈군 1기, 조선시대 구들형주거지 1기, 토광묘 13기, 회곽묘 1기 등 총 22기의 유구가 조사됨. 대부분의 유구들은 파리가 심하여 비박만 잔존된 경우가 많음.		
조사기관 의견 검토	산발적으로 분포한 유구들에 대해 시기별·유구별별로 별다른 주목을 세분화시키지 않았으며, 대체로 유구 수량을 잘 파악하여 조사함.		
추가 의견	①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여 특별히 보존조치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유구는 없다. ② 목탄 등 일부 연대측정 자료를 수집,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에 결과를 보고하여 학술적 자료로 활용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관련 시·발굴조사 기록을 완료하는 즉시 매몰하여도 무방하며, 적법한 행정절차 후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길	충북대학교	양 시 은
2016년 8월 25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철부, 청동손가락 외	42건 42점	
2. 옥석유리	.	.	
3. 토도	원저단경호, 백자접시 외	23건 23점	
4. 골각	.	.	
5. 목죽초칠	.	.	
6. 기타	.	.	
계		65건 65점	

2. 출토유물 세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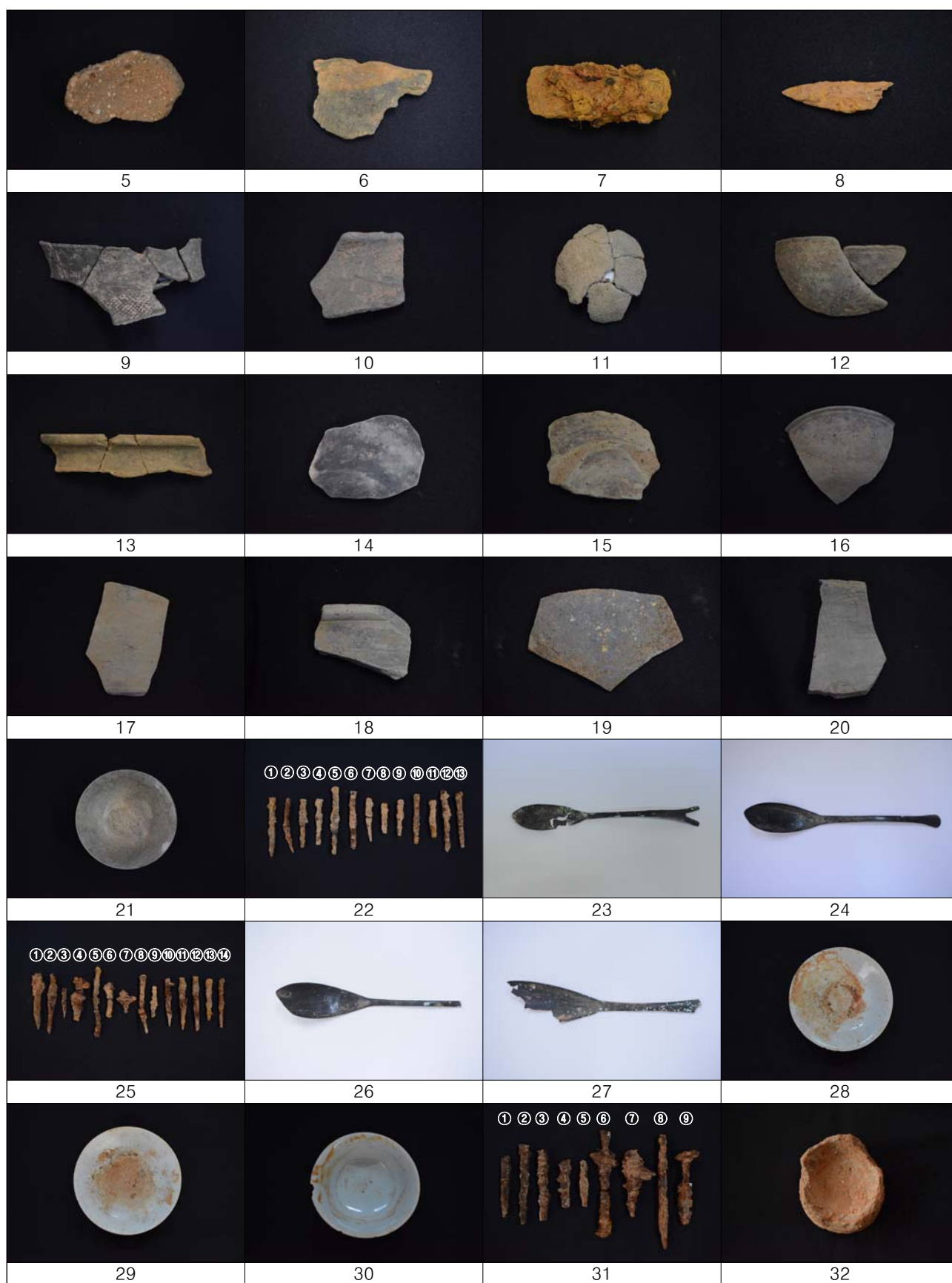
유 물 목 록										
일련 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 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폭 (저경)	두께		유구	번호
1	토기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9	8.0	0.3	1	1호 수혈유구	1
2	토기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7	7.7	0.8	2	1호 수혈유구	2
3	토기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5	6.3	0.7	3	1호 수혈유구	3
4	토기저부편	1	토도	청동기	5.2	11.1	1.0	4	1호 수혈유구	4
5	토기저부편	1	토도	청동기	2.9	5.9	0.6	5	1호 수혈유구	5
6	토기동체편	1	토도	원삼국	5.3	8.5	0.6	6	1호 주구토광묘	1
7	철부	1	금속	원삼국	11.3	4.4	2.2	7	1호 주구토광묘	2
8	철촉	1	금속	원삼국	5.5	1.6	0.4	8	1호 주구토광묘	3
9	토기호	1	토도	원삼국	7.6	21.2	0.5	9	2호 토광묘	1
10	토기호	1	토도	원삼국	5.3	6.7	0.5	10	2호 토광묘	2
11	토기발	1	토도	원삼국	10.5	10.6	0.4	11	2호 토광묘	3
12	토기구연부편	1	토도	삼국	4.8	4.7	0.3	12	1호 수혈주거지	1
13	토기구연부편	1	토도	삼국	3.0	12.9	0.3	13	1호 수혈주거지	2

일련 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 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폭 (저경)	두께		유구	번호
14	토기저부편	1	토도	삼국	4.1	6.2	0.2	14	1호 수혈주거지	3
15	토기저부편	1	토도	삼국	4.4	5.3	0.5	15	1호 수혈주거지	4
16	토기완	1	토도	통일신라	6.2	11	0.6	16	1호 수혈군	1
17	토기동체부편	1	토도	통일신라	12.5	8.1	0.7	17	1호 수혈군	2
18	토기구연부편	1	토도	통일신라	4.2	5.5	0.7	18	1호 구들형주거지 상부	1
19	토기동체부편	1	토도	통일신라	9.3	6.1	0.3	19	1호 구들형주거지 상부	2
20	토기동체부편	1	토도	통일신라	5.0	7.4	1.1	20	1호 구들형주거지 상부	3
21	백자발	1	토도	조선	7.6	18.8	0.2	21	1호 토광묘	1
22	관정	1	금속	조선	11.8	1.1	1.2	22-①	2호 토광묘	1
23	관정	1	금속	조선	10.8	1.2	0.6	22-②	2호 토광묘	2
24	관정	1	금속	조선	9.5	1.1	0.7	22-③	2호 토광묘	3
25	관정	1	금속	조선	8.7	0.7	0.7	22-④	2호 토광묘	4
26	관정	1	금속	조선	13.3	1.2	0.6	22-⑤	2호 토광묘	5
27	관정	1	금속	조선	11.2	1.1	0.6	22-⑥	2호 토광묘	6
28	관정	1	금속	조선	8.5	1.0	0.5	22-⑦	2호 토광묘	7
29	관정	1	금속	조선	5.9	1.1	0.6	22-⑧	2호 토광묘	8
30	관정	1	금속	조선	7.9	1.2	0.6	22-⑨	2호 토광묘	9
31	관정	1	금속	조선	9.6	1.0	0.6	22-⑩	2호 토광묘	10
32	관정	1	금속	조선	7.4	1.0	0.7	22-⑪	2호 토광묘	11
33	관정	1	금속	조선	12.3	1.0	0.5	22-⑫	2호 토광묘	12
34	관정	1	금속	조선	10.8	1.1	0.7	22-⑬	2호 토광묘	13
35	청동손가락	1	금속	조선	26.1	3.5	0.1	23	2호 토광묘	14
36	청동손가락	1	금속	조선	22.9	3.4	0.1	24	3호 토광묘	1
37	관정	1	금속	조선	13.8	3.1	0.8	25-①	4호 토광묘	1
38	관정	1	금속	조선	14.6	2.5	0.7	25-②	4호 토광묘	2
39	관정	1	금속	조선	7.0	1.0	0.6	25-③	4호 토광묘	3
40	관정	1	금속	조선	10.1	3.2	0.6	25-④	4호 토광묘	4
41	관정	1	금속	조선	16.8	1.5	0.7	25-⑤	4호 토광묘	5
42	관정	1	금속	조선	8.2	2.2	0.9	25-⑥	4호 토광묘	6
43	관정	1	금속	조선	5.3	4.5	0.5	25-⑦	4호 토광묘	7
44	관정	1	금속	조선	14.0	1.7	0.8	25-⑧	4호 토광묘	8

일련 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 번호	비 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폭 (저경)	두께		유구	번호
45	관정	1	금속	조선	부7.9	1.1	0.7	25-⑨	4호 토광묘	9
46	관정	1	금속	조선	11.2	1.2	0.6	25-⑩	4호 토광묘	10
47	관정	1	금속	조선	12.6	1.7	0.7	25-⑪	4호 토광묘	11
48	관정	1	금속	조선	13.1	1.5	0.4	25-⑫	4호 토광묘	12
49	관정	1	금속	조선	10.1	1.4	0.9	25-⑬	4호 토광묘	13
50	관정	1	금속	조선	12.2	0.7	0.7	25-⑭	4호 토광묘	14
51	청동술가락	1	금속	조선	19.9	3.9	0.1	26	5호 토광묘	1
52	청동술가락	1	금속	조선	18.6	3.3	0.1	27	5호 토광묘	2
53	백자접시	1	토도	조선	3.4	16.2	0.2	28	11호 토광묘	1
54	백자접시	1	토도	조선	3.7	15.0	0.2	29	11호 토광묘	2
55	백자잔	1	토도	조선	4.9	10.4	0.2	30	11호 토광묘	3
56	관정	1	금속	조선	8.0	1.0	0.6	31-①	11호 토광묘	4
57	관정	1	금속	조선	10.5	1.0	0.5	31-②	11호 토광묘	5
58	관정	1	금속	조선	9.1	0.9	0.7	31-③	11호 토광묘	6
59	관정	1	금속	조선	6.2	1.2	0.7	31-④	11호 토광묘	7
60	관정	1	금속	조선	6.0	0.7	0.7	31-⑤	11호 토광묘	8
61	관정	1	금속	조선	13.8	1.6	0.6	31-⑥	11호 토광묘	9
62	관정	1	금속	조선	8.7	3.2	0.9	31-⑦	11호 토광묘	10
63	관정	1	금속	조선	15.1	0.7	0.6	31-⑧	11호 토광묘	11
64	관정	1	금속	조선	9.7	0.9	0.7	31-⑨	11호 토광묘	12
65	토기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2	8.7	1.1	32	시굴조사	1
총계	65건 65점									

3. 출토유물 사진 목록





조사기관 의견서

1.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유적
2. 조사유형 : 시·발굴조사
3.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4. 조사지역의 위치와 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시굴 22,850㎡/발굴 2,018㎡)
5. 조사기간
2016.06.08.~06.17.(실조사일수 8일, 시굴)/2016.07.25.~08.29.(실조사일수 25일, 발굴)
6. 조사의뢰 :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7.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8.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1기와 수혈군 1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숫가마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으며, 철부, 청동순가락 등 금속 42점, 원저단경호, 백자 접시 등 토도 23점을 비롯하여 모두 6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장조사 중 개최한 학술자문위원회의(2016.08.25.)결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여 특별히 보존조치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유구는 없으며, 목탄 등 일부 연대측정자료를 수집,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에 결과를 보고하여 학술적 자료로 이용케 할 필요가 있다. 또 보완조사와 기록을 완료하는 하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매몰하여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자문의견이 제시되었다.

9. 조사기관 의견

우리 조사단은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보완조사와 기록,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한 후 복토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적절한 행정절차 후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 9.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유적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번지 일원		
조사 면적	2,018㎡	조사 기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 기간	2016년 7월 25일 ~ 8월 29일 (실조사일수 30일 중 현재 23일 진행)	회의일시	2016년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유적 현황 및 성격	구릉상면의 정상에서 하안부 경사면에 산발적으로 분포한 유적으로는 대형기대 흙벽돌기, 유물호석기 토광보자기, 고대~중세 세의 수혈기 말 수혈유물지, 수혈조각기, 고신시대 구동석벽기 토광보자기, 회막보자기 등 총 2개의 유구가 관찰됨. 대부분의 유구들은 파리가 심하여 한쪽만 관찰된 경우가 많음.		
조사기관 의견 검토	현장에서는 분포된 유구들에 대해 시기별, 유구 분포리 별로 주의를 세분화 조사하였으며, 대체로 유구 성격은 잘 파악하여 조사함.		
추가 의견	①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여 특별히 보존 조치를 요한다는 사항이 있는 유구는 없다. ② 목판 등 인공 연대측정 자료를 수집, 리플렉스 분석을 실시하여 보편적 수평으로 보편적 축척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다. ③ 관련 시발된 기증은 완료하는 즉시 매몰하거나 땅에 시발도록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충북대학교	차 용 결 	충북대학교	양 시 은 
2016년 8월 25일			

문화재(수락리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결과보고

□ 발굴조사 개요

1. 조 사 명 : 수락리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2. 유적현황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6-8번지 일원

면 적 : 2,018㎡ (전체 시굴조사 면적 22,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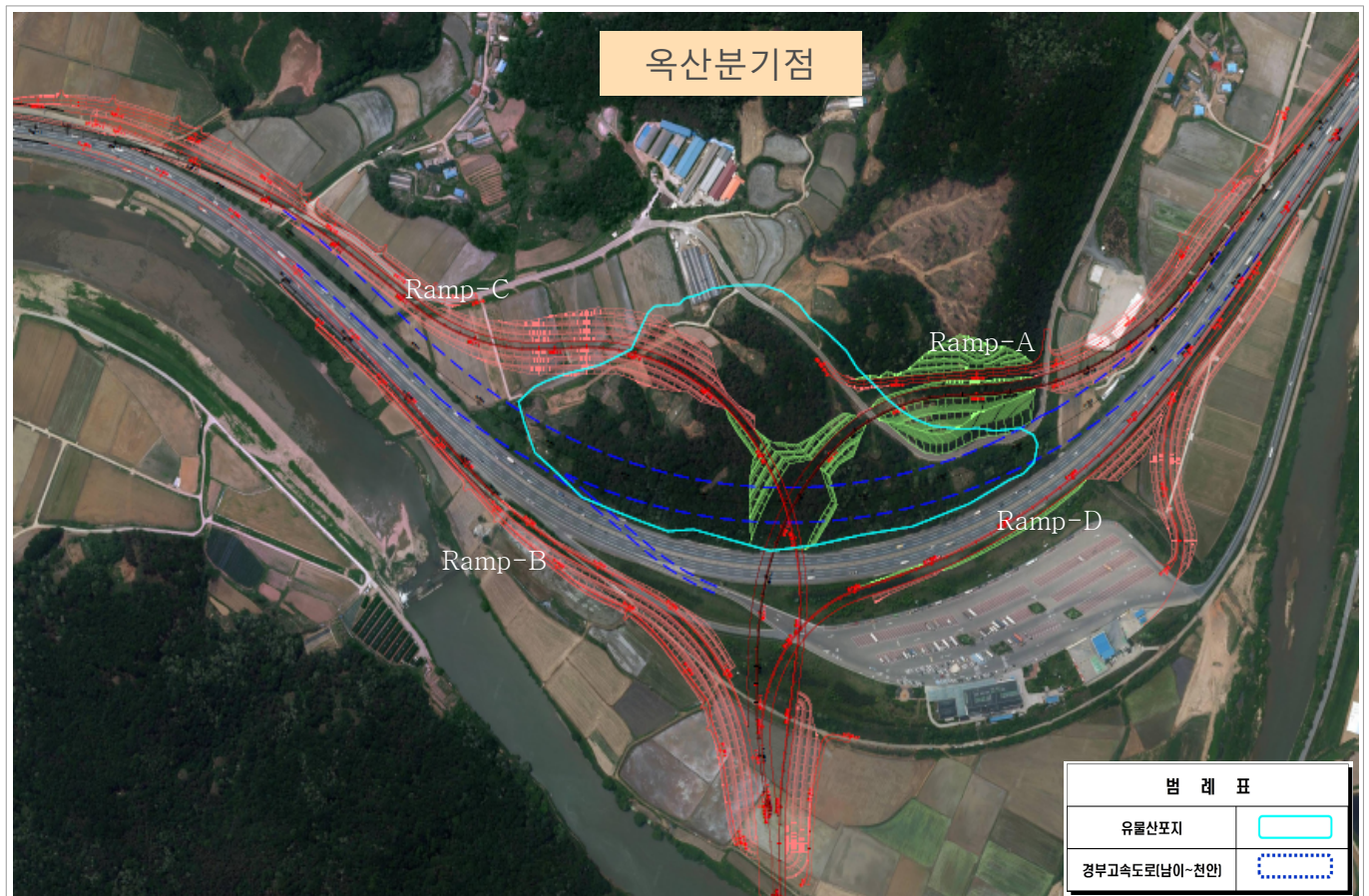
3. 조사목적

옥산-오창고속도로 사업구간내 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다수의 원삼국시대 또는 조선시대 토광묘와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및 조선시대 유물층이 확인되어 공사시행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형성시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4. 조사일정 : 2016.07.25.~08.29

5.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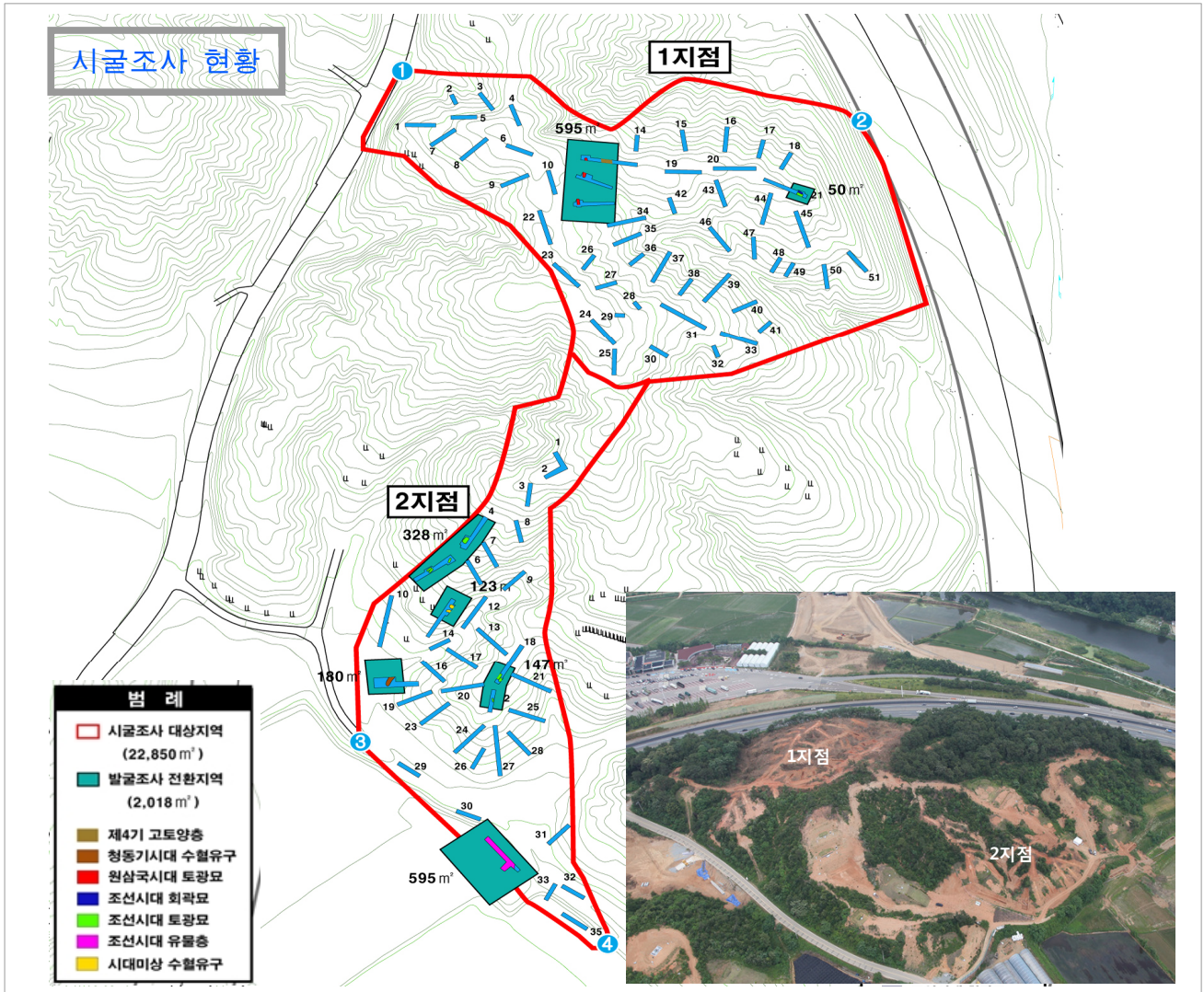
□ 유물산포지 현황



□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경위 및 조사결과

1. 시굴조사

- '16.05.19 옥산분기점 설계변경부지 내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문화재청)
※ 시굴조사면적 : 22,850㎡ (옥산분기점 변경에 따른 추가 편입용지 포함)
- '16.05.31 수락리 유물산포지 발굴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6844)
- '16.06.08~06.17(8일) 수락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 '16.06.17 학술자문회의(충북대학교 차용걸, 양시은)

조사내용 :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총 86개 시굴트랜치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 파악

- 시굴결과 : (1지점) * 11,12,13번 트랜치 :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
 * 21번 트랜치 : 조선시대 토광묘, 회곽묘 각 1기
 * 11,19번 트랜치 : 제4기 고토양층
 (2지점) * 4,5,18,22번 트랜치 : 조선시대 토광묘 5기
 * 11번 트랜치 : 시대미상 수혈유구 1기
 * 15번 트랜치 :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 34번 트랜치 : 조선시대 유물층 확인

자문결과 : 1지점 및 2지점에서 발견된 토광묘 및 수혈유구, 청동기시대 및 조선시대 유물층은 발굴조사 실시하고 나머지구간은 추가조사 불필요

- '16.07.14 발굴조사 부분완료 보고서 제출 및 발굴 변경허가 신청(문화재청)

2. 발굴조사

- '16.07.14 발굴 변경허가 신청(문화재청)
- '16.07.22 발굴 변경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9281)
 - 시굴조사시 확인된 유구의 정밀발굴조사 전환
- '16.07.25~08.29(실조사일 25일)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2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구들형주거지 1기와 수혈군 1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숯가마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으며, 철부, 청동숯가락 등 금속류 42점, 원저단경호, 백자접시 등 토도류 23점을 비롯하여 모두 65점의 유물이 출토됨.

○ '16.08.25 학술자문회의(충북대학교 차용걸, 양시은)

회의내용 : 수락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로 전환된 구간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출토 유구·유물(청동기~조선시대 매장문화재)에 대한 검토와 향후 유적의 처리방향 논의

자문결과 :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여 특별히 보존조치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유구는 없으며, 목탄 등 일부 연대측정자료를 수집,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에 결과를 보고하여 학술적 자료로 이용케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의견이 제시됨.

○ '16.08.26~08.29 결과 보고서 작성

○ '16.09.01 문화재 보존대책(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문화재청)

○ '16.09.02 유적 발굴 완료 조치 통보(문화재청, 발굴제도과-11055)

□ 발굴조사 결과

1. 발굴조사비용

(단위: 원, 부가세제외)

구 분	발굴면적	기준금액	총사업비 반영금액(경상)	비 고
수락리 발굴조사비	2,018㎡	226,490,000	121,000,000 (53.42%)	

※기준금액: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6-1호, 2016.01.08)
문화재협업포탈 고객지원센터 자동계산프로그램에서 산출한 금액임.

※총사업비 반영예정금액(불변): 92,633,000원 (경상 121,000,000÷110.67×84.725)

- 소비자물가지수: '04.09월 84.725, '16.06월 110.67 (한국은행, 2010=100)

2. 발굴조사 결과

- 수락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구간(22,850㎡)중 정밀발굴조사 전환일 필요한 구간(2,018㎡)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시행('16.07.25~08.29, 실조사일 25일)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등 22개의 유구 및 6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구의 잔존상태가 대체로 불량하여 특별히 보존조치를 요한다고 생각되는 유구가 없다는 의견으로 문화재청에 결과 보고 후 수락리 유물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 하였음.

- 발굴조사에 소요된 비용은 실시협약 제27조(문화재)③항에 의거 옥산분기점 설계 변경 실정보고에 포함하여 총사업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임.

별첨자료: 1. 발굴조사관련 문화재청 공문 각1부.

2. 발굴조사비 기준금액 산출근거 1부.

3.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문화재청

문 화 재 청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발굴 변경 허가(제2016-0716호)

1. 충북 청주시 소재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발굴 변경 허가 신청 관련입니다.

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니 제반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 적 명 :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나. 조사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다. 허가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조사기간		착수일로부터 8일	재착수일로부터 30일 (총38일)	○ 허가번호 : 제2016-0716호 ○ 실조사일 기준 실조사일 기준 ○ 1차 변경
면적 (㎡)	시굴	22,850㎡	-	
	발굴	-	2,018㎡	

라. 변경사유 : 시굴조사 확인된 유구의 정밀발굴조사 전환.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청주시장(문화예술과장),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김순철 학예연구관 이규훈 발굴제도과장 박한규 전결 2016. 7. 22.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9281 (2016. 7. 22.)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955 팩스번호 042-481-4959 / mhj0221@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문 화 재 청

정부는 3.14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발굴 완료
조치 통보(제2016-716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6-8 일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
간 내(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
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발굴완료 조치 관련

가.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및 발굴현장 안전 관리 철저

나.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의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규정 준수

2. 출토유물 관련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사실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문
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나.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 관련 자료를 ‘국가귀속 관리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청장에게는 전자파일로 제출토록 함. 끝.

문 화 재 청 장

수신자 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 청주시장(문화예술과장),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김순철 학예연구관 이규훈 발굴제도과장 전결 2016. 9. 2.
박한규

협조자

시행 발굴제도과-11055 (2016. 9. 2.)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www.cha.go.kr

전화번호 042-481-4955 팩스번호 042-481-4959 / mhj0221@korea.kr / 대국민 공개

실천하는 청렴강령 사랑받는 문화재청

별첨 2

발굴조사비 기준금액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비 고			
1.직접인건비	49,237,641 원		현장조사비+정리 및 보고서 작성비			
현장조사	항 목	단 가	근무일	인원	산출금액	
	조사단장	303,472원/일.인	X 4.7일	X 1인	=	1,426,318
	조사단장 주휴수당	303,472원/일.인	X 0일	X 1인	=	0
	책임조사원	234,032원/일.인	X 10.6일	X 1인	=	2,480,739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234,032원/일.인	X 2일	X 1인	=	468,064
	조사원	204,983원/일.인	X 35.1일	X 1인	=	7,194,903
	조사원 주휴수당	204,983원/일.인	X 7일	X 1인	=	1,434,881
	준조사원	139,400원/일.인	X 42.3일	X 1인	=	5,896,620
	준조사원 주휴수당	139,400원/일.인	X 8일	X 1인	=	1,115,200
	보조원	111,589원/일.인	X 40.1일	X 1인	=	4,474,718
	보조원 주휴수당	111,589원/일.인	X 8일	X 1인	=	892,712
	소 계					25,384,155
정리 및 보고서작성	조사단장	303,472원/일.인	X 3.3일	X 1인	=	1,001,457
	조사단장 주휴수당	303,472원/일.인	X 0일	X 1인	=	0
	책임조사원	234,032원/일.인	X 13.8일	X 1인	=	3,229,641
	책임조사원 주휴수당	234,032원/일.인	X 2일	X 1인	=	468,064
	조사원	204,983원/일.인	X 35.1일	X 1인	=	7,194,903
	조사원 주휴수당	204,983원/일.인	X 7일	X 1인	=	1,434,881
	준조사원	139,400원/일.인	X 38일	X 1인	=	5,297,200
	준조사원 주휴수당	139,400원/일.인	X 7일	X 1인	=	975,800
	보조원	111,589원/일.인	X 32.1일	X 1인	=	3,582,006
	보조원 주휴수당	111,589원/일.인	X 6일	X 1인	=	669,534
	소 계					23,853,486
2.직접경비	108,322,810 원		직접인건비의 220% 적용 (기준 220%~240%)			
3.제경비	49,237,641원		직접인건비의 100% 적용 (적용기준 100%~110%)			
4.학술료	19,695,056원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기준 20%~30%)			
5.합 계	226,490,000원		천단위절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26.>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허가번호 제2016-0716호	매장 문화재명 청주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수락리 유물산포지) 유적		
발굴유형 [] 표본 [] 시굴 [√] 정밀발굴	발굴 사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구제조사		
매장문화재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산 6-8	매장문화재산포지 면적 106,936㎡	발굴 면적 22,850㎡(시굴) 2,018㎡(발굴)	
발굴조사 기관명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조사단	조사단장	우종윤
발굴기간 2016. 06. 08. ~ 06. 17.(시굴) 2016. 07. 25. ~ 08. 29.(발굴)		책임조사원	손명수
현장조사일 25일(발굴) 8일(시굴)		조 사 원	경송현, 황해경, 윤병일
		준조사원	정효정, 황해경, 한승철
발굴 비용 32,500,000원(시굴) 133,100,000원(발굴)		보 조 원	박준용, 곽문수, 홍기택, 이정아, 곽문수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수혈유구	청동기	1	무문토기편	
출토유구	토광묘	원삼국	2	원저단경호, 철부	
	수혈주거지	삼국	1	토기완	
	수혈유구	삼국	1	-	
	구들형주거지	통일신라	1	경질토기편	
	수혈군	통일신라	1	-	
	토광묘	조선	13	백자잔, 백자접시	
	회곽묘	조선	1	-	
	숫가마	시대미상	1	-	
출토유물	종류	시대	수량	중요 유물	비 고
	금속	청동기, 조선	42	철부, 청동손가락	-
	토도	청동기~통일신라, 조선	23	토기호, 백자접시	-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계획	2년이내 조사기관에서 발간예정임.
----------------------	--------------------

위와 같이 발굴을 완료하였기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09 월 일

건설공사의 시행자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	---